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독서와 작문

최인영 외

1 독서와 작문, 사이를 잇다

01 소통하는 독서와 작문

* 확인하기

본책 011쪽

1 × 02 ○ 03 × 04 ○ 05 ○

제11 문제 밑줄을 긋다 보면

제11 문제 확인 문제

본책 012~013쪽

1 ⑤ 2 ①

- (다)에서 필자는 책 위에 줄을 그어 남긴 연필 자국이 빙상 경기장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처럼 보인다고 하며 줄 그은 자국을 독자로서 책을 읽는 정신적 운동으로 여기고 있다. 즉, 스케이트 날 자국은 책의 저자가 남긴 연습의 흔적이 아닌 독자가 독서를 하며 남긴 정신적 연습의 흔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 이 글의 필자는 (라)에서 ‘문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봄이 아닌 여러 개의 봄을 만들어 주며 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감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하였다. 즉,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접하여 이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2 문제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과학자

제12 문제 확인 문제

본책 014~015쪽

1 ① 2 ⑤ 3 ㉠ 성찰, ㉡ 생각

- (다)에서 필자는 정재승의 글이 단순히 과학적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담은 이야기를 읽은 독자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③ (라)에서 정재승은 과학적 지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용, 비유, 예제를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정재승의 글은 독자가 과학 지식을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바라보는 시각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정재승은 이야기가 ‘알려 주는 것’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이야기를 중시하였다고 하였다.

- (바)에서 정재승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여러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글을 쓰며 그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책을 쓰지 못할 것 같던 불안감을 극복했다고 말하였다.
- (아)에서 정재승은 자신의 글쓰기가 자기 삶을 성찰하게 한다고 말하며 글이란 생각과 삶 사이에 놓인 ‘매개물’이라고 하였다.

*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018쪽

1 × 2 ○ 3 ○ 4 이야기 5 성찰하게

소단원 평가

본책 026~029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 (‘먹고 랑’)은 무엇인가(문장에 줄 그은 순간 느낀 시간과 감정이) 고인다는 특징에서 밑줄을 그을 때 책에 파인 흐릿한 흠을 표현한 것이다. 06 ② 07 ② 08 ④
 09 ⑤ 10 자기 삶을 성찰하게 하고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글로 선언하여 삶도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11 ④ 12 ⑤ 13 ⑤

- 이 글은 필자가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는 일상적 소재와 경험에서 발견한 독서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사색적인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 [A]에서 필자는 독서가 나와 나 자신, 현재와 과거, 우리와 타자를 잇는 먹 고랑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먹 고랑을 따라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가 독서를 통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세상, 개인과 시대 등 다양한 소통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필자는 ‘이야기의 이어달리기, 이야기의 배턴 터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독서를 통해 우리도 다른 다양한 이야기와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연필이 길고 둥근 이유도 실은 그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는 표현은 배턴과 비슷한 연필의 모양에서 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독서를 지속하는 모습과 배턴을 터치하며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을 연관지어 표현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문장에 선을 그으며 읽으면 독자는 선을 긋는 촉감과 선을 긋는 소리를 들으며 문장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문장을 읽으며 능동적으로 그 의미를 구성하며 정신적으로 접촉한다. 즉, 독서를 할 때 문자 언어를 읽으며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연필 자국이 저자와 악수한 뒤 남은 손자국 같아.'는 독자가 그 글의 저자와 문자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글을 읽는다는 의미이다.
- ③ 4문단에서 '곡강'을 통해 꽃잎 때문에 '봄이 깎인다.'라고 이해하는 삶을 이야기하며 문학이 우리에게 여러 개의 봄을 만들어 주어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감각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종이를 구기면 주름과 부피가 생겨 접촉면이 늘어나듯이 문학은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접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세계를 풍요롭게 감각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독서를 통해 세상에 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3문단에서 책에 그려진 '줄'을 방상 경기장 얼음판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05 ㉠은 필자가 자신이 줄 그은 자국(흠)을 '고랑'에 빗대어 연필로 그은 흠을 '먹'으로 만들어진 '먹 고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흠'과 '고랑'이 모두 길게 파인 형태라는 점과, 그 파인 부분에 무언가 고일 수 있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채점 기준	확인☑
㉠과 같이 표현한 대상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대상의 특징을 본문에서 찾아 서술하였다.	☐

06 이 글은 과학자이자 작가인 정재승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재승의 글쓰기 방법과 그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의미를 서술하는 글이다. 정재승의 자기소개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고, 정재승의 발언을 글의 곳곳에 직접 인용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07 (다)에서 정재승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 과학 지식을 엮어 그 지식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염두에 둔 글을 쓴다고 말하였다.

○답풀이

- ① (다)에서 독자들은 정재승의 글을 읽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였다.
- ③ (나)에서 동기화 현상을 예로 들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정재승의 쓰기 방법을 설명하였다.
- ④ (라)에서 정재승은 독자와 과학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 '인용, 비유, 예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말하였다.
- ⑤ (나)에서 정재승이 다양한 사회 현상, 인문과 경제 현상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여 새로운 영역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준다고 하였다.

08 <보기>는 작문을 통한 필자의 의사소통 방법과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은 정재승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였다는 내용이다. ㉡의 뒤에 인용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 사회가 무엇인지 통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정재승의 말에서 작문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답풀이

- ① ㉠에서 정재승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는 글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필자가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하여 글을 완성한다는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② ㉡은 정재승이 자신의 글을 읽은 독자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돌아보는 관심을 지녔으면 하는 생각을 담아 글을 썼다는 내용이므로, <보기>에서 글의 목적이 반영되었는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③ ㉢의 앞에서 정재승이 소통의 기쁨을 갖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하였고, 자신이 지닌 지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필자와 독자가 속한 공동체,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는다고 한 부분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 ⑤ ㉤에서 정재승은 자신의 글이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작문이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천이라고 한 부분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09 ㉠에서 정재승이 이야기를 중시한다는 것을 밝히며,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거나 지식을 알려 주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야기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10 (바)에서 정재승은 '자신의 글쓰기가 자기 삶을 성찰하게 한다고' 말하며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글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확인☑
정재승이 글을 쓰는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였다.	☐
(바)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였다.	☐

11 이 글은 조선 19대 임금 숙종이 자신의 어머니(명성 왕후)께 문안 인사를 드리며 환궁을 재촉하는 내용의 편지글과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답풀이

- ① 이 글의 편지에서 수신인은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 왕후, 발신인은 숙종이다. 숙종이 어머니께서 어서 환궁하시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② 수신인인 숙종은 자신의 어머니인 명성 왕후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이 글의 해설에 따르면, 편지봉투 맨 위에 숙종의 어압이 쓰였고, 편지봉투는 후대에 편지 옆에 함께 붙여졌다.
- ⑤ 이 글의 해설에서 편지봉투에 '명안 공주방'이라고 수신처를 적었다고 하였다.

12 <보기>에 오늘날에는 독자와 필자가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숙종의 편지글을 통해 발신인이 수신인의 의중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3 이 글의 편지에서는 세로쓰기를 하였으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사용하지 않았고, 한자와 한글이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섭~혀셔도'와 같이 반복되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주체적인 읽기와 쓰기

★ 확인하기

본책 031쪽

1 ○ 2 × 3 ○ 4 ○ 5 ○

★ 활동 1 확인 문제

본책 033쪽

1 (1) ○ (2) ○ 2 (1) 도서관 (2) 인터넷 서점

- 1 (1) 책을 고를 때는 책의 표지와 제목, 목차, 머리말, 본문의 일부 등을 살펴보고 글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사에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2) 책이 여러 사람에게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평이나 전문가의 의견, 추천 도서 목록 등을 참고하고, 책의 저자나 책을 펴낸 출판사가 믿을 만한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1) 도서관에서는 책을 구분하고 책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기호인 도서 청구 기호로 책을 찾을 수 있고, 절판된 책을 구하거나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대출 기한이 있고 책에 직접 메모할 수 없다.
(2) 인터넷 서점에서는 책 소개 영상이나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책을 훑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인터넷 서점에 남긴 후기를 참고할 수 있다.

★ 활동 2 확인 문제

본책 035쪽

1 예상 독자 2 (1) × (2) ○

- 1 작문 맥락에는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글을 읽을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이 있다. 제시된 내용에서 운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음을 지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하였으므로 작문 맥락 중 예상 독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1)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글감으로는 책 제목과 내용,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구절과 그 이유, 신문이나 블로그에 실린 서평, 책의 작가가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 책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등이 있다. 책의 분량과 가격은 책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 글을 쓸 때 글감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글을 쓸 때 활용할 글감을 수집한 뒤 이를 선별할 때는 글감의 내용이 통념적이거나 뻔하지 않고 독자의 흥미를 돋을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글감에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가치가 담겨 있지 않은지 고려해야 한다.

★ 활동 3 확인 문제

본책 037쪽

1 출처 2 (1) 변형하지 (2) 구분하여

- 1 선별한 글이나 자료를 작문에 활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한다. 출처는 형식에 맞게 정리하여 글의 맨 뒤에 참고 문헌으로 적는다.
- 2 (1)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자신의 글 속에 그대로 옮겨 담는 것이므로, 원문의 의미를 과장이나 축소, 왜곡하는 등의 변형 없이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
(2) 자신이 쓴 글에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글감으로 활용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분하여 적어야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 소단원 평가

본책 039~040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① 09 글에 활용한 글감의 출처를 밝혀 적음으로써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01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독서의 목적, 글의 수준과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책에 쓰인 내용이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내용인지(ㄱ), 사용된 단어의 수준이 이해할 만한지(ㄴ), 분량이 적절한지도 확인한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책인지(ㄷ) 저자나 출판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02 <보기>에서 '내 꿈은 웹툰 작가인데,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나'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책을 읽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03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로는 서점, 도서관, 인터넷 서점 등이 있는데 절판된 책을 구할 수 있고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서점이 아니라 도서관에 해당한다.
- 04 <보기>의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쓸 글은 예상 독자인 학급 친구를 대상으로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이다.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 학술적 조사 자료를 글감으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책을 소개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동참을 주제로 하는 글을 쓸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글감으로 환경 운동가와 관련한 일화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자신이 읽은 책의 저자가 책의 주제인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④ 쓸 글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에 동참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환경 보호의 실천 사례와 관련한 글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책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읽은 책의 내용을 글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05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는 책의 제목과 내용,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 책에서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 신문이나 블로그에 실린 책에 대한 서평, 책을 쓴 작가의 인터뷰 기사나 영상, 책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의 작가가 작성한 다른 책에 대한 평가는 소개하려는 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참고할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글감을 선별할 때는 독자의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인지, 글의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내용인지, 글을 실으려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글감의 분량이 많고 적응과 전문적 내용을 포함한 글감인지는 수집한 글감을 선별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07 이 글은 웹툰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필자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의 책을 읽은 뒤 그 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아직 자신의 꿈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진로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08 웹툰 작가인 책의 저자의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웹툰 업계에 끼친 영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② 웹툰 작가가 쓴 책에 실린 브라우니 일화를 글의 서두에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웹툰 작가인 글의 저자가 그림을 좋아한 어린 시절부터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케이티비(KTV) 방송 내용을 인용하여 책의 저자인 웹툰 작가의 작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 ⑤ 한겨레 신문사와의 인터뷰 내용인 "누군가 내 그림을 보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보여 주고 싶었다.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와 같은 내용을 인용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09 ㉠은 이 글에서 활용한 글감들의 출처를 밝혀 적은 것으로,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글의 마지막에 반드시 밝혀 적어야 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확인☑
㉠을 제시한 이유를 타인의 지식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서술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을 제시한 이유를 글의 신뢰성 측면에서 서술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 01** ⑤ **02** ③ **03** ① **04** 카누의 노처럼 독서를 진행하게 하는 힘과 리듬을 만든다. **05** ②
- 06** ③ **07** ③ **08** ⑤ **09** ③ **10** ③
- 11** ⑤ **12** ① **13** ① **14** ⑤ **15** 글쓰기는 삶을 성찰하게 하며, 생각을 글로 선언하여 삶을 생각대로 만드는 생각과 삶 사이의 매개물이다. **16** ⑤
- 17** ① **18** ② **19** ⑤ **20** ② **21** ③

01 이 글은 필자가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은 일상의 경험에서 생각한 독서의 의미를 비유, 열거, 인용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간결하고 사색적인 문체로 서술한 글이다. 이 글에는 독서와 관련한 전문가의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다.

02 필자는 (다)에서 문장에 멈춰 밑줄을 치는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며 왜 밑줄을 쳤는지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에는 필자가 자신의 책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연필을 보며 '세계의 나무들이 비죽 솟은 작은 숲' 같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필자가 연필을 주로 사용하는 순간들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가)의 중심 내용은 책상 위 연필꽃이를 보며 드는 생각과 연필이 필요한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04 (나)에 따르면, '줄 긋는 행위 자체가 때론 카누의 노처럼 독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리듬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책에 밑줄을 긋는 행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나)에 쓰인 문장을 활용하였다.	☐
'줄 긋는 행위'가 독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였다.	☐

05 필자는 책에 줄을 그으며 독서를 함으로써 저자와 소통하였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그 밑줄을 '저자와 악수한 뒤 남은 손자국'이라고 표현하였다.

06 ㉠은 종이를 구기면 주름과 부피가 생겨 접촉면이 늘어나듯이 문학을 읽음으로써 이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확장하여 풍부하게 감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 ① ㉠은 필자가 어떤 문장 앞에 멈추는 이유 중 하나로, '미간에 생각이 고'인다는 것은 어떤 문장을 읽고 생각에 잠긴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은 필자가 자신이 줄 그은 자국을 스케이트 선수가 연습하느라 얼음판에 남긴 스케이트 날 자국에 빚낸 것으로, 책을 읽으며 주체적으로 사고한 것을 스케이트 선수의 연습에 비유한 것이다.
- ④ ㉠은 필자가 밑줄 친 책에 파인 홀을 '먹 고랑'에 빚낸 것으로, '먹 고랑'에 독서할 때의 시간과 감정이 고여 나와 나 자신, 현재와 과거,

우리와 타자를 이어준다고 보아 책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만남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㉔ ㉕은 천천히 꾸준히 밑줄을 이어가며 그 밑줄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독서를 한다는 의미이다.

- 07 ㉔는 세계를 단편적이고 즉물적으로 이해하는 삶이고, ㉕는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풍요롭게 감각하는 삶이다. 필자는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㉔에서 벗어나 ㉕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㉔와 ㉕는 모두 꽃잎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㉔는 단순히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고, ㉕는 그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삶이다.

- 08 필자는 ‘연필’과 ‘배턴’이 모두 길고 둥근 모양이라는 점,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배턴’을 주고받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이 독서를 할 때 쓰는 도구인 ‘연필’이 ‘배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표현하였다. 즉, 필자는 ‘배턴’을 통해 이어달리기가 이어지듯 ‘연필’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시대와 시대를 만나게 해 주는 독서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 09 이 글은 과학자 정재승의 글쓰기 방법과 그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의미를 소개하는 글로, 글의 서두에 정재승의 자기소개를 인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10 (다)를 통해 정재승의 글은 단순히 과학 지식을 알려 주는 글이 아니라 이야기에 과학 지식을 얹어 과학 지식을 흥미롭게 느끼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글임을 알 수 있다.

- 11 (다)에 따르면 정재승은 이야기를 중시하는데, 이는 이야기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12 (라)를 통해 정재승이 독자들과 과학의 경이로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나누는 ‘소통’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이 글은 대중에게 과학 지식을 알리고 우리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정재승의 글쓰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㉔ ‘과학 분야의 글쓰기의 정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나)를 통해 정재승의 글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현상들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되는 것을 보여 주면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라)를 통해 정재승이 글을 쓸 때 인용, 비유, 예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⑤ (바)를 통해 정재승이 ‘책을 쓰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책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라 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4 정재승은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자신의 글이 세상을 바꾸어 세상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화두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 글쓰기가 개인 간 의사소통을 넘어서 공동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사)에서 정재승은 자신의 글쓰기가 삶을 성찰하게 한다고 하며 생각으로만 머물던 것을 글로 선언함으로써 삶이 그렇게 실현 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글은 생각과 삶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이라고 표현하였다.

채점 기준	확인 ☑
‘매개물’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였다.	☐
글쓰기가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서술하였다.	☐

- 16 이 글에 제시된 편지글에서 ‘섭~’을 통해 반복되는 글자는 ‘~’로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7 이 글의 편지는 1680년경, 즉 조선 시대의 숙종이 쓴 것으로 과거의 작문을 통한 의사소통 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글과 이 글의 편지를 통해 과거에는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종이에 붓으로 쓴 글을 사람을 통해 주고받았으며, 편지와 편지봉투를 엮어서 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8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나’가 흥미를 가진 주제이다. ‘나’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 ‘웹툰 작가의 삶’이라고 하며 자신이 흥미와 관심에 맞는 책을 선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㉔가 가장 적절하다.

- 19 <보기>의 ‘나’는 친구들이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책을 읽고 소개하는 글을 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감, 책과 관련한 저자의 인터뷰 영상을 글에 활용할 수 있다. ㉔는 <보기>의 ‘나’가 설정한 작문 맥락과 달리 삽화의 예술성에 주목한 글감으로, <보기>의 ‘나’가 작문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20 <보기>는 이 글의 필자가 읽은 책에 있는 그림으로, 이 글의 3 문단에 제시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책에 있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는 독자들은 책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글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21 ㉔은 케이티브이(KTV) 방송 내용을 인용하여 책의 저자인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져 인기를 얻고 있음을 서술한 부분이다. 책의 저자의 삶이 드라마화된 것이 아니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2 읽고 쓰는 힘을 기른다

01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확인하기

본책 055쪽

1 ○ 2 × 3 ○ 4 ○ 5 ×

제재 얼굴, 음성 그리고 문자

제재 확인 문제

본책 056~057쪽

1 ㉠ 얼굴, ㉡ 음성, ㉢ 글자 2 (1) 문자 메시지, (2) 타자성
3 ㉤

1 이 글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통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나)~(라)에 따르면,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는 타자를 직접 마주보며 타자의 '얼굴'로 관계를 맺어야 했지만, 전화 이후에는 '음성'으로 존재를 인식하며 소통하게 되었고, 휴대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보급되면서 타자의 존재는 '글자'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에는 '얼굴', ㉡에는 '음성', ㉢에는 '글자'가 들어간다.

2 (1) (라)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단순히 대면이나 통화를 준비하는 단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 문자의 층위에서 다 해결되면 좋겠다'는 소망의 매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으로 관계를 처리하려는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간다.

(2) (마)에서는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소통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타자의 '다름'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 점차 축소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철학적으로 '타자의 타자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문자를 통한 소통은 바로 이 타자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타자성'이 들어간다.

3 (바)에서 필자는 결별 선언과 해고 통지도 문자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예로 들어, 이러한 소통 방식이 타자의 타자성을 회피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점차 축소·약화시킨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바)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회피하려는 욕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즉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욕망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바)에서 필자가 결별 선언이나 해고 통지가 문자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관계 단절의 모든 원인을 문자 소통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③ 소통 방식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여 소통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는 필자가 제시하려는 내용인 타자성을 축소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

④ (바)에서 필자는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타자성이 축소되는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059쪽

1 × 2 ○ 3 전화 4 ○ 5 ×

소단원 평가

본책 066~067쪽

01 ㉡ 02 ㉠ 03 ㉠ 04 ㉢ 05 ㉤

06 필자가 생각하는 문제 상황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를 문제 상황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하여 필자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1 이 글은 사람들이 '타자'를 접하는 방식을 '얼굴(대면) → 음성(전화) → 글자(문자 메시지)'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축소·변화했는지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자의 타자성이 점점 희미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필자는 자신의 경험과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있을 뿐, 객관적 데이터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③ 과거 소통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변화 과정을 관찰하며 성찰하고 있을 뿐이다.

④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지는 않으며, 성찰적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소통 방식 간의 장단점 비교보다는 변화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2 필자는 타자성이 축소 조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즉, 필자는 소통 방식이 '진화'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한 변화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로의 소통 문화의 변화가 성숙한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는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나)의 '나와 당신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 일은 만만찮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불쑥 찾아뵈어서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거의 할 일이 없어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전화는 만날 수 없는 고통을 덜어 주는 기계이지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어 주는 기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전화 속의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지도 않는 그저 하나의 음성일 뿐'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이 글에서는 대면 소통 속에서 타인의 얼굴과 시선을 마주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인식이 생기며, 이것이 바로 타자의 타자성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 제시된 ‘타자의 타자성’은 ‘나와 타자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특성이므로, ①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 ② 나와는 다른 타자의 특성을 부정하고 타인을 도구화하는 관점으로, 타인을 나와 구별되는 존재로 인정하는 ‘타자의 타자성’과는 다른 의미이다.
- ③ 타자의 타자성은 타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과는 무관하며, 상대방의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특성이다.
- ④ 이 글에 제시된 ‘타자의 타자성’은 타인과의 차이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 ⑤ 타인을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타자성 자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04 필자는 (나)에서는 타자가 휴대 전화 덕분에 ‘얼굴은커녕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글자로서의 타자’가 되었다고 하며, 글자-타자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에서는 ‘타자의 타자성을 본의 아니게 점차 축소하는 방식’이라고 하여 ㉠(‘글자-타자’)이 타자의 ‘다름’을 가장 축소한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글자-타자’)은 타자의 낯센과 불편함이 가장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① (나)에서 ㉠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시선을 감당해 내는 일이고 표정이 머금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일’이라고 하여 ㉠의 심리적 부담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나)에서 ‘얼굴-타자’보다 ‘음성-타자’가 더 편안하다고 하면서도 ‘글자-타자’는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아 가장 편안하다고 설명하는 것에서 ‘음성-타자’에는 음성에 담긴 어조 등을 해석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조금은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당신은 축소 조정돼 왔다’며 타인을 마주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라)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러한 소통 방식 변화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05 이 글의 필자는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인해 ‘타자의 타자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타자성을 회피하는 소통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필자는 비대면 문화가 ‘감정의 소모를 줄여 주고’ ‘자유로움이나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답풀이

- ① <보기>의 필자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비대면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이 글의 필자는 대면 소통의 불편함을 인정하지만, 그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필자는 개인의 성향이 아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통의 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기>의 필자도 비대면 문화를 사회 전반의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⑤ <보기>의 필자는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들고 있을 뿐 객관적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06 이 글의 필자는 독자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독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어투로 글을 썼다. 필자는 독자에게 이러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필자가 지적하는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도 이러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려고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의도를 제시하였다.	☐
독자를 문제 상황의 당사자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제시하였다.	☐

02 비판적 읽기

★ 확인하기

본책 069쪽

1 ○ 2 ○ 3 × 4 ○ 5 ×

제재 줄 서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제재 확인 문제

본책 070~074쪽

1 ⑤ 2 (1) 권리, (2) 사회적 효용 3 ①
4 ㉠ 능력, ㉡ 분배 5 가치 6 ⑤

1 (가)~(다)에서 필자는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한 대리 줄 서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사람을 고용해 대리 줄을 세우거나 압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라는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셰익스피어 공연이 대리 줄 서기와 압표 판매로 인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답풀이

- ① 예술 가치의 훼손보다는 분배의 공정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④ 정부나 국가, 공공 단체 개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무료 공연에 대한 대리 줄 서기의 허용 여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 ③ 사람들이 모든 문화 혜택을 평등하게 향유해야 하는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공연이 압표와 대리 줄 서기로 분배되는 것이 쟁점이다.

2 (1) (라)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2) (마)에서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한다’고 하였다.

3 (차)에서 필자는 공연 대변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압표 거래는 ‘125달러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압표 가격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고 하였다.

4 (하)에서 필자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배분하듯, 줄 서기는 자발적으로 기다리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분배한다’며, 시장과 줄 서기 방식 모두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거)에서 줄 서기와 시장 논리 중 어느 것이 재화를 분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는 능력, ㉡에는 분배가 들어가야 한다.

5 (너)에서 필자는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대해,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견해는 아니며 어떤 재화는 단순한 효용의 총합을 넘는 더 깊은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재화의 분배 방식 자체가 그 재화의 본질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시장에서 가격으로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재화가 가진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

6 퍼블릭 시어터는 무료 야외 공연을 시장 경제 원리로 분배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는 ‘본래 선물이어야 하는 행사로 입장료를 받거나 압표상이 이득을 취하게 허용하는 일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답풀이

① (리)에서 ‘말하자면 시(市)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선물인 셈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퍼블릭 시어터는 무료 야외 공연을 대중의 축제이자 일종의 시민 축하 행사로 생각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 즉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관람료 지불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셰익스피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퍼블릭 시어터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077쪽

1 × 2 ○ 3 효용 4 효율적 5 사적

01 ① 02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야외 공연을 보고 싶지만 입장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설 시간이 없는 뉴욕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④ 08 필자는 대리 줄 서기가 모두를 위한 공공의 축제라는 취지를 훼손하고, 일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았다.

09 ③ 10 ③ 11 ⑤

01 (가)~(마)는 뉴욕 퍼블릭 시어터의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에서 발생한 대리 줄 서기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시장을 옹호하는 두 가지 입장(자유 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을 설명하고 있다.

○답풀이

②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한 변화 양상 분석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특정 입장들의 논리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④ 공리주의 이론의 발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다루지 않고, 현재 쟁점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만을 제시하고 있다.

⑤ 경제 용어에 대한 개념보다 ‘대리 줄 서기’라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자유 지상주의자의 입장과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02 (가)에서 ‘많은 뉴욕커들은 연극을 보고 싶었으나 줄을 설 시간이 없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작은 사업거리가 새로 등장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무료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줄을 설 시간이 없는 상황적 제약을 제시하였다.	☐

03 <보기>의 학생은 필자가 권위 있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글에 제시된 자유 시장의 재화 분배의 적절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신뢰성도 높였다고 하였다. 이는 글의 표현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는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04 이 글에서는 퍼블릭 시어터가 ‘대리로 줄을 서 주는 사람들의 영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답풀이

① (마)에서 그레고리 맨큐의 견해를 바탕으로 압표 거래를 자유 시장의 효율성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뉴욕 검찰 총장이 광고를 금지한 이유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연의 취지를 침해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③ (라)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이득을 얻는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할당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재화는 무엇이든지 거래할 수 있다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05 ㉠은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자유 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으로, (라)에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마)에서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시장에서 거래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높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 ㉠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으로, (마)에 '재화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은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라)에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은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으로, (다)에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06 ㉮는 125달러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는 의미이고, ㉯는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의미이다. 즉, 두 문장 모두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와 ㉯는 모두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외부 압력보다는 내적 동기를 전제로 한다.
 ③ 이상적인 시장 거래에서는 양측이 동등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와 ㉯는 각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와 ㉯는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⑤ ㉮와 ㉯는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는 무관하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07 (다)에서 필자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지, 줄 서기가 더 잘 수행할지는 추상적인 경제적 논리에 따라 미리 결정할 수 없는 경험적 문제다'라며 줄 서기와 시장 거래 중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사전에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마)에 '퍼블릭 시어터는 무료 야외 공연을 대중의 축제이자 일종의 시민 축하 행사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시(市)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선물인 셈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라)에 '재화의 분배 방식은 재화가 지닌 본질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가)에 '125달러를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행위'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 '시장 가격에는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이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08 (마)는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공연이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시민적 축제이자 선물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 이 맥락에서 필자는 암표 판매나 대리 줄 서기와 같은 시장 거래가 이 같은 취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채점 기준	확인☑
무료 공연의 원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09 [A]는 야구장의 비싼 좌석 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구를 보는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예시를 들어 시장 가격이 반드시 '가장 열망하는 사람'에게 재화를 배분하지 않음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항상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반영하며 분배의 타당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반박하는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

오답풀이

㉠. [A]는 시장 논리의 타당성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 줄 서기의 공정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나 주장은 [A]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 이 글에서 공연 대변인(㉮)은 대리 줄 서기와 암표 판매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공연 관람의 평등성과 공연의 취지를 강조하며 시장 논리를 비판한다. 반면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간도 자원이므로 돈을 더 내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모두 자원의 배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다루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는 시장 논리가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에, ㉮의 시장 배분의 기여에 양측이 모두 동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는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공연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며, 줄을 선 순서에 따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② ㉮는 시간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상황이 된다고 비판하지만, ㉮는 서비스에 경제적 가치가 매겨지고 소비자가 이를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다.
 ⑤ ㉮는 셰익스피어 공연의 취지를 강조하며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보고, ㉮는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간 가치를 중요시한다.

11 필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유일하게 중요한 견해는 아니다'라며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다른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효용을 넘어서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반박'이 공리주의적 기준만으로는 줄 서기와 시장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분배 방식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03 내용 조직과 표현, 고쳐쓰기

+ 확인하기

본책 091쪽

1 × 2 ○ 3 ○ 4 ○ 5 ×

+ 활동 1 확인 문제

본책 093쪽

1 ⑤ 2 표현 전략

- 1 이 글은 수영과 글쓰기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필자는 수영과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실천을 통해 서서히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배움이란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고 이야기하며 배움에 있어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답풀이)

- ① 수영은 필자가 글쓰기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빗댄 대상일 뿐, 이 글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이 글에서 필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기 보다, 자신이 글쓰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있다.
 ③ 이 글은 글쓰기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독서 방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글쓰기를 수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나, 두 대상의 유사성을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 2 이 글에서 필자는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표현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 전략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글쓰기 과정을 구체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로 바꾸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비유를 통해 글쓰기의 두려움과 반복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독자가 필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표현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

+ 활동 2 확인 문제

본책 095쪽

1 (1) ○ (2) × 2 내용 생성하기

- 1 (1) (가) ‘계획하기’에서는 글의 목적과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과 같은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독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2) (나)의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하나의 매체만 고집하면 정보에 대해 편향되거나 제한된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매체마다 정보에 대한 관점이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2 제시된 설명은 작문 과정 중에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는 생각을 떠올

리고,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질문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모으고,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한다.

+ 활동 3 확인 문제

본책 097쪽

1 ㉠ 표현하기 ㉡ 내용 조직하기 2 (1) × (2) ○

- 1 ㉠은 ‘표현하기’, ㉡은 ‘내용 조직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표현하기에서는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단계로, 어휘, 문장, 문단 수준에서의 표현 방식을 구체화한다.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앞서 떠올린 생각이나 찾아 놓은 자료를 글의 목적, 예상 독자,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구조화한다.
- 2 (1) (다)의 개요에서 ‘끝’ 부분에 제시된 ‘채식의 의미’는 ‘채식의 종류와 채식이 주는 이점’이라는 글의 주제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 채식의 실천을 권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라)에서 작성한 글에서 필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체력 소모가 높은 운동선수가 채식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우신가요?’라는 의문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활동 4 확인 문제

본책 099쪽

1 단어 2 ①

- 1 글을 쓴 뒤에는 표현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 사용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문맥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했는지, 맞춤법에 맞추어 바르게 썼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2 ‘글의 전체 분량’은 글의 질적인 완성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쳐쓰기의 평가 요소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본책 101~102쪽

01 ③ 02 ③ 03 ④ 04 글쓰기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물에 대한 두려움에 빗대어 표현하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05 ④ 06 ⑤ 07 ㄱ, ㄴ, ㄷ 08 ①

- 01 이 글은 수영과 글쓰기를 비유하여, 글쓰기가 단순한 의지나 마음가짐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글을 쓰는 데에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따르며, 그것은 의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반복하고, 몸을 움직

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 글쓰기 능력이 조금씩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어도 일단 시작해야 하며,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오히려 “물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굳는다.”라는 진술처럼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기고 있다.
- ② 필자는 ‘락스 섞인 물 1.5리터쯤 먹을 각오하기’를 ‘영망인 글 토해내기’로 비유하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필자는 오히려 ‘물에 빠졌을 때 구해 줄 수영하는 친구 옆에 두기’에 비유하며, 글을 같이 읽고 다듬는 사람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필자는 수영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밝히고 있으며, “두려움은 의지로 퇴치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02** 필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감정을 극대화한 문체’는 진솔한 정서 표현이라는 작문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 ② ‘반복적이고 강한 어조’로 독자에게 동기 부여를 유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설득적 글쓰기에 가깝고 이 글의 목적인 정서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④ 흐름이 긴 만연체와 같은 문장의 사용은 오히려 예상 독자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⑤ ‘체계적인 목차와 실습 예시’는 교육 도서 등에 어울리는 내용이며, 수필 형식의 이 글과는 거리가 있다.

- 03**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에 제시된 ‘수영과 글쓰기의 비유’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다시 풀어내고 있다. 즉,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필자는 수영과 글쓰기를 연결한 글을 읽은 독서 경험을 소개하고 그 글의 핵심 요지를 요약한 뒤, 그 다음 문단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 ② 필자는 2~3문단에서 글쓰기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4문단에서 이를 모든 배움으로 확장하여 배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필자는 수영의 여러 단계(수영장 가기, 입수하기, 물 먹기, 친구 옆에 두기, 반복하기)를 글쓰기 과정(책상에 앉기, 첫 문장 쓰기, 영망인 글 쓰기, 같이 읽고 고치기, 반복하기)에 하나씩 대응시켜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 ⑤ 필자는 ‘물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다’며 글쓰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04** 필자는 수영 초보자가 물에 들어가면 몸이 굳듯이, 글을 쓰려는 사람도 막상 펜을 들면 원활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글쓰기의 심리적 어려움을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유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글쓰기’와 ‘물’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
㉠의 의미와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제시하였다.	☐

- 0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는 글을 쓸 때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한다.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의 특성에 따라 글에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 방식, 글의 구성이나 형식 등을 달리해야 한다. 이는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글의 논지를 흔들리게 할 수 있으며, 글의 예상 독자와 관련된 요소로 보기 어렵다.
- ② 문장에 정확한 의미를 담는 것은 글쓰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가 아니다.
- ③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필자 개인의 내적 신념으로, 독자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에서 독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글의 목적이나 어조, 강조할 내용 등이다.
- ⑤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글의 핵심 주제와 긴밀히 연결된 필수 정보나 설명으로, 독자의 흥미 유발을 위한 요소여도 핵심에서 벗어난 내용은 글의 논지를 흐릴 수 있어 삭제함이 적절하다.

- 06** ㉠ ‘고쳐쓰기’는 단순히 글을 아름답게 고치기 위해 표현을 덧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글 전체를 대상으로 내용의 타당성, 구조의 논리성, 표현의 적절성, 문법과 맞춤법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단계이다. ㉡는 고쳐쓰기의 일부 활동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목적과 범위를 좁게 설명하고 있어 작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07** 이 글은 운동선수들이 채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독자의 흥미를 끌고(㉠), ‘보통 사람들보다 체력 소모가 높은 운동선수가 채식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운가요?’와 같은 의문문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비너스 윌리엄스, 노바크 조코비치, 칼 루이스 등 유명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고 기네스북에 오른 한 보디빌더의 사례를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나(㉢), 채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08** ㉠의 ‘하나 더’는 단어와 단어 사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하나더’로 붙여 쓰는 것은 잘못된 수정 방안이다.

오답 풀이

- ② ㉠의 ‘메시’에 대한 언급은 채식주의자인 운동선수들을 소개하는 맥락과 맞지 않아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에서 ‘체력 소모가 높은’은 의미상 어색한 표현이므로 ‘체력 소모가 많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④ ㉢의 인용문 안에서 문장이 완결되었으므로 문장 부호 사용 규칙에 따라 마침표를 추가해야 한다.
- ⑤ ㉣의 ‘말인데요’는 ‘말인데요’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맞춤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 01 ② 02 ② 03 ⑤ 04 필자는 소통 방식의 변화가 우리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05 ⑤
-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①
- 11 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하므로, 대리 줄 서기를 허용해야 한다. ㉕: 대리 줄 서기와 암표 거래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한 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12 ① 13 타자성 회피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
- 14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 15 ④ 16 ④
- 17 ① 18 ⑤ 19 이 학생은 글에 제시된 관점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20 ⑤ 21 ④
- 22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3 ③ 24 ④

01 필자는 현대인이 타인의 '다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축소시키고 피상적으로 만든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이것이 인간관계의 확장이 아니라 축소를 가져온다고 본 것이다.

○답풀이

- ① (나)에서 '글자-타자'를 '얼굴은커녕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글자로서의 타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라는 글자로 소통하는 타인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얼굴-타자보다 음성-타자가 더 편안하다'고 설명하였다.
- ④ (다)에서 '기술의 발달이 타자의 타자성을 본의 아니게 점차 축소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얼굴-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상대의 '표정이 머금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02 <보기>의 A 씨는 메신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소통의 대상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의 '나와 당선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 일은 만만찮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다. 이때 당신은 내가 잘 알지 못하므로 그만큼 부담스러운 타인이다.'를 통해 A 씨가 '얼굴-타자'와 소통할 때 소통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친밀하지 않다면 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답풀이

- ① A 씨는 상대와 소통할 때 우선 문자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음성을 활용하여 통화한다고 하였다. A 씨가 소통할 때 문자를 활용하는 것은 '더 은밀하게는 모든 일이 이 문자의 층위에서 다 해결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행위로 볼 수 있다.
- ③, ④ 필자는 대면 소통을 '만만찮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B 씨는 매장 직원과의 대면 소통을 노동으로 인식하여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B 씨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행동은 '얼굴-타자'와의 대면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여길 수 있다.

⑤ 두 사례 모두 '얼굴-타자'와의 대면 소통을 피하고 있으므로 타자성을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표현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03 (나)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의 주요 소통 방식이 대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변화하면서 타자의 타자성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일련의 행동이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서술해 나가는 '과정'의 전개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04 (라)에서 필자는 직접적으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㉔와 같이 의문문을 연달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제시한 읽기 방법에 따라 글에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가 글자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현재의 변화가 끝이 아님을 암시한 후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통해 미래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소통 방식 변화에 따른 현상에 대한 필자의 우려를 제시하였다.	☐
소통 방식의 변화가 진정한 진화인가에 대한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는 의도를 제시하였다.	☐

05 ㉔에서 필자는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누구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며 타자성이 축소된 현상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답풀이

- ① 필자가 '어제만 해도 나는 이런 문자를 두세 사람에게 보냈고 또 두세 사람에게 받았다'며 제시한 오늘날 소통 관습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 ② '얼굴-타자'는 철학적 개념인 '타자'를 활용하여, 전화 발명 이전의 대면 소통에서 타자가 존재한 양상을 개념화한 용어이다.
- ③ '~기게이지만, ~기게이기도 하다'는 표현을 통해 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 ④ 소통 방식의 변화로 타자의 존재 양상이 '얼굴-타자'에서 '음성-타자'로, '음성-타자'에서 '글자-타자'로 변화하면서, 타자의 타자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편리한 소통만을 하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06 '도망하여 몸을 피하다.'는 '도피(逃避)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회피(回避)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피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다.'이다.

07 (마)에서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논리에 반박하면서 시장 거래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지불 능력과 재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공리주의적, 자유 지상주의적 관점이 지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마)는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내용이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가)는 퍼블릭 시어터의 셰익스피어 무료 야외 공연의 입장권을 얻고 싶으나 줄을 설 시간이 없는 뉴요커들의 수요로 생겨났다는 대리 줄 서기의 등장 배경과, 이로 인해 발생한 논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 지상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대리 줄 서기를 옹호하는 논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다)는 압표 거래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함을 분석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라)는 공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야 한다는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자유 시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08 (나)에서 공리주의자들은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똑같이 이익을 얻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시장 거래는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09 (라)에서 필자는 (다)의 내용에 대한 대리 줄 서기와 압표 거래 금지에 반대하는 시장 옹호자들의 입장을 예상 반론 형태로 제시하고, 이어지는 (마)에서 그 반론을 비판하고 반박한다. 이렇게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필자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마)에서 필자는 (라)를 반박하며 시장 논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가격 지불 의사 유무가 곧 재화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를 뜻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10 필자는 (마)에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실제로 지불할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이가 시장 거래에 완벽하게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가 현혈증 거래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①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② (나)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어떤 재화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며, 개인의 자발적 의지를 중시한다고 하였으므로 현혈증 거래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 ③ (나)에서 공리주의자는 시장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혈증을 파는 사람은 금전적 이익을 얻고, 현혈증이 필요한 사람은 금액을 지불하고 현혈증을 얻는 현혈증 거래가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효용을 높인다고 볼 것이다.
- ④ (다)와 (마)에서는 공공의 가치가 금전적 거래로 왜곡되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는 현혈의 숭고한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의 주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자유 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찬성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11 (나)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주장하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대리 줄 서기도 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다)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은 이 행위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무료 공연의 공공성과 공연 관람 기회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대리 줄 서기에 대한 자유 지상주의자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
대리 줄 서기에 대한 셰익스피어 공연 대변인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

12 (가)는 철학적 의미의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소통 방식 변화에 따른 타자의 존재 양상을 ‘얼굴-타자’ → ‘음성-타자’ → ‘글자-타자’라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② (가)는 대면 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는 대리 줄 서기나 압표 거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장 경제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나)는 대리 줄 서기나 압표 거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두 입장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해소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는 각각 현대인의 소통 방식과 대리 줄 서기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13 필자는 ㉠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일방적 통보가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타자성 축소 현상의 심각성을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고, 필자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필자가 ㉠을 제시한 이유로 구체적 사례 제시, 뒷받침, 예시 등을 언급하였다.	☐
필자가 ㉠을 제시한 효과로 문제점 부각, 성찰 유도 등을 언급하였다.	☐

14 (나)에서 필자는 줄 서기와 시장 방식 모두가 재화를 분배할 때 특정 기준을 따른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각각 ‘자발적으로 기다리려는 마음과 능력’,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이다. 따라서 줄 서기와 시장 논리를 비교할 때 필자가 재화의 가치 평가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자발적인) 마음과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15 (나)의 1문단에서 압표 거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이 재화를 분배한다고 하였다. 공리주의자들도 줄 서기보다 시장 논리를 옹호하므로 재화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들은 <보기>에 제시된 우선 탑승권 판매에 대해 시

간이라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시장 거래는 정당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 16 (나)의 2~3문단에서 줄 서기와 시장 논리 중에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리주의자는 시장 논리가 재화 분배에 적절하다며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필자는 공리주의자의 입장에 대해 시장 거래만이 재화를 이상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㉔은 공리주의자의 시장 논리가 재화를 분배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견해가 아니라는 의견의 근거가 된다.

- 17 사실적 읽기는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으로, 글의 중심 내용과 단어, 문장, 문단의 내용과 관계를 살펴서 글을 이해한다. ①은 추론적 읽기의 방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할 때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글에 담긴 다양한 단서를 활용하여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내용을 짐작하면서 읽는다.

- 18 추론적 읽기는 글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글의 문맥과 독자의 배경지식 등을 바탕으로 유추해 내는 것으로, ⑤의 내용이 적절하다.

○답풀이

- ① 추론적 읽기는 공감보다는 의미 파악과 정보 유추에 초점을 둔다.
 ② 추론적 읽기는 글의 논리와 맥락에 기반해야 하므로,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글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이념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은 비판적 읽기의 방법 중 하나이다.
 ④ 추론적 읽기는 문장이나 단어 수준의 내용 확인이 아닌 문맥과 전체 흐름을 고려한 해석이 중요하다.

- 19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내용의 타당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도 평가해야 하지만, 필자가 편향된 관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평가해야 한다. 제시된 학생의 반응은 주장 자체보다는 다른 시각의 배제 여부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공정성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학생이 평가한 요소가 관점의 공정성임을 제시하였다.	☐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서술하였다.	☐

- 20 추론적 읽기는 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유추하는 것이며,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활동이다. ㉔은 글에 담긴 정보와 단서를 바탕으로 글에 숨겨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㉔은 글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둘 다 추론적 읽기에 해당한다. ㉔은 광고 속 정보의 진위를 따지며 읽는 것이고, ㉔은 주장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둘 다 비판적 읽기에 해당한다.

- 21 이 글의 목적은 채식 실천을 권유하는 것으로,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채식의 이점과 실천 방법을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㉔ ‘채소 분류법’은 글의 주제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며, 독자의 관심을 끌거나 채식 실천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아니므로 개요에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2 ‘준수’는 자신의 글을 읽은 ‘희민’이 ‘서스펜션’, ‘유압식’ 같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자, 자전거 부위의 명칭에 대한 소개를 글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는 글을 읽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확인☑
예상 독자의 수준과 배경지식을 고려했음을 제시하였다.	☐
글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임을 제시하였다.	☐

- 23 청소년 독자를 위한 글이더라도,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나 논지를 유행어나 비속어로 표현하는 것은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답풀이

- ① 변경한 작문 맥락에서 뉴 미디어라는 매체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므로, 복합양식성을 띠는 뉴 미디어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독자가 성인에서 10대 청소년으로 바뀌면 이해력과 배경지식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춰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 등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은 매체와 독자 모두를 고려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딱딱한 문어체보다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하면 청소년 독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예상 독자인 10대 청소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4 <보기>는 글쓰기 연습이 반복이 필요한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기>를 [A]처럼 고쳐 씀으로써 필자는 모든 배움의 원리가 반복을 통한 변화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배움의 원리로 확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3 삶을 성찰하다

01 인문·예술 분야의 글

★ 확인하기

본책 119쪽

1 ○ 2 ○ 3 × 4 ○ 5 ○

제1 제1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제1 확인 문제

본책 120~123쪽

1 ⑤ 2 ② 3 ② 4 ④ 5 ①

- (가)~(나)에서 사랑 때문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슬픔과 좌절,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유와 같은 감정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마)에서 현대인은 사랑하는 능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사랑을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은 에리히 프롬의 관점에서 사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현대인은 사랑의 문제를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사랑을 줄 올바른 상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본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현대인은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부자가 되거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하였다.
④ (사)에서 현대인은 멋진 상대를 만나 그에게 빠지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현대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극히 쉬운 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 (카)에서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하)에서 성숙한 사랑은 인류와 삶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모든 인류 그리고 자연과의 결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거)에서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마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125쪽

1 ○ 2 ○ 3 × 4 ○ 5 ○

제2 사진의 타이밍, 인생의 타이밍

제2 확인 문제

본책 131~135쪽

1 타이밍 2 ⑤ 3 ③ 4 ② 5 ⑤
6 별동별 7 ②

- (가)에서 필자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로 글을 시작하며,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 즉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사진 촬영에서 ‘매직 아워’가 사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사진 기자로서 타이밍이 얼마나 결정적인 요소인지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아)~(자)에서 필자는 평소와 같이 아침 9시에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다가 이미 새벽에 나가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선배들을 마주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바)에서 필자는 다른 사진 기자들의 사진과는 달리 색감이 다채롭지 않고 시각적으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사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② (사)에서 필자는 자연재해 현장에 파견되었을 때 외국 지국에서 여러 유명한 사진 기자 선배들이 오기에 많은 것을 배울 기회라고 생각했음이 드러나 있다.
④ (바)에서 필자는 앵글과 프레임이 많이 바뀌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자 노력했음이 드러나 있다.
- (타)에서 필자는 매직 아워를 놓치지 않고 이에 맞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미리 계획하고 매직 아워에 맞춰 촬영 장소에 대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 「생 라자르 역 뒤에서」에 담긴 결정적 순간의 요소는 화면의 역동성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흑백 사진에서 오는 단순함, 물웅덩이에 반사된 화면 속 기하학적인 형태, 남성과 서커스단의 포스터 속 댄서와의 대비가 있다.
- (리)에서 필자는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은 피사체와 호흡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이해하여 사진으로 도출해 기록한 순간으로, 결정적 순간은 자신이 이해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이야기 기인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 (버)에서 필자는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은 별동별처럼 잠시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쳐도 다시 셔터를 눌러 포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의 의미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것은 ‘별동별’임을 알 수 있다.
- 필자는 ‘결정적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1 × 2 ○ 3 준비, 계획 4 ○
5 ×

소단원 평가

본책 146~151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①
06 ③ 07 이 글에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08 ⑤ 09 ③ 10 ④ 11 ④ 12 좋은 빛
을 포착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13 ①
14 ① 15 ① 16 ② 17 ① 18 순간을
영원한 이미지로 만드는 속성, 완벽한 구도와 타이밍 포착으
로 도시 풍경을 기하학적으로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
다. 순간의 타이밍을 포착하여 일상적 풍경을 아름다운 예술
사진으로 바꾸는 힘을 느끼게 한다. 19 ② 20 ②

01 이 글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서술된 사랑에 대한 관
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덧붙인 글이다. 이 글
에서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
적인 활동이며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태도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랑이 집착이나 지배로 흐르기 쉬운 위험한 감정일 수 있다는
점, 현대인들이 사랑을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성숙한 사랑이란 주는 데서 충
만함을 느끼고 서로의 생명력을 북돋우는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본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능동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건강
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배우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답풀이

- ① (가)에서 연인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태도는 사랑의 위험
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② (라)에서 '사랑은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이며 '특정
한 성격'이라고 말하며, 사랑의 범위를 인류 전체로 확장하는 보편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사랑을 자기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비판
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통찰을 수용하는 태도는 이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이 글에서는 사랑에 대한 능동적인 실천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03 (다)에서 필자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기쁨을 느
끼는 활동이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상대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도 더욱 밝아지고 충만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라)
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특정한 사람에 국한된 감정이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태도이자 성격이라고 설명하
며, 사랑이 인류 전체와 자연과의 결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ㄴ과 ㄷ이 '성숙한 사랑'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ㄱ. (다)에서 '물질뿐 아니라 자신의 기쁨, 관심, 지식, 유머 등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사랑이 단지 물질적 혜택에 국한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
다. 또한 '조금이라도 잃을까 걱정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며 소유 중심의 사랑을 비판하고 있다.

ㄴ. (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
지 않은 채 결합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율성을 내려놓는
것은 성숙한 사랑과 어긋나는 태도이다.

04 (나)에서 현대인은 연인 간 사랑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보지 않고, 멋진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
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사랑'
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답풀이

- ② (나)에서 현대인은 사랑하는 것을 지극히 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 ③, ④ (나)에서 현대인은 다양한 외적 매력을 카우면서 매력적인 사람
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현대인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면 사랑은 저절로 생
겨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05 이 글에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며,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생명력을 얻게 된
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쁨, 관심, 지식, 유머 등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사랑
은 상대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도 더욱 밝아
지고 충만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를
살펴보면 '기념일에 기부하는 부모'는 아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기부는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풀이

- ② <보기>에서 부모가 기부를 실천한 이유는 '베푸는 사람'이 되려는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랑을 전하고, 아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길 바라는 마음에 더 가깝다. 또한 '자부심'은 이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나)에서 필자가 언급한 현
대인이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예일 뿐, ㉠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물질을 나누는 것을 통해 기쁨, 관심, 지식까지 함께 전달'한다는
것은 기부의 형태를 제시해 주는 것일 뿐, 사랑의 의미로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
은 (나)에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외적 조건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제시된 것일 뿐, ㉠와는 관련이 없다.

06 (가)에서는 사랑이 위험한 이유로, 많은 사랑이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소망을 강요하거나 연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태도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결국 사랑이 타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서로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좌절을 낳는 위험한 관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07 이 글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다'라며, 부자의 의미를 나눔의 태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나눔에 있다고 강조한다.

채점 기준	확인 ☑
'부자'가 '많이 가진 자'가 아님을 언급하였다.	☐
'기꺼이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등으로 설명하였다.	☐

08 이 글에서 사진 기자인 필자는 인도네시아 재해 현장에서 선배 사진 기자들의 취재 방식을 관찰하며, 자신이 사진 촬영에서 중요한 요소인 '빛의 타이밍'을 간과해 왔음을 깨닫고 그 이후 촬영 태도를 바꾸게 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사진을 찍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필자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반성을 계기로 사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09 (다)~(라)를 통해 필자가 선배 기자의 조언이 아니라 선배 기자들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진 촬영에 좋은 때가 있다고 하며, 사진 기자들은 태양 광을 조명 삼아 거리에서 촬영을 하는 일이 많으므로 빛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선배 기자들은 매직 아워에 맞춰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선배 기자들은 빛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직 아워를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필자는 보도 사진은 저널리즘의 영역과 미학적 영역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진이 강렬하고 아름다울 때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⑤ (다)~(마)를 통해 필자가 반다이체로 파견을 나가 베테랑 사진 기자들의 작업 방식을 보며 매직 아워에 대해 깨닫고 이를 활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가)에서 매직 아워는 일출과 일몰 전후의 30분에서 6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라고 하였다. 이는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일몰과 일출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일 동일한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진 촬영에는 빛의 타이밍이 중요하며,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는 빛의 시간대를 '매직 아워'라고 한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매직 아워는 '취미 사진가도 잘 알고' 있는 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에서 베테랑 사진 기자들도 매직 아워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매직 아워를 '태양이 낮은 고도에서 피사체에 역동적인 조명과 그림자를 선사하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의 시간대'라고 하였고, (가)에서는 '일출과 일몰 전후의 30분에서 6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라고 하였다.

⑤ (가)에서 필자는 매직 아워는 '뭇 짙든 멋있게 보이는 마법 같은 힘'을 갖고 있어 매직 아워라고 부르는 것임을 추측하고 있다.

11 (나)에서 필자는 이상적인 보도 사진으로 저널리즘의 영역과 사진 미학의 영역을 모두 만족시킨 사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공정하면서도 아름답게 찍은 사진이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도 사진이라 볼 수 있다.

12 (라)에서 필자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인데, 저는 좋은 빛을 포착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라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필자의 문제는 빛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평범하고 재미없는 조명으로 사진을 찍어 왔던 점이다.

채점 기준	확인 ☑
필자의 문제점을 '빛'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
필자의 문제점을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썼다.	☐

13 (다)와 (라)에서 ㉠(가장 어린 사진 기자)는 빛의 타이밍, 즉 매직 아워를 고려하지 않고 평범한 조명 아래 사진을 찍어 왔음을 반성한다. 반면, ㉡(베테랑 사진 기자)들은 일출과 일몰 무렵의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벽과 늦은 오후에 현장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과 달리 ㉡가 좋은 빛을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과 ㉡ 모두 자연재해 현장에 파견되었으므로 둘 모두 자연재해 현장의 사진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 특정 사진에 대한 사실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가 구도나 피사체의 특성을 중시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는 '보이는 대로 셔터를 눌렀다'고 표현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는 사진 기자가 되고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에 비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찍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와 ㉡ 모두 기사와 관련된 사진을 찍으려 했으며, ㉡는 빛을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기사와 관련성이 적은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설명은 이 글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다.

- 14 <보기>를 통해 모네는 같은 장소의 풍경도 시간과 빛에 따라 무한히 다채롭게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네의 관점에서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때는 특정 시간이 아닌 무한한 매 순간이며 시간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사물의 모습도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답풀이

② 모네는 자연의 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 핵심은 '야외라는 공간'이 아니라 '빛의 변화에 따른 풍경의 다채로움'이었다. 즉, 야외나 실내나 하는 장소적 제약은 모네에게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다.

③ 모네는 빛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모습들을 감각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 그 시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 즉, 모네는 빛의 감성적·미학적 특성에 주목하였을 뿐, 기술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않았다.

④ 모네는 빛의 변화로 인한 만물의 색과 형태, 즉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외양의 변화를 이야기했을 뿐, 사물의 본질이나 내면적 속성이 바뀐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⑤ 모네는 매 순간 빛이 바뀌며 풍경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농친 환경이 가장 좋았다고 여기기보다 다음 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장면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 15 이 글은 사진 작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단순한 셔터 타이밍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 필자는 글의 끝 부분에서 날마다 매직 아워가 돌아오고, '결정적 순간'을 놓치더라도 셔터를 또 누르면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16 필자는 브레송 이후 수많은 사진 작가가 셔터를 누를 타이밍을 가늠하여 결정적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 것에만 집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브레송이 말하는 '결정적 순간'은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순간적인 기회가 아니라고 하였다. 브레송에게 사진은 피사체와 호흡하고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한 세계가 하나의 장면으로 도출되었을 때 셔터를 눌러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②는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대한 필자의 인식으로 볼 수 있다.

- 17 이 글에서 필자는 브레송의 사진 철학을 바탕으로 결정적 순간은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찰나의 기회가 아니라, 세상과의 호흡 속에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도 마찬가지이며, 조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다시 찾아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답풀이

② 이 글에서는 타이밍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된다거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든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준비와 집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브레송 본인도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과정은 수수께끼 같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할 때, 인생의 타이밍 또한 예측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타이밍을 외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로 보지 않으며,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⑤ 필자는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와 호흡하며 리듬을 읽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 18 이 글에서 필자는 브레송의 사진 「생 라자르 역 뒤에서」를 순간을 영원한 이미지로 만드는 사진의 속성과 완벽한 구도,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내는 사진가의 능력이 결합된 예술 사진이라고 평가하였다.

채점 기준	확인 ☑
순간의 포착, 완벽한 구도, 기하학적 형태 등을 언급하였다.	☐
작품에서 일상적 풍경을 예술적으로 가치 있게 표현하는 힘을 느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 19 ㉠(브레송의 사진)은 피사체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여 일상적 모습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모네의 연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빛의 변화를 반복해서 관찰하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변화 양상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은 순간의 포착이라는 점, ㉡은 변화 과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답풀이

① ㉠은 일상에서 포착한 순간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므로 일상의 변화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의 변화에 따라 대상의 색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깨달음을 하나의 대상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연작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즉, ㉡은 빛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순환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촬영자와 감상자의 태도 차이에 대해서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모네가 물리적 도구를 활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붓과 물감, 캔버스 같은 물리적 도구를 사용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은 색채 변화보다 순간의 구도와 역동성에 주목한 것이고, ㉡은 빛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색과 형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 20 ㉢ '선사'는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은 '선서(宣誓)'의 의미이다.

02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의 글

본책 167~170쪽

확인하기

본책 153쪽

1 ○ 2 × 3 ○ 4 ○ 5 ○

제고 연습하는 마음

제고 확인 문제

본책 154~157쪽

1 ④ 2 ⑤ 3 ① 4 ④ 5 방해
6 ③

- (가)~(나)에서 필자가 연습을 결심한 후에 '그날 연습하고 싶은 대목을 골라 책을 펴고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계획된 분량이나 연습해야 할 대목을 미리 확인하는 태도라기보다, 그날 마음이 가는 대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에 가깝다.
- 필자는 연습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과 신체 컨디션, 특정한 부분에 재미를 느끼는 자신의 흥미,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 등을 발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과 발견 속에서 향상된 실력을 바탕으로 판소리에 대한 태도나 철학, 창작과 실험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연습의 효과로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필자가 관람한 지인의 공연에서는 관객이 휴대 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변수가 발생했을 뿐, 공연 도중 무대 장치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 필자가 느끼는 '마음속의 진땀'은 무대에서 예상치 않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에 대한 표현으로, 연습이 부족했다는 후회나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
- (하)에서 필자는 연습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보호 장치, 즉 자신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경험을 가득 쌓은 연습은 종종 튼튼한 방패가 되어 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 (너)에서 필자는 연습이 두렵고 어려운 과정임을 진솔하게 전달하면서도, 결국에는 계속 이어 가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159쪽

1 ○ 2 주춧돌 3 × 4 송구한 5 ○

소단원 평가

- 01 ② 02 ③ 03 쓸쓸함과 지루함을 견디며, 혼자서 매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04 ③ 05 자신을 추스르며 자신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시간이다.
06 ③ 07 ④ 08 ④ 09 ① 10 ③
11 힘든 일이 생겨도 연습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12 ① 13 ③ 14 ③ 15 ⑤

- 01 이 글은 연습이라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길으로는 단순한 일상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연습 전후의 감정 변화, 쓸쓸함과 망설임, 그리고 연습을 통해 얻는 깨달음들이 녹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의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며, 삶의 일부로서 연습을 대하는 태도와 내면의 성장을 섬세하게 보여 준다.

오답풀이

- ① 이 글은 연습을 하며 느끼는 쓸쓸함과 지루함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③ 이 글은 극적인 사건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의 감정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특별한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에서는 연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연습을 통해 겪는 개인의 감정과 내면적 경험에 집중하고 있다.
⑤ 이 글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독자에게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 해석하기 어렵다.
- 02 필자는 연습의 효과는 '연습 시간 동안 나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할 때 얻어진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할 때 얻을 수 있음이 가장 적절하다.
- 03 필자는 연습에 '쓸쓸함 속에서 홀로 지루함을 견디'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연습을 '쓸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연습을 혼자서 매진하는 일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홀로', '혼자서'와 같이 연습을 혼자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
'~ 때문이다.'와 같이 이유를 드러내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

- 04 필자는 연습을 하여 자신의 하청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청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필자는 낮은음을 내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럴듯한 하청을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연습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약점을 보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05 5문단에서 필자는 화가 나가나 무력감을 느낄 때 연습으로 도망을 친다고 하였다. 그것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힘든 대목을 선택해 고함처럼 눈물처럼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이자, 결국 자신을 추스르고 정리하는 고마운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자신을 추스른다”, “감정을 정리한다”, “고마운 시간” 등 글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06 필자는 연습을 통해 얻은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이 판소리의 ‘주춧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을 기반으로 판소리에 대한 태도, 철학, 창작, 실험을 하는 것을 주춧돌 위에 ‘뿌리 내리는 나무들’로 표현하였다. ㉔ ‘나무들을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 다진 기술과 신체를 바탕으로 하여 판소리의 예술성을 높이는 성장을 한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 ① ㉔은 반복적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연습을 거듭하며 약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보완 방법을 찾는다.
- ② ㉔은 반복된 연습으로 다져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면의 태도와 예술 철학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창작과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글에서 연습이 주춧돌이라면 철학과 창작은 그 위에 자라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 ④ 필자는 하청이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침마다 ㉔과 같은 연습을 1년 정도 반복하였다고 하였다.
- ⑤ ㉔은 연습하는 동안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관객을 떠올리며 물입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글에서 연습 시 옷들이 각기 다른 관객이라고 상상하며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필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07 ㉔, ㉕, ㉖는 각각 연습이 안 되는 날, 연습이 잘되는 날, 심적·정신적으로 힘들 때 연습을 사용하는 날이다. ㉔에서는 배와 목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분량을 채우고 연습을 끝낸다고 하였고, ㉕에서는 연습으로 도망쳐서 고함을 치고 우는 등 연습으로 감정을 정화한다고 하였다. ㉖에서는 연습에 탄력이 붙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연습할 때 신이 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이 글에서 ㉔의 연습은 ‘분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마무리된다고 하며, 집중도가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㉕는 몰입도 높은 연습이므로 연습이 더 효과적인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㉕는 산란한 마음으로 연습을 마지못해 하고, 분량 채우기를 목표로 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㉖는 기술 향상과 몰입이 이루어지는 날이므로, 분량 채우기만을 위한 연습은 아니다.
- ③ ㉕에서 필자는 연습으로 도망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이럴 때, 필자는 주로 가장 어려운 대목이나 힘이 많이 필요한 대목을 골라 연습한다고 하였다.

- ⑤ ㉔~㉖는 상황이나 상태별로 분류된 유형이지, 연습이 이루어진 실제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이 아니다.

- 08 이 글의 필자는 지인의 공연을 보며 그가 무대 위에서 쏟은 노력과 집중력에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긴다. 또한 관객이 휴대 전화를 떨어뜨리는 방해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지인의 모습을 보고 존경과 반가움을 느낀다. 지인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② 3문단에서 지인의 공연을 보며 경이로움, 반가움, 송구함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필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멋진 일을 하는 이를 내가 반가워해도 되나 송구한 마음도 들면서’를 통해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 ③ 지인이 관객의 방해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몰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그것이 반복적인 연습의 결과라고 말한다. 특히 1문단에서 연습의 가장 중요한 효과로 무대에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필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이 글의 4문단에서 필자는 무대 위에서 느끼는 자신의 태도나 반응이 과거의 연습량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어떤 날은 감사하고, 어떤 날은 자책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 09 이 글의 1문단에서 필자는 지인의 공연을 보면서 ‘연습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이것이다. 무대에서 내가 기죽지 않게, 진땀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무대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서기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연습의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② 연습이 ‘소리를 좀 더 낮게 만드는’ 것과 같은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필자는 연습의 가장 중요한 효과로 무대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힘을 들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연습으로 인한 창의성 발현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연습이 매일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으나, 연습의 가장 중요한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 ⑤ 이 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관객의 방해 속에서도 밀도를 유지하는 내면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관객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라고 할 수 없다.

- 10 [A]는 지인이 연습하며 마주했을 ‘치열한 시간’을 상상하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 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려면 얼마나 몸과 정신이 피곤했을까. 이야기로 얼마나 재미있게 들어가 보았을까’ 등과 같이 지인의 연습 과정을 상상하며 그 장면을 추측한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지인의 연습 과정을 추측하는 장면은 모두 필자의 상상일 뿐, 실제로 지인과의 대화가 등장하거나 그 대화를 인용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A]에는 공연 내용이나 장면의 구체적인 모습보다, 지인이 공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에 대해 추측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 ④ [A]에는 지인의 연습만 상상할 뿐,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거나 되돌아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지인의 연습 과정을 상상하고 있을 뿐, 자신의 연습 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 11 필자는 연습을 무대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마음속의 흔들림을 견디기 위한 방편로 여기며,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신체와 마음조차 받아들이는 태도로 연습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낸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미래의 자신에게 탄창을 오래 피우더라도 연습을 멈추지 말아 달라고 표현하며 이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꾸준하게 연습하겠다는 필자의 다짐을 제시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12 [A]에서 필자는 무대 위에서의 '마음속의 진땀'을 매우 힘들다고 하면서, 주로 밖에서 오는 자극으로 발생하는 마음속 진땀에 연습량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무대 위에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기도 한다', '교만했다'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며, 마음속 소음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실수나 미흡한 점에 결코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이 글에서는 '마음속의 진땀'을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동요, 즉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불안, 동요, 자책 등 다양한 감정의 반응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은 단순한 실수나 교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바깥의 자극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무대 위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앞에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연습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⑤ 관객의 반응은 필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땀'이 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 ② '교만'은 진땀이 나는 순간을 구성하는 마음속 소음 중 하나일 뿐, '진땀'이 나는 모든 상황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 ④ 이 글에서 공연이 중단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연은 계속 진행되고, 그 와중에 1초 안에 벌어지는 내면의 동요가 '진땀'으로 표현된 것이다.

- 14 안숙선 선생님의 말에서 '나이가 들면서 몸에 힘이 달리는 순간'이 온다고 했으므로, '전에 없던 다른 힘' (㉠)이 '곧이어 그것을 받쳐 줄 테니 겁먹지 마라'는 말은 몸의 힘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힘은 줄어들지만 그 대신 다른 종류의 힘(예를 들어 내면적 힘, 정신적 힘, 경험에서 오는 힘 등)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 ① '안숙선 선생님'이 어느 공연의 분장실에서 해 준 조언이라는 점과, 그 내용이 '소리를 하다 보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 판소리와 관련한 힘임을 유추할 수 있다.
- ② '소리를 하다 보면'이라는 표현은 꾸준한 판소리 연습을 전제로 하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힘이라는 점이다.
- ④ 안숙선 선생님의 말에서 몸의 힘이 줄어드는 순간 '전에 없던 다른 힘'이 생긴다고 했으므로, 실제 신체 능력과는 구분되는 힘임을 알 수 있다.
- ⑤ '받쳐 줄 테니'라는 표현은 부족해진 몸의 힘을 대신해 다른 힘이 그것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알려 준다.

- 15 ㉠은 몸의 힘이 점점 달리면서도 '전에 없던 다른 힘'이 생겨 그것을 보완해 주는 순간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 시기가 무섭고 두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 '획득'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이는 연습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몸과 마음, 기술, 욕망의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따라서 '연습을 지속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때'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글에서는 연습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고, 연습 없이 공연만 하는 상황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② 글에서는 연습 시간이 줄어들거나 실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그 순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 ③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표현은 '그 순간'에 내포된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으며, 글의 초점은 '변화'와 '획득'에 있다.
- ④ 글에서는 '탄창을 오래 피워도 좋으니 결국 다시 방에 들어가 연습하기'를 강조하며 개인적 연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연습은 언급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본책 174~181쪽

- 01 ⑤ 02 현대인은 (사랑을 가꾸기보다) 사랑에 빠질 상대를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03 ④
- 04 ⑤ 05 ① 06 ③ 07 ② 08 ⑤
- 09 ② 10 ④ 11 ⑤ 12 ② 13 ③
- 14 ① 15 ① 16 연습 시간 동안 '나'를 관찰하고 발견해야 연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 ③
- 18 ⑤ 19 ③ 20 ① 21 ④ 22 ④
- 23 필자는 빛을 고려하지 않고 평범한 시간대에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선배(베테랑) 기자들의 촬영 방식을 살펴보고, 매직 아워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며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24 ⑤ 25 ⑤

- 01 이 글은 ‘사랑’이라는 인문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그 본질과 왜곡, 성숙한 사랑의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이다. 이러한 인문 분야의 글은 필자의 가치관을 담고 있어, 이를 읽을 때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필자의 견해를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지 필자의 관점에 무조건 동의하며 수동적으로 글을 따라가는 태도는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방해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① 인문 분야의 글은 필자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며 읽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필자의 해석과 다른 관점의 글을 접하는 것은 인문 분야의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방법이다.
 ③ 인문 분야의 글은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성찰하며 읽을 때 더 깊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로 글을 읽으면 삶에 대한 글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④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다루므로, 글에 제시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필자의 가치관과 관점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 02 (나)에서는 과거 19세기나 20세기 전반에 이루어지던 결혼 방식이 20세기 후반의 결혼 방식으로 변화하며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힌다. 이 변화와 함께 사람들은 사랑을 가꾸는 것보다 사랑에 빠질 상대를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와 현재의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사랑을 가꾸기보다) 사랑에 빠질 상대를 만나는 태도를 중시한다’는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사랑에 빠질 상대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03 이 글의 필자는 프롬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와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며 독자에게 성숙한 사랑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필자는 프롬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 ① 이 글은 프롬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서술한 글로, 인터뷰 형식의 글은 아니다.
 ② 이 글에서는 주로 성숙한 사랑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미성숙한 사랑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할 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를 하지 않았다.
 ③ 이 글에서는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프롬의 견해를 다루고 있을 뿐, 동서양 문화에서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프롬 한 사람의 견해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다른 견해와 비교하거나 프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 04 (라)의 1문단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인류, 자연과의 결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답풀이

- ① (가)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랑의 왜곡된 형태, 즉 상대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사랑에 해당한다. 프롬은 상대방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존경’을 강조하며, 자기 욕망을 강요하는 사랑은 집착의 형태로 본다.
 ② (다)와 (라)에서는 사랑을 태도와 책임, 존경, 관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로 본다. 강렬한 감정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는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없다.
 ③ (다)에서 프롬은 사랑이 상대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로 본다. 이상을 일치시키려는 태도는 지배적 관계로 흐를 수 있다.
 ④ (가)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랑에 가깝다.

- 05 이 글에서는 ‘성숙한 사랑’을 ‘적극적인 관심’, ‘책임’, ‘존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랑으로 보고 있다. ①은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조용히 곁에 있어 주고, 상대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숙한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실천하고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답풀이

- ② 상대의 사생활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이는 ‘존경’이 결여된 태도이다.
 ③ 끊임없이 강조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여 준다. 이는 ‘상대의 개성을 통찰하고 그 사람이 자신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관심’인 ‘존경’이 결여된 태도이다.
 ④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맡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함께하려는 것’인 ‘책임’이 결여된 태도이다.
 ⑤ 부모가 자녀의 선택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중심으로 진로를 결정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는 ‘상대의 개성을 통찰하고 그 사람이 자신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관심’인 ‘존경’이 결여된 태도이다.

- 06 (라)의 2문단에서는 ‘사랑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통념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프롬’의 관점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롬’은 사랑이 상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랑을 ‘적극적 관심, 책임, 존경’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태도로 보며,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한편 스텐버그 역시 사랑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헌신’을 의지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랑을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감정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답풀이

- ① (다)에서 프롬은 성숙한 사랑의 세 번째 요소로 ‘존경’을 제시하며, 이는 타인의 고유한 개성과 독특성을 통찰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스텐버그의 ‘헌신’은 단기적으로는 사랑하기로 하는 결심, 장기적으로는 지속시키려는 책임과 행동이다. 따라서 사랑 유지에 있어 책임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프롬은 (다)에서 '존경이 결여되면 책임이 지배욕으로 변질된다'고 말하며, 사랑의 요소가 함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랑이 왜곡된다고 본다. 스텐버그는 세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한 사랑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⑤ (다)에 제시된 프롬의 견해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상대의 요구에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한 상태로 그의 잘못을 함께하려는 책임이 따른다. 또 <보기>의 스텐버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은 상대와의 사랑을 지속 시키려는 책임과 행동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프롬과 스텐버그 모두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성숙한 사랑의 요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07 (나)에서 과거 19세기나 20세기 전반에는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고, 연인 간의 사랑이 결혼을 결정짓기보다 부모님의 결정이 더 지배적으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19세기나 20세기 전반)에는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③ ㉢(20세기 후반)에는 연인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야 한다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이 강조되었다. 혼인 제도의 측면이 더 강조된 것은 ㉠(19세기나 20세기 전반)이다.

④ ㉣(20세기 후반)에는 부부가 될 사람들의 감정이 더 중시되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이 대두되었다. 사랑을 결혼한 사람들이 가꾸어 가는 감정으로 생각한 것은 ㉠(19세기나 20세기 전반)이다.

⑤ ㉠(19세기나 20세기 전반)에는 사랑의 유무보다 부부가 될 사람들의 부모의 결정이 더 중요시되었다.

08 이 글은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사진 속 철학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의 타이밍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브레송의 예술 사진에 담긴 철학인 '결정적 순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보도 사진과 예술 사진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최근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진 작품의 특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사진을 중심으로 철학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③ 촬영 기법의 역사적 변화나 시대적 흐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에는 필자의 여행기나 촬영 여정, 장소에 따른 경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브레송이 포착한 '결정적 순간'은 피사체와 호흡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장면이 도출되는 때에 셔터를 눌러 사진으로 기록한 순간(㉠)이다. 브레송은 이러한 결정적 순간은 우리 주변에 숨겨져 존재한다면서, 한번 놓치더라도 추후에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가)에서는 브레송이 물웅덩이를 뛰어넘는 남성의 움직임과 견고한 화면 구성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은 일상의 평범한 순

간을 뛰어난 구도와 타이밍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단순한 배경 묘사에 그치지 않고 역동성과 안정감, 그리고 사진가의 의도가 결합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사진이 도시 풍경을 일반적 형태와 질감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진의 구도와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설명하며, 일상적인 장면이지만 예술적 완성도를 갖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남성이 물웅덩이를 뛰어넘는 '물에 닿기 직전' 순간의 역동성이 눈길을 끈다고 설명하므로, 사진 속 인물이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가)에서 사진 속 남성과 포스터 속 댄서가 재미있는 대비를 이룬다고 하였으므로, 이 둘이 연출한 것처럼 어울린다는 내용도 적절하다.

⑤ (가)에서 공사장과 도시 배경은 흑백 사진 처리로 단순화되어 정리된 느낌을 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1 이 글에서 브레송(㉠)은 사진을 단순히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한 상태에서 피사체가 드러나는 특정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모네(㉢)는 같은 장소의 풍경이라도 시간, 날씨, 빛에 따라 시각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풍경은 단 하나가 아니더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는 변하는 빛과 그로 인한 대상의 다양하고 연속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브레송(㉠)은 사진의 예술성, 특히 완벽한 구도와 결정적 순간의 포착을 중시했다. (가)의 '일상의 풍경을 아름다운 예술 사진으로 바꾸는 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모네(㉢)는 빛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표현보다는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표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브레송(㉠)은 시각적으로 완성된 프레임과 피사체의 조화를 중시했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모네(㉢)도 빛을 통한 시각적 변화에 주목했을 뿐,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중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브레송(㉠)은 기하학적으로 완성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피사체에 집중하며 기다렸다가 결정적 순간에 셔터를 누른다고 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구도를 뜻하며 즉흥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모네(㉢)가 '수학적 분석하여 구도를 정했다'는 언급은 <보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브레송(㉠)은 사진이란 피사체와 호흡하고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네(㉢) 역시 빛, 날씨, 계절 등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끈질기게 관찰하고 그려 낸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세계와 분리된 독립적 사고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2 [A]는 진로를 고민하며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까 봐 고민하는 아들에게 필자가 건넨 조언이다. [A]에서 필자는 인생의 타이밍은 준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혹여 이를 놓치더라도 자책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 13 이 글은 판소리 소리꾼인 필자가 일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에세이로,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글을 쓸 때는 대중의 정서나 사회적 통념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필자의 진솔한 정서와 경험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답풀이

- ①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한 글에서는 삶에서 느낀 감정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험을 꾸미거나 포장하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필자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
- ②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한 글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장면을 선택해 내용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④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한 글에서는 개인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과 교훈은 필자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해석이나 관점을 제시한다.
- ⑤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한 글은 거창한 소재보다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경험이나 대상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한다.

- 14 이 글은 일상에서 판소리를 연습하며 느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발견되는 변화,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답풀이

- ② 비유적 표현(주춧돌과 나무 등)은 일부 쓰였지만, 이 글은 통념을 깨뜨리는 사고의 전환이나 비판보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성찰을 전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일화(집중이 안 되는 날과 잘되는 날)는 언급되지만, 이 글은 새로운 시도를 독려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과 내적 변화에 초점이 있다.
- ④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내면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할 뿐, '역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거나 역사적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공연 장면 묘사는 등장하지만, 공연 자체의 예술적 구성이나 형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공연을 통해 떠올린 연습의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15 (바)에서 필자는 몸에 힘이 달리는 순간, 즉 육체적 한계가 오는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힘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다. 특히 필자는 '판청을 오래 피워도 좋으니 결국은 다시 귀마개를 켜고 방에 들어가서 연습하기를 멈추지 말아 달라'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꾸준히 연습을 이어 가겠다는 다짐을 제시하고 있다.

○답풀이

- ②, ④ 글 전체에서 필자는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바)에서는 연습을 지속하는 태도를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바)에서 필자가 '판청을 오래 피워도 좋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그럼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을 다짐한 것일 뿐, 휴식을 우선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아니다.

- ⑤ 필자는 지속적이고 내면을 탐구하는 반복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강도 높은 훈련은 필자가 추구하는 연습의 지속성, 자기 관찰, 성찰적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 16 (가)에서 필자는 연습의 효과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자신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현재 자신의 기술이나 신체 상태, 흥미, 욕망 등을 파악해야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내적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나'를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연습의 진짜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

채점 기준	확인
'연습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였다.	☐

- 17 필자는 관객이 휴대 전화를 떨어뜨리는 돌발 상황에도 침착하게 자신의 공연을 이어 가는 지인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러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가 행했을 연습량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필자는 예측 불가능한 무대 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18 (마)에서 필자는 지인의 공연 준비 과정과 연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이를 통해 지인이 연습으로 쌓아 올린 예술적 밀도와 태도에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그가 보냈을 치열한 시간'을 떠올린 이유는, 공연자의 무대 위 태도에서 느껴지는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자세, 즉 반복된 연습을 통한 내적 단단함과 성숙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답풀이

- ① 필자는 공연자의 태도에서 자기 위로를 얻거나 실패 경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연자에 대한 존경심과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연출'이나 '창의성 분석'에 관한 서술은 없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공연의 형식이나 연출 기법이 아니라, 그 공연을 해내기 위해 반복했을 연습과 치열한 준비 과정이다.
- ③ 필자는 감정 소모에 대해 공감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 속에서도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창조적 반복의 가치를 상상하며 감탄한다.
- ④ 필자는 공연이 지루했다거나 인내심을 칭찬하고 싶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몰입을 유지하는 태도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 19 '그 순간'은 (바)에서 신체적 한계와 두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을 견디며 새로운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즉, '그 순간'을 겪은 사람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순간'을 겪은 필자는 관객의 휴대 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감정선을 유지하며 무대 위에서 집중력을 끝까지 지켜 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무대의 흐름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관객에게 개입하는 행동은 '그 순간'을 겪은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 ② 무대를 떠난다는 것은 집중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 순간'을 견뎌낸 이는 결코 무대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그 순간'을 겪은 사람은 자기 내면의 힘으로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소리를 멈춘다는 것은 무대 위 집중력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그 순간'을 겪은 사람은 이런 방해에도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강인한 내면을 갖추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0 (가)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는 사진 촬영 작업에서 빛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필자가 베테랑 기자들의 작업을 관찰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② (나)에서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다)는 필자 자신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서술한 내용으로, 허구적 인물의 시선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오히려 (나)가 선배 사진 기자들과의 경험이 장면화되어 있고, (가)는 철학적인 내용이 중심이며 구체적 장면이나 경험에 대한 묘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가)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대조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경험보다는 사랑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21 (가)에서는 성숙한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이며, 타인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도 충만하게 만드는 상호적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④는 사랑을 '우월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어, (가)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관점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사랑의 본질이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보기>의 부모는 기부를 통해 이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에서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이며, '상대방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 속 부모의 기부는 아이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
- ③ (가)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다'라고 하며 주는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부모가 그런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길 바란다는 해석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 관심, 지식 등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밝고 충만하게 만든다고 했듯이, <보기> 속 부모의 기부 행위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22 (다)에서 필자는 마음속에 진땀이 나는 순간을 대비해 연습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연습들이 꾸준히 쌓이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건디는 튼튼한 방패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다)의 필자는

(나)의 필자에게 연습으로 예측 불가능한 무대의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와 계획으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④와 같이 말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다)의 필자가 최신 장비나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 않으므로,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다)에서 필자는 마음속 대비와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다)의 필자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연습보다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다)에서 필자는 '충분한 연습'을 강조하므로, 단순히 감각에 의존하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23 필자는 처음에 '좋은 빛을 포착하는 고민'을 하지 않아 주로 해가 높게 뜬 시간대에 촬영했고, 이는 사진의 질을 낮추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베테랑 사진 기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빛이 아름답고 역동적인 매직 아워 시간대를 활용하여, 단순한 뉴스 기록이 아닌 기자의 의도와 표현을 살린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바꾸었다.

채점 기준	확인☑
㉠의 내용, ㉡의 의미와 계기를 모두 제시하였다.	☐
두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24 ㉠은 태양이 가장 평범한 빛을 비추는 시간대로, 필자가 빛을 고려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때이다. ㉡은 태양이 낮은 고도에서 역동적인 조명과 그림자를 비추는 시간대(매직 아워)이다. 그러므로 ㉠에서는 강렬함이 없는 평범한 사진이 촬영되고, ㉡에서는 역동적이고 필자가 만족하는 사진이 촬영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이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의 시간대'라고 하였고, '그날의 매직 아워가 언제인지 알아보고'에서 매일 매직 아워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은 태양이 가장 평범한 빛을 비추는 때로, 빛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 ③ 태양이 낮은 고도로 피사체를 비추는 때는 ㉡이다.
- ④ ㉠은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셔터를 눌러 사진을 촬영한 때이다. ㉡은 '매직 아워 속 빛과 색을 포착하려면 항상 계획을 세워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에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5 (다)에서는 '마음속의 진땀'(㉠)이 '주로 바깥의 자극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필자의 준비 상태나 연습량에 따라 달리 반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마음속의 진땀'(㉠)은 주로 외부 자극에 의해 시작되고, 내면의 동요는 그 반응의 방식일 뿐이다.

4 정보를 활용하다

01 과학·기술 분야의 글

★ 확인하기

본책 187쪽

1 ○ 2 × 3 ○ 4 ○ 5 ×

제1 문제 1번 우주로 떠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

제1 확인 문제

본책 188~191쪽

1 (1) 중력 (2) 구심력 2 추진력, 방향 3 ④
4 ④ 5 ③ 6 우주 순수비

- (1) (다)에서 지구를 비롯한 천체 주위를 도는 작은 물체는 중력 때문에 궤도를 따라 천체 주위를 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다)에서 자전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트랙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이용하여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우주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을 활용할 때의 이점으로는 행성의 궤도에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어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적은 연료와 비용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마)와 (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플라이바이는 공전하는 행성의 중력을 활용해 탐사선이 추가적인 속도를 얻는 방법으로, ‘중력 도움’이라고도 불린다. (아)에서 행성이 멈춰 있을 경우 탐사선의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설명하지만, (자)에서 실제로는 공전 중인 행성 덕분에 속도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④의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진다’는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플라이바이의 설명과도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차)에서 ‘모든 탐사선은 여정 초반에 플라이바이 항법을 통해 지구의 중력을 빌려 속도를 올리고 방향을 잡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답 풀이

- (1) (차)에서는 플라이바이 항법을 통해 탐사 초반에 지구와 거의 비슷한 궤도 위를 움직인다고 하였고, 이후에는 더 큰 타원 궤도를 그리며 화성 궤도까지 진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원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수직으로 나아가는지는 알 수 없다.
- (2) (차)에서 탐사선의 여정 초반에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한 플라이바이 항법을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⑤ (차)에서 플라이바이 항법을 하면 행성의 중력권 안에서 도움을 받아 탐사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어, 지구와 다른 행성 사이를 천천히 지나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파)를 통해 이 글의 필자가 우주 탐사선을 ‘인류의 탐험 정신과 태양계 행성들이 함께 만들어 낸 인류 지평의 증거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파)에서 필자는 플라이바이 항법으로 우주 공간을 탐사할 수 있게 된 우주 탐사선의 가치를 과거 삼국 시대 왕들이 영토 확장의 증거로 남긴 순수비에 비유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다.

★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193쪽

1 × 2 ○ 3 × 4 × 5 확장

제2 문제 워드투백, 언어를 숫자로 바꾸다

제2 확인 문제

본책 198~202쪽

1 ④ 2 ④ 3 ④ 4 ④ 5 ⑤
6 크기, 기준 7 ② 8 코사인 거리
9 ④

- (가)에서 챗봇은 ‘예금 금리’와 ‘저축 이자’와 같이, 단어의 글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사성을 이해하고 문장 유사도를 판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챗봇이 글자의 모양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판별한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 (라)에서 단어의 의미를 좌표로 표현하면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할 수 있으며,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마)에서 워드투백이 신경망 구조를 채택했으나, 이것이 딥 러닝보다 매우 얇은 구조에 불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자)에서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유클리드 거리와 벡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벡터 공간의 형태로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아)를 통해 벡터 공간에서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이 가까울수록 단어 간 유사도가 높다고 판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 공간의 크기의 영향을 받아 거리의 멀고 가까움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 필자는 (차)~(카)를 통해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할 때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할 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코사인 거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단어의 위계를 판별하는 방식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8 (파)에서는 코사인 거리를 비교하여 문장 간 유사도를 판별하는 예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챗봇이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경우, 에프에이큐(EAQ) 중에 코사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질문을 찾아 답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 (하)에서 필자는 챗봇이 검색 엔진과 같이 오늘날 개인과 기업에게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뿐, 기술력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204쪽

1 × 2 × 3 자동 4 ○ 5 코사인

소단원 평가

본책 212~217쪽

01 ④ 02 ⑤ 03 ⑤ 04 지구를 따라 돌면서 조금씩 속도를 높인다. 05 ⑤ 06 ③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문장을 벡터로 표현한 뒤, 벡터 공간에서 해당 문장과 각도가 가장 작은(코사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문장을 유사한 문장으로 판별한다.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④ 18 ③ 19 ① 20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을 빌려 속도를 올리고 방향을 전환하는데,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은 크기와 중력이 커 '일반 환승역'으로, 소행성은 크기와 중력이 작아 '작은 간이역'으로 표현한 것이다.
21 ④ 22 ④

01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글에 담긴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ㄱ), 다양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며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읽어야 한다(ㄴ). 또한 글에 담긴 정보나 지식이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정보의 출처가 분명한지 판단해야 한다(ㄷ). 쟁점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논리적인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 것(ㄹ)은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02 (마)에서는 멈춰 있는 행성의 중력 웅덩이에 들어갈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빨라지지만 다시 빠져 나올 때는 느려지면서 탐사선의 원래 속도로 돌아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궤도를 따라 돌지 않는 행성 주위에서는 탐사선이 추가 속도를 얻을 수는 없다.

03 이 글에서 설명하는 플라이바이 방법은 탐사선이 중력을 이용해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으로, 목적지에 머무르기 위한 기술이 라기보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자전거 경기장의 트랙을 비유로 들어, 탐사선이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독자가 복잡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② 플라이바이 방법, 구심력, 중력 웅덩이 등 다양한 과학 개념을 활용하여 탐사선이 속도와 방향을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③ (나)에서 중력 구심력의 작용 방향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④ (가)에서 탐사선에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자전거 경기장에서 트랙을 도는 선수들에게 작용하는 구심력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이다.

04 (나)에서는 자전거 트랙의 경사를 수직으로 오르는 것보다, 트랙을 돌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유를 통해 탐사선이 지구를 벗어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지구를 돌며', '속도를 높여' 등의 표현을 제시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5 (다)에서 우주 탐사에서 연료와 예산이 부족할 경우,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이용하며, 작은 방향 전환도 큰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료와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이리저리 마음껏 방향을 바꾸며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⑤의 내용이 적절하다.

06 (가)에서 필자는 자전거 경기장의 트랙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선수가 트랙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구심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트랙의 경사와 마찰력이 결합해 선수를 중심 쪽으로 끌어 주기 때문이며, 이 힘 덕분에 선수는 빠른 속도로 트랙을 돌 수 있다.

07 (나)에서 중력을 거슬러 수직으로 날아가게 되면 아주 많은 연료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탐사선이 지구를 맴돌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연료를 절약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8 이 글은 챗봇이 고객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 적용된 기술인 워드투벡과, 벡터로 표현한 단어나 문장 간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와 (다), (바)에서 단어나 문장 간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09 (라)에서 각도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도 값이 일정하며,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항상 동일한 값으로 측정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워드투벡은 2013년 한 웹 검색 엔진 서비스 회사가 개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에서 코사인 거리는 1-코사인 유사도의 값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면 유클리드

거리도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유클리드 거리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인 코사인 거리를 설명하고 있다.

- 10 (다)에서 워드투벡으로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면 컴퓨터의 엄청난 계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고(㉓) 하였고, (가)에서 워드투벡이 단어의 의미를 숫자로 정교하게 표현한다고(㉔) 하였으며, (나)에서 워드투벡이 수많은 문장에서 단어들의 쓰임이 어떠한지 학습함으로써 단어들의 관계를 모델링한다고(㉕) 설명하였다.

○답풀이

㉓ (나)에서 워드투벡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가까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1 (다)에서 필자는 ‘남자’와 ‘여자’, ‘왕’과 ‘여왕’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워드투벡으로 단어 간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12 (바)에 따르면 문장을 벡터로 적절히 표현해 낸 뒤, 벡터 공간에서 해당 문장과 형성하는 각도가 가장 작은, 즉 코사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문장을 이와 유사한 문장으로 판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벡터 공간에서 각도(코사인 거리)를 기준으로 문장 간 유사도를 판별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13 (바)에서 벡터 공간에서 한 단어와 각도가 작은, 즉 코사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유사한 단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14 이 글에서 필자는 벡터로 표현해 낸 단어 간의 각도가 작을수록 즉 코사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단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제시된 그래프에서 ‘호박’과 ‘태양’이 형성하는 각도는 ‘호박’과 ‘캐러멜’이 형성하는 각도보다 작으므로, 앞의 두 단어 사이의 코사인 거리가 뒤의 두 단어 사이의 코사인 거리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호박’은 ‘캐러멜’보다 ‘태양’과 형성하는 각도가 더 작으므로, ‘태양’과 의미가 더 유사하다.

② (라)에서 코사인 거리는 벡터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측정된다고 하였다.

③ 이 글에서는 벡터로 표현한 단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어의 글자 수로 단어 간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바)를 통해 서로 일치하는 글자가 전혀 없더라도 단어 간 의미의 유사성을 판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가), (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 다양한 과학·기술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제시한 설명이 과학적·기술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글을 쓸 때는 작문 맥락과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전개 방식과 보조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주로 주장하는 글에서 쓰인다.

- 16 (가)에서는 탐사선이 행성이나 소행성 궤를 스쳐 지나가면서 플라이바이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로제타 탐사선은 혜성에 최종 착륙한 탐사선으로 플라이바이 항법을 통해 탐사 경로를 수정했다. 따라서 탐사 중간에 다른 행성의 표면에 착륙한 후 경로를 조정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 17 (가)에서는 ‘로제타 탐사선’이 총 6회의 플라이바이를 거쳐 인류 최초로 행성이 아닌 혜성 표면 위에 착륙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플라이바이 항법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 18 (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필자가 우주 탐사선을 인류의 탐험 정신과 인류의 지평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며, 탐사선이 플라이바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우주를 여행한다는 점에서 태양계 행성 또한 우주 탐사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가)의 필자가 우주 탐사선을 과거 삼국 시대 왕들이 영토 확장의 증거로 남긴 순수비에 비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우주 탐사를 세계 각국의 영토 경쟁의 연장선이 아니라 인류 지평의 증거물로 본 것이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우주를 탐사할 때 인류보다 로봇 탐사선이 항상 우주를 먼저 방문한다는 점을 들어 로봇 탐사선을 ‘인류의 선배’라고 표현하였으나, 인간보다 로봇 탐사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④ (가)의 필자는 인류의 탐험 정신을 보여 주는 증거물로서 우주 탐사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을 찾는 것을 우주 탐사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아폴로 11호 우주인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디기까지 수많은 로봇 탐사선의 실패와 성공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아폴로 11호가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탐사선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19 (가)의 1, 2문단에 따르면 ‘로제타 탐사선’은 지구와 화성, 소행성인 스테인스와 루테티아의 근처에서 플라이바이를 하였다. 이를 통해 탐사선이 항로에 있는 다양한 천체를 활용하여 플라이바이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 (가)에서는 로제타 탐사선이 지구와 거의 비슷한 궤도 위를 움직이다가 화성의 궤도에 진입할 때는 더 큰 타원 궤도를 그렸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구와 화성처럼 질량이 큰 행성은 강한 중력을 바탕으로 플라이바이 항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요 환승지인 ‘일반 환승역’으로, 이에 반해 소행성은 질량이 작아 중력이 약하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보조적인 환승지인 ‘간이역’에 빔대어 표현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일반 환승역’과 ‘간이역’ 비유를 활용하여 중력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

- 21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필자는 챗봇이 오늘날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22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챗봇은 벡터 공간에서 에프에이큐(FAQ) 중 고객의 질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질문을 찾는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단순히 단어 일치 여부만으로 유사한 질문을 찾지 않는다. (나)에서는 의미적 유사도를 바탕으로 질문을 판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고객의 질문과 코사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질문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 ③ 고객의 질문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장을 찾아야 한다.
- ⑤ 챗봇은 단어의 순서보다는 의미를 통해 유사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단어 순서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2 정보 전달하는 글 쓰기

*** 확인하기**

본책 219쪽

1 ○ 2 ○ 3 ○ 4 × 5 ○

*** 활동 1 확인 문제**

본책 222쪽

1 (1) ○ (2) ○ 2 목적, 매체

- 1 (1) 뉴 미디어 매체의 경우, 정보의 신속성은 높지만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한지,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인지 등의 신뢰성을 파악해야 한다.
- (2) 정보가 오래되면 현재 상황과 맞지 않거나 정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선별할 때는 언제 생산된 자료인지, 지금 활용 가능한 정보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2 글쓰기에서 작문 맥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글을 실을 매체이다.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고, 매체에 따라 표현 방식이나 분량, 구조 등이 달라지므로 작문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활동 2 확인 문제**

본책 224쪽

1 (1) × (2) ○ 2 나열

- 1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는 정보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 표와 같은 다양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구성된다. ‘처음’에서는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고, ‘가운데’에서는 중심 내용을 설명하며, ‘끝’에서는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글의 개요를 구성한다.
- 2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식물, 곤충, 조류, 해조류, 어류 등은 서로 대등한 항목들이며, 원인-결과의 관계 없이 단순히 나열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관련된 정보를 열거하는 방식은 나열 구조에 해당한다.

*** 활동 3 확인 문제**

본책 227쪽

1 (1) ○ (2) ○ (3) × 2 ㉠ → ㉡ → ㉢ → ㉣ → ㉤

- 1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책,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 작문 맥락에 따라 적절한 내용 조직 방식(나열 구조, 순서 구조, 원인-결과 구조 등)을 선택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독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은 설득하는 글이나 정서 표현이나 자기 성찰의 글에 적절하며, 정보 전달에는 적절하지 않다.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전에 주제를 선정하고 작문 맥락을 분석(㉠)한 후,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한다(㉡), 이어 내용을 구조화하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실제로 글을 쓴다(㉣). 마지막으로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면서(㉤) 작문 맥락에 맞는 글을 썼는지 확인한다.

소단원 평가

본책 229~230쪽

01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02 ②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②

- 01 (가)의 일기에서 학생은 친구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글을 쓰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글을 (나)의 개요에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가운데’에서는 독도의 생태계 변화 원인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끝’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및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확인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글을 쓴 학생의 의도를 제시하였다.	☐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수립하자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

- 02 (가), (나)를 바탕으로 글을 쓸 때의 주제는 ‘독도의 생태계 변화’, 목적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이며, 예상 독자는 학급 친구들, 매체는 누리 소통망이다. ②는 인류 전반에 대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다루려는 내용으로, 글의 주제나 예상 독자 수준과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다.

○답풀이

- ① (가)에서 학생은 ‘친구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독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말하며, 글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③ (가)에서 학생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다.’라며, 글을 통해 친구들에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④ (가)에 드러난 예상 독자가 ‘우리 반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상 독자의 관심과 배경지식 수준에 맞춘 자료 수집은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⑤ (가)에 드러난 글의 매체가 누리 소통망(SNS)이므로 시각 자료 활용은 독자의 이해와 흥미를 도울 수 있다.

- 03 제시된 자료는 고등학교의 블로그 글로, 출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며, 일부 표현에는 주관적 의견이나 단정적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생의 작문 목적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은 출처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풀이

- ① 제시된 자료는 고등학교생이 작성한 글이며, 대상 독자도 학급 친구들이므로 독자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시된 자료는 해조류와 해양 생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독도의 생태계 구성 요소와 관련된 정보로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
 ③ 제시된 자료의 작성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
 ⑤ 제시된 자료에 일부 단정적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실 정보 중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주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 04 (나)의 ‘가운데’ 부분에서 원인-결과 구조를 사용하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원인-결과 구조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05 ㉔은 인쇄 매체 자료로,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에 제시된 글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성이 낮고 (나)에 드러난 내용과도 맞지 않아 학생이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①, ② ㉔은 인쇄 매체 자료로, 독도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독도의 생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절하다. 또한 자료의 출처가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자료의 내용을 신뢰할 만하여 학생이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③, ④ ㉔은 뉴 미디어 매체 자료로, 자료의 출처가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므로 자료의 내용을 신뢰할 만하며 그래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객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 06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 표현을 강화하는 방향은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에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거나 관련된 사실, 자료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답풀이

- ①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 전달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② 모호한 표현인 ‘꽤 뜨거워졌다고 한다’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③ ‘하지만’이 앞뒤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
 ④ 갯녹음 현상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자료를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적절하다.

- 07 원인-결과 구조는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두 사건이나 현상이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동시적 전개는 시간상의 공존을 나타낼 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인-결과 구조로 조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본책 234~241쪽

- 01 ③ 02 ① 03 자전거 경기장의 트랙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선수가 트랙의 구심력을 이용해 트랙을 빠르게 돌 수 있듯, 천체도 중력을 행사하여 주변의 작은 물체가 천체의 주위를 맴돌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②
- 09 ② 10 ⑤ 11 ④ 12 ③ 13 ⑤
- 14 ② 15 ① 16 ㉔: 남자, ㉔: 여자, ㉔: 수도
- 17 ④ 18 ④ 19 ④ 20 ‘예금’과 ‘저축’, 그리고 ‘금리’와 ‘이자’는 각각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예금 금리’와 ‘저축 이자’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21 ③ 22 ⑤ 23 ②
- 24 ① 25 ① 26 ③ 27 나열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면, 독자가 독도의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8 ⑤

01 이 글은 외부 자료나 통계, 실험 결과 등을 활용한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자전거 트랙이나 개미지옥에 과학적 원리를 비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답풀이

- ① (다)에서 '자전거가 안쪽을 향해 기울어진 트랙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과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자전거 경기장 트랙의 구심력을 우주의 중력 웅덩이에 비유하는 등, 복잡한 과학 개념을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많은 사람이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이동하려면 목적지까지 일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통해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라)와 (마)에서 플라이바이 항법을 통해 연료를 절약하고 방향 전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실제적 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02 이 글에 탐사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이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답풀이

- ② (나)의 '지구를 비롯한 천체도 중력을 행사하여 주변의 작은 물체가 천체 주위를 맴돌게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라)의 '모든 방향 전환에는 연료가 필요하고, 가스를 내뿜는 방향과 세기를 조금만 잘못 계산해도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중력을 거슬러 수직으로 지구를 벗어나려면 아주 많은 연료와 비용이 필요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라)의 '탐사선은 행성에 끌려갔다가 다시 그 중력권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로가 틀어지는데, 이를 통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나)에서 필자는 자전거 경기장 트랙의 기울기가 선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천체가 중력을 행사해 주변 물체를 천체 주위로 끌어당기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자전거 경기장 트랙이 구심력의 작용으로 선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조임을 제시하였다.	☐
천체의 중력이 주변 물체를 끌어당기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

04 ㉠은 천체가 주변 시공간을 움푹하게 만들어 중력장을 형성하는 현상을 뜻한다. (나)에 따르면, ㉠으로 인해 천체 주변의 작은 물체들은 천체 주위를 돌게 된다. 따라서 ⑤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 ① 이 글에 마찰력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은 '공간'이라기보다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안정적으로 위치한다는 내용도 맞지 않다.
- ③ 중력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밖으로 떠민다'는 표현은 중력의 본질과는 정반대의 설명이다.

④ ㉠은 시공간의 왜곡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중력으로 인한 시공간 왜곡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05 ㉠은 탐사선이 목적지에 가는 도중 다른 천체 곁을 지나며 그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얻거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을 '환승'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06 (마)에서는 ㉡을 탐사선이 다른 천체 곁을 지나가면서 그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얻고 방향을 바꾸는 항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방법은 연료를 쓰지 않고도 우주에서 방향 전환과 가속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반면, 탐사선이 수직으로 지구를 벗어나는 것은 (다)에서 설명된 것처럼 아주 많은 연료와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플라이바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① (마)에서 탐사선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다른 행성이나 소행성 등의 중력을 빌려 속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③ (마)에서 '엔진을 쓰지 않고도 공짜로...'라는 표현을 통해 플라이바이가 연료를 절약하는 항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에서 탐사선이 행성을 스쳐 지나갈 때의 이점을 말해 주었고, (마)에서 이러한 방법을 ㉡이라고 말하며 플라이바이 항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에서 플라이바이에 대해 천체 곁을 지나가면서 그 중력을 빌려 탐사선의 방향을 꺾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07 이 글은 과학적 원리인 '플라이바이 항법'을 중심으로 탐사선의 여정과 그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는 과학적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원리나 설명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필자의 추론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 논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 것은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때 좀 더 적절하다.

08 (마)에서 '우주의 그 어느 곳이라도 인류가 직접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항상 로봇 탐사선이 먼저 방문한다.'라며 로봇 탐사선이 탐험의 시작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답풀이

- ① (나)의 '그래서 플라이바이를 다른 말로 '중력 도움'이라고도 부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탐사선은 플라이바이를 통해 행성이 움직이는 만큼의 속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다)의 '속도를 얻은 탐사선은 더 큰 타원 궤도를 그리며', '방향을 틀고 속도를 올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인류의 모든 탐사선은 지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탐사선은 여정 초반에 플라이바이 항법을 통해 지구의 중력을 빌려 속도를 올리고 방향을 잡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라)의 '소행성도 플라이바이 환승역으로 이용했다.', '소행성은 작은 간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09 (다), (라)를 보면 로제타 탐사선은 지구를 출발한 이후 중력 도움을 얻기 위해 지구 궤도에 여러 차례 접근(플라이바이)했을

뿐, 지구 궤도에 장기간 머문 적은 없다. 특히 (다)에서는 ‘2004년 3월 지구를 떠나’, ‘2005년 3월 다시 지구 가까이 접근해 첫 번째 지구 플라이바이를 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지구 궤를 지나며 플라이바이를 반복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탐사선은 계속 궤도를 바꾸며 이동 중이었고, 지구 궤도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에서 ‘중력 웅덩이 자체가 행성과 함께 움직이므로, 그 웅덩이로 굴러 들어갔다가 나온 탐사선도 그만큼의 속도를 더 얻게 되는 것이다.’라며 플라이바이로 탐사선이 추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답풀이

①, ②, ④ (가)에서 탐사선이 플라이바이로 추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행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행성의 궤도와 탐사선의 궤도, 행성의 크기와 중력 웅덩이의 크기, 행성의 공전 속도와 탐사선의 속도를 비교하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 행성이 멈춰 있을 때는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추가 속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반대로 행성이 공전할 때는 행성의 중력 웅덩이가 행성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였으므로 탐사선은 행성이 공전할 때만 플라이바이를 하여 추가 속도를 얻을 수 있고, 행성이 멈춰 있을 때 행성의 중력 웅덩이의 힘이 커지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 11 이 글에서는 우주 탐사의 결과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기보다 플라이바이로 인해 인류의 우주 탐사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④에서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2 이 글은 컴퓨터가 문장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워드투벡(Word2Vec)이라는 기술을 그래프와 같은 보조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답풀이

① 이 글은 기술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술(워드투벡)을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에 2013년에 워드투벡이 등장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발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서술하지는 않고 있다.
④ 이 글은 워드투벡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이 글에 워드투벡에 대한 여러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3 이 글은 챗봇이 문장 유사도를 판단하는 원리와, 그 핵심 기술인 워드투벡(Word2Vec)의 개념과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워드투벡이라는 이름의 의미, 문장에서 단어의 특징을 자동으로 찾는 방법,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사용한 신경망 구조 등은 모두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이다. 그러나 워드투벡이 판별하지 못한 유사도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14 제시된 그림은 단어의 특징을 벡터 공간 상에서 좌표로 표현하여 단어 간의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에서는

단맛, 크기, 모양이라는 임의의 세 가지 특징 축을 설정해 ‘호박’, ‘태양’, ‘캐러멜’의 상대적 위치를 3차원 공간상에 표시했을 뿐, 이 단어들을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답풀이

① (다)에서 단맛, 크기, 모양이라는 특징별 값을 설정하여 단어를 벡터 좌표로 수치화하였다.
③ 제시된 그림에서는 ‘단맛’, ‘크기’, ‘모양’이라는 세 축(특징)을 기준으로 각 단어를 3차원 벡터 공간에 위치시켰다.
④ (다)에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임의로 정하고 그 값 또한 임의로 지정했습니다.’라고 하였다.
⑤ 제시된 그림과 (다)의 내용에 따르면, 단어 간 유사도는 공간상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호박’과 ‘태양’은 가까이 위치해 있으므로 유사도가 높고, ‘호박’과 ‘캐러멜’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유사도가 낮다는 것이다.

- 15 ㉠은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여 컴퓨터가 단어 간 의미 관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직관적 이미지’로 변환한다는 설명은 해당 기술의 목적이나 작동 방식과 맞지 않으며, 이 글에서도 그러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답풀이

② (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학습하여 컴퓨터가 이 값을 자동으로 찾도록 하죠.’라고 하였다.
③ (마)에서 ‘수많은 문장에서 자동 학습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매우 정교하게 숫자로 표현해 냈습니다.’라고 하였다.
④ (마)에서 ‘왕-남자+여자=여왕’처럼 벡터 연산을 통해 벡터(단어)의 위치값을 바탕으로 단어 간 관계에 대한 정의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호박은 태양과 더 가까이에 있으니, 호박은 캐러멜보다는 태양과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16 (마)에서 ‘왕-㉠+㉡=여왕’이라는 예시를 통해, ‘왕’에서 남자(㉠)의 의미를 빼고 여자(㉡)의 의미를 더하면 여왕이 된다는 방식으로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런던-영국+대한민국=서울’이라는 연산을 제시하는데, 이는 런던에서 영국을 뺀 값이 ‘수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대한민국을 더할 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되는 것이다.

- 17 이 글은 벡터 공간에서 단어의 유사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거리 개념인 유클리드 거리와 코사인 거리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글에서 에프에이큐(FAQ) 방식과 다른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다), (라)에서 코사인 거리와 코사인 유사도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줄자로 거리를 재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질 경우 유클리드 거리가 달라져 거리 측정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유클리드 거리 개념에 '서로 크기가 다른 벡터 공간에서도 동일한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을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한 뒤, (다)에서 코사인 거리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8 (나)에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면 유클리드 거리도 달라집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벡터 공간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에서 각도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유사도 값은 작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라)에서 코사인 거리는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뺀 값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유클리드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로 표현하며, 이 거리가 짧을수록 두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9 (마)와 (바), <보기> 내용을 종합하면, 챗봇은 에프에이큐(FAQ)를 미리 준비하여 자동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질문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벡터 공간에서 찾아 유사한 문장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바)에서 '체크 카드 한도가 궁금합니다.'라는 문장을 입력했을 때 '체크 카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에프에이큐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므로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문의 문장 구조가 달라도 두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챗봇이 에프에이큐에 미리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활용하여 자동 응답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답변 속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마)에서 벡터 공간에서의 거리(코사인 거리)를 이용해 문장 간 유사도를 판단하므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문장을 유사한 문장으로 찾아낼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바)의 예시와 <보기>를 통해, 유사 질문을 찾고 답변하는 자동화된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 거리 측정을 단어 수준에서 문장 전체로 확장해 유사도를 평가하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20 (마)에서 코사인 거리를 활용해 벡터 공간에서 거리가 가까운 단어일수록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금 금리'와 '저축 이자'는 겉보기에는 글자가 전혀 겹치지 않지만, '예금'과 '저축', 그리고 '금리'와 '이자'는 서로 각각 의미적으로 유사하기에 '예금 금리'와 '저축 이자'의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한 후 벡터 공간상 가까운 위치로 표현하여 두 단어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채점 기준	확인☑
벡터 공간에서 의미가 유사한 단어끼리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1 (나)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가까운 단어 간의 유사도를 높게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 클수록 단어 간 유사도는 낮아지지만, (라)에서 각도가 클수록 코사인 거리도 멀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이 작을수록 단어 간 유사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로 설명하고 있다.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의 거리 차이를 의미하며, 벡터의 각도를 통해 단어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코사인 거리에 해당한다.

② (다)에서는 코사인 거리를 어떤 벡터 공간에서도 두 점의 각도를 이용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코사인 거리는 각도의 코사인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④ (가)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 간의 직선거리로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나, (다)~(라)에서 코사인 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각도 값을 이용해 단어 간 유사도를 판별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면 유클리드 거리도 달라진다.'라며 유클리드 거리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 공간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다)에서는 코사인 거리는 공간의 크기와 무관하다고 설명하므로, 둘 다 일정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2 <보기>에서는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대상을 수상한 후에도 '부정행위' 논란과 함께 예술계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논쟁은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창작물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으로 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술계도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파악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④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에 대한 찬반 논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에 대한 찬반 논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3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주로 사실과 객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설득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주로 주장하는 글에서 적절하다.

24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명확하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함축적인 어휘는 의미가 모호하거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5 백과사전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 매체 자료이므로, 주관적 정보를 포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② 방송 매체의 특성인 영상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③ 뉴 미디어 매체인 인터넷 신문에서 ‘국립 공원 공단’이라는 신뢰 가능한 기관의 인터뷰를 인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과거 문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일 뿐, 작성하려는 글의 목적인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알리기’나 주제인 ‘독도의 생태계 변화’와는 관련성이 낮아 글의 목적과 주제 전달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⑤의 설명도 적절하다.

- 26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답풀이

- 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여야 신뢰할 수 있다.
 ② 계획한 작문 맥락에 맞는 정보를 선택해야 글의 흐름이 일관적이고, 글을 쓰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④ 너무 오래되었거나 효용성이 떨어진 정보는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정보의 생산 시기와 효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⑤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정보여야 독자가 글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 27 ㉠는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을 육상과 해양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식물, 곤충, 조류, 해조류, 어류 등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여러 정보를 늘어놓는 나열 구조로 조직하면 정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독자가 복잡한 생물의 종류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독도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 생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데 적절하다.

채점 기준	확인
㉠에 사용하기 적절한 내용 조직 방법의 명칭을 제시하였다.	☐
나열 구조를 사용하면 독자가 체계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 28 개요를 보면, ‘처음’에는 독도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를 소개하고, ‘가운데’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독도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 따라서 ‘끝’(㉡)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향이나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글의 흐름을 마무리할 수 있다. ㉡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글의 주제와 목적에 가장 적절하다.

5 사회를 바라보다

01 사회·문화 분야의 글

★ 확인하기

본책 247쪽

1 ○ 2 ○ 3 × 4 ○ 5 ○

제재 1 무엇이 내 삶의 정치일까

제재 확인 문제

본책 248~251쪽

1 ⑤ 2 ② 3 차별성 4 ③ 5 ③

- 1 (다)에서 모든 사람이 ‘쓰레기 종량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쓰레기 종량제’가 꼭 지켜야 하는 공적인 사항으로 결정되어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에 찬성하든 아니든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 2 (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하며, 폴리스(정치 공동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초인 혹은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도 정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자)에서 필자는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이 정치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차별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 하였다.
- 4 이 글의 ‘끝’ 부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정하는 일, 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갈 장소를 정하는 일 등을 넓은 의미의 정치의 예로 제시하고 있고, 또 더 작은 단위인 학급에서도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답풀이

- ①, ⑤ (파)에서 필자는 정치가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가 그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파)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혹은 정부의 행위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④ (하)에서 학교보다 더 작은 단위인 학급에서도 정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며, 학급에서 체육 대회 때 입을 반 티셔츠의 색이나 문구를 정하는 일 등을 넓은 의미의 정치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5 (파), (하)에서 필자는 ‘정치’에 대해 국가 차원의 행위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으로 말하고 있다. ①, ②, ④, ⑤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결정으로 필자가 말하는 정치에 해당하지만, ③은 개인 간의 사적인 선택으로 필자가 말하는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253쪽

1 × 2 폴리스 3 ○ 4 × 5 좁은

제2 문화를 담은 건축물

제2 확인 문제

본책 260~263쪽

1 기술력, 재력 2 ① 3 ⑤ 4 사회성
5 ④ 6 ② 7 ④

1 (나)에서 필자는 첨단 제품이 넘쳐 나는 오늘날과 달리 근대 이전에는 건축물이 그 나라의 기술력과 재력의 상징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건축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하였다.

2 (라)에서 ㉠ ‘한자’는 글자의 상대적 위치와 길이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은 ㉡이다.
③ 글자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것은 ㉠의 특징이다.
④ 글자의 상대적 위치와 길이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이다.
⑤ ㉠과 ㉡은 글자의 생성 방식과 확장되는 방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글자 특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바)에 따르면 서양의 건축물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동양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되어 좌우가 비대칭을 이룬다고 하였다.

4 (사)에서 개미와 벌은 여왕을 중심으로 일하는 계층이 있으며, 조직적인 사회성을 띠는다고 하였다.

5 (아)에서 개미집이 복잡한 미로 같은 형태를 띠며 골목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는 벌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6 (카)에서는 동양의 건축이 ‘땅과 연결된 개미집처럼 관계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동양 건축이 유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어 개별 건물의 독립성보다 건물과 주변 환경,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의 건축을 ‘개미집’에 비유한 이유는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이루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7 (카)에서 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원칙을 중시하였고, 땅에 기초를 두지 않는 문화적 특징에 따라 기하학적인 건축이 발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265쪽

1 단면 2 하나의 3 × 4 ○ 5 관계

소단원 평가

본책 274~279쪽

01 ⑤ 02 ① 03 ⑤ 04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크기 때문이다. 05 ③ 06 ④ 07 ③ 08 ③
09 학교에서 체험 학습 장소를 정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로 볼 수 있다.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그 나라의 기술력과 재력을 상징하였다. 15 ③
16 ② 17 ③ 18 ④

01 이 글은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국가 중심의 국가 현상설과 사회 집단 중심의 집단 현상설)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다. 두 관점을 비교하면서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반박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독자가 정치의 개념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나 정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특정 학자의 견해를 반박하거나 논박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각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② 통시적 서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글은 정치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통시적인 여러 관점을 소개하고 있을 뿐, 정치 개념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라는 사례를 들긴 하지만, 그것은 통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예일 뿐이다. 정치의 개념 자체에 대한 통념을 사례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는 정치에 대한 두 가지 관점(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를 ‘문제 해결’이나 ‘문제의 핵심’을 밝히기 위한 논점 전개로 다루지는 않는다. 즉, 상반된 개념의 대비나 갈등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려는 목적보다는, 각 관점을 균형 있게 설명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02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폴리스, 즉 정치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본성을 지녔으며, 이러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폴리스 내의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답풀이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인이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만이 폴리스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ㄹ.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폴리스 내의 타인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할 뿐, 특정 나이가 되면 폴리스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 03 (다)의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의 활동으로 한정함으로써 정치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가가 생기기 전의 정치나 국가의 모든 활동이 정치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다. (라)의 집단 현상설은 정치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상호 작용과 권력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아, 집단 내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과정으로 정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에는 ‘정치 공동체를 다양한 집단 전체로 확장함’, ㉡에는 ‘국가의 모든 활동을 정치로 여기기 어려움’이 들어가는 ㉤가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① 집단 현상설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은 ‘시민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상호 작용 속에서 정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 현상설의 한계는 국가의 권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국가의 영역으로만 한정해 정치 현상을 지나치게 좁게 바라본다는 데 있다.

② 집단 현상설은 시민 간의 상호 작용을 ‘장려’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집단 내 권력관계와 갈등 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또한 국가 현상설의 문제는 국가 외 집단과의 권력 분배가 아니라, 정치 현상을 국가에만 국한시켜 다른 사회 집단의 정치성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③ 집단 현상설은 정치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일어난다고 보므로 정치 현상을 폭넓게 본다고 할 수 있고, 국가 현상설이 ‘국가 외 집단에서의 정치 현상을 외면한다’는 표현은 (라)에 직접 제시되지 않은 과도한 해석이다. (라)에서는 단지 국가 현상설이 정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다고 지적했을 뿐, 외면이나 배제의 태도를 단정하지 않았다.

④ 집단 현상설은 정치 현상을 유동적으로 정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현상설의 한계 또한 국가 이전의 정치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정치가 국가 외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언급된다. 따라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04 (가)의 1문단에서 정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대중 매체의 첫머리를 정치 기사가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확인 ☑
정치와 다른 분야를 비교하여 [A]의 이유를 서술하였다.	☐
제시된 문장 형태로 서술하였다.	☐

- 05 (가)에서 제시된 ㉠ ‘쓰레기 종량제’는 정부가 법과 제도로 정해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반면 ㉡은 개인이 만든 홍보 포스터를 학급 게시판에 붙인 자발적인 행위로,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고 단순한 홍보 활동에 불과해 ㉠과 성격이 가장 다르다.

○답풀이

①, ②, ④, ⑤ 모두 정부나 공공 기관이 정한 규칙이나 법률로, 개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다.

- 06 ㉠ ‘국가 현상설’과 ㉡ ‘집단 현상설’은 폴리스를 이해하는 범위와 정치 행위 주체 설정에 차이가 있다. 두 관점 모두 정부나 국회의 활동을 정치로 인정하며, ㉠은 정치 행위 주체를 비교적 좁게 국가 기관 및 정치인으로 한정한다. 반면 ㉡은 시민들이 소속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벌어지는 상호 작용과 갈등 조정을 정치로 포괄적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의 역할을 경제 문제 해결로 여긴다는 내용은 (다)와 (라)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 ㉣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은 폴리스를 국가 중심으로 좁게 이해하는 반면, ㉡은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두 관점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과 ㉡ 두 관점 모두 정부, 국회 등 국가 기관의 활동을 정치 현상에 포함시키므로, 이 설명은 적절하다.

③ ㉠은 정치 주체를 국가 기관과 소수 엘리트로 한정하는 반면, ㉡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 더 넓게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은 적절하다.

⑤ ㉠은 국가뿐 아니라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 집단 내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반면 ㉡은 그런 폭넓은 참여를 강조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도 적절하다.

- 07 (다)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한두 사람의 기호나 취향에 맞춰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08 (나)에서 필자는 ㉠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결정이 구성원 사이에서 특별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다)에서는 ㉠과 달리 ㉡이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정치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과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어떤 행위가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정치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답풀이

① 국가의 행위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국가가 주체인 행위가 아니다.

② ㉠과 ㉡ 모두 구성원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의견 공유와 조정의 과정이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정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에만 해당한다.

⑤ 필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을 모두 정치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한 결정에서 그러한 정보를 고려하여 반영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09 (라)에서는 정치를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어디로 떠날지 결정하는 문제는 학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나 사적인 결정과는 다르며, 공적인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넓은 의미의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라)를 활용하여 ③을 정치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10 이 자료에서 ‘김정치 씨’는 청소년이 정치를 배울 권리가 있고 정부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민주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좋은 정치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준립 씨’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고,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므로 당연히 투표해야 한다는 전제의 교육은 바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자료의 쟁점은 ‘학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해도 되는가?’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11 ㉠은 청소년도 정치를 배울 권리가 있으며, 선거권을 가진 만큼 학교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 청소년의 판단 능력을 성인보다 낮게 보고 정치 교육보다 학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의 기본 전제와 충돌하며 그 관점에서 제시될 수 없는 의견이다.

(오답풀이)

- ① ㉠은 청소년이 정치를 배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훈련해야 한다고 보므로, 실제 참여 중심의 정치 교육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의견은 ㉠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 ② ㉠은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므로,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을 분석력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선지는 ㉠의 관점에서 충분히 도출 가능한 주장이다.
- ④ ㉠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치 교육이 학교 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 교육을 교실 안이 아닌 교과 외 활동으로 제한하지는 의견은 ㉠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제시될 수 있다.
- ⑤ ㉠은 모의 선거나 정치적 토론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당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거나,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 교육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이 의견은 ㉠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 12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 분야의 글을 쓸 때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 및 관련 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는 1950년대 미국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의 배경과 전개,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와 비폭력 시위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의 글 계획에서는 운동을 이끈 인물들의 정신과 희생, 사회 변화를 부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버스 운전사의 심리를 언급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있으며, 사건의 주된 흐름과 메시지를 흐릴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비폭력 정신은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회 변화를 이끄는 교훈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를 교훈으로 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적절하다.
- ② 몽고메리 흑인들의 희생과 참여는 운동의 핵심 동력이자 사회 변화를 이끈 주체로서 강조할 가치가 크므로, 이를 부각하는 것은 글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④ 1950년대 미국의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며, 이를 글의 소재로 다루는 것은 사회 분야 글쓰기에 적절하다.
- ⑤ 로사 파크스의 용기는 운동의 발단과 핵심적인 상징으로 작용하므로, 그녀의 용기를 중심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방향에 적절하다.

- 13 이 글에서는 (나)와 (다)에서 한자와 알파벳이 글자를 생성하고 확장하는 원리를 설명한 뒤, (라)에서 알파벳의 특징과 서양의 건축 문화를, 한자의 특징과 동양의 건축 문화를 각각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14 (가)의 2문단에서 필자는 근대 이전에 건축이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건축물이 곧 그 나라의 기술력과 재력의 상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근대 이전에 건축물이 상징하였던 바를 (가)에서 찾아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15 (라)에서 동양의 건축은 대부분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라)에서 ‘동양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 ② (라)에서 ‘동양의 건축은 조합이 자유로운 한자와 닮았다.’라고 하였다.
- ④, ⑤ (라)에서 ‘서양의 건축을 보면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서 알파벳처럼 한 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판테온과 성 베

드로 대성당 등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서양의 건축물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16 이 글에서는 개미와 벌의 사회적 특징과 건축 형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가치관으로 확장해 해석하고 있다. 개미집은 관계 중심적인 구조로 동양의 유교적 가치와 연결되고, 벌집은 기하학적 질서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서양의 이데아적 세계관과 대응된다. 따라서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생태적 특성이나 건축 기술이 아니라, 개미집과 벌집의 건축을 통해 드러나는 동서양 문화의 대비를 보여 주는 데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②가 글의 내용을 반영한 표제와 부제라고 볼 수 있다.

17 이 글은 개미집과 벌집의 건축 형태를 단순한 생태적 결과로 보지 않고, 각각의 환경적 조건(땅속·공중)과 문화적 가치관(관계 중심·기하 중심)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한다. 개미는 땅과 연결된 관계 중심의 구조를, 벌은 공중에서 기하학적 질서에 따른 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건축의 형태는 환경과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으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필자는 이 글에서 동서양 건축 양식의 차이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건축 양식이 미의식보다 기능적 효율성을 중시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필자는 개미와 벌의 사회를 비유적으로 인간 문화에 연결할 뿐, 직접 대응하거나 동일시하지 않는다.
- ④ 필자는 관계 중심의 개미집과 기하학적인 벌집을 대비시켜 건축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공간의 관계성과 문화적 가치, 즉 내적 구조로, 외형적 조형미를 중시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필자는 개미집과 벌집을 바탕으로 인간의 건축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은 필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

18 (다)에서 벌집의 경우에는 육각형의 동일한 모양의 방이 반복되어 벌이 들어가서 살기에 공간의 손실이 적은 합리적인 구조라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나)에서 개미집은 형태가 복잡하고, 방끼리의 관계가 중요한 건축이라고 하였다.
- ② (다)에 따르면 육각형 모양의 방이 연속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개미집이 아닌 벌집이다.
- ③ (나)에 따르면 외적인 형태가 아닌 내부에 구성된 연결망이 중요한 것은 벌집이 아닌 개미집이다.
- ⑤ (가)에서 개미와 벌 사회는 모두 여왕을 중심으로 일하는 계층이 있고 조직적인 사회성을 띠고 있었다. 이 글에서 개미와 벌이 지닌 사회성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며, (라)를 통해 개미집과 벌집의 건축적 차이는 날개의 유무와 같은 몸의 구조적 차이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02 논증하는 글 쓰기

★ 확인하기

본책 281쪽

1 × 2 × 3 ○ 4 ○ 5 ○

★ 활동 1 확인 문제

본책 283쪽

1 (1) ○ (2) × 2 신뢰성

1 (1) 인아와 준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준수는 '현금 없는 사회가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금융을 투명하게 하며 경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찬성하고, 인아는 '현금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금융 사고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라는 쟁점은 비용 절감, 자원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의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년층은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주장은 현금 없는 사회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즉 사회적 수용성에 해당하는 주장이지, 경제적 효율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보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만한 이유로 '자료 생산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임을 들고 있다. 이는 근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뢰성'에 해당한다.

★ 활동 2 확인 문제

본책 286쪽

1 이성적 설득 전략 2 (1) 귀납 (2) 연역

1 <보기>에는 준수가 주장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통계 자료처럼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타당한 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인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2 (1) 귀납적 논증은 구체적인 사례나 사실을 전제로 하여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칙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금붕어는 아가미로 호흡한다.'와 '송사리도 아가미로 호흡한다.'라는 두 개의 개별적 사실에서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한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연역적 논증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를 토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1) ○ (2) ○

2 서론, 본문, 결론

- 1 (1) 논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근거 자료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판단한 후 적절한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할수록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2) 논증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예상 독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만한 반론을 예상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 2 논증하는 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서론-본문-결론’의 3단 구성으로 조직한다. 서론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정하여 제시하고 문제 상황을 설명하며 독자의 관심을 끄는 단계이고, 본문은 문제와 관련하여 주장이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는 단계이다. 결론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제시하고, 주장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소단원 평가

본책 291~292쪽

- 01 ① 02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03 ① 04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금 없는 사회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지가 쟁점이다. 05 ⑤ 06 ③ 07 ⑤

- 01 (가)에서 ‘인아’는 현금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고, 금융 사고나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준수’이다.
- 02 (가)의 대화에서 ‘인아’와 ‘준수’는 각각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의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에서 ‘인아’가 제안한 글 쓰기의 논제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가)의 ‘인아’와 ‘준수’의 대화를 바탕으로 (가)의 논제를 제시하였다.	☐
제시된 문장 형태를 활용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03 (나)에 따르면 50~70대의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20~30대의 현금 결제 비중이 낮으므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가)의 ‘인아’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를 활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③, ④ (다)는 현금 없는 버스를 편리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인터뷰 자료로, (가)의 ‘준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⑤ (라)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야 지하 경제를 억제하고 경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으로, (가)의 ‘준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04 이 글의 논제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는 현금 없는 사회가 지갑을 가볍게 하고 잔돈 관리나 분실 위험을 줄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주장의 쟁점은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함을 가져오는지에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글의 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
필자가 생각하는 쟁점을 제시하였다.	☐

- 05 이 글은 통계 자료, 인터뷰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글이다.

- 06 이 글의 2문단에서는 객관적인 수치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현금 사용 비중이 꾸준히 감소한 것과 현금보다 신용 카드의 편리성이 높음을 보여 줌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이 글에서 직접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기관 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이 사용되었을 뿐, 전문가 의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현금 없는 사회의 편리함을 주장하고 현금이 없어졌을 경우의 불편함과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거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필자 개인의 신뢰도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인터뷰에 근거하여 설득하고 있다.

- 07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는 근거가 주장과 관련성 있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만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가’는 근거의 타당성이나 신뢰성과는 별개로, 단순히 사회적 관심도나 인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논증의 설득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어떤 근거가 대중적으로 관심받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의 적절성 판단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국가 현
상설에서는 대통령, 국회 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소수 엘리
트를,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에서는 현대 사회의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본다. 06 ⑤ 07 ② 08 ⑤
09 ① 10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혹은 정부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 아니
라 공동체 내, 혹은 공동체 간에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일
을 말한다. 11 ④ 12 ④ 13 ⑤ 14 ②
15 ④ 16 ③ 17 날개가 없는 개미는 땅과 연결해
서 집을 짓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벌은 공중에 집을 짓기 때
문이다. 18 ② 19 ② 20 ① 21 ①
22 ③ 23 ① 24 [A]에 쓰인 설득 전략은 타당한
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이다. 25 ③ 26 ⑤

01 (라)에서 국가 현상설이 정치를 국가나 국가 기관의 활동으로 한정하여 이해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① (나)에서 '폴리스'란 도시 국가, 공동체 국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정치'라는 말이 그리스어 '폴리티카'에서 유래했다고 하였
다.
③ (마)에서 사회 현상설이 국가와 다른 집단의 차별성을 소홀히 하고,
정치가 궁극적으로 국가와 관계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④ (나)에서 폴리스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거나 폴리스를 위해 일할 사
람을 정하는 일, 중요한 시설 건축,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폴리티카의
예로 들고 있다.

02 (마)에서는 정치를 사회 집단 전반의 상호 작용으로 보는 관점
을 소개하면서, 그에 따른 의미와 적용 범위를 설명한 뒤, 이 관
점이 가진 한계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즉, 특정 입장을 비판적
으로 서술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설명을 통해 독자가 각 관점의 특징과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3 (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없이 혼자 존재하는 것은 인
간이 아니라 초인이나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초인은 폴리스 밖에 있는 존재로, 인간이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04 (라)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나 공적 권력 기관의 활동으로 한정
하며, 정치권력은 주로 소수 엘리트나 국가 기관에 의해 행사
된다고 본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자율적인 논의나 마을 단위
의 자치 활동은 정치로 보지 않는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을 행
사하는 공식 기구의 결정 과정에 있다고 보므로, ③은 (라)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라)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만든 조례는 국가 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가 국가 기관이나 권력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국가
현상설과 일치한다.
② (라)의 관점은 소수 엘리트나 권력 기관의 결정에 집중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보다 공식적인 조례 제정이 정치의 본질적 핵심으로 여겨진
다.
④ (마)의 관점은 정치가 다양한 사회 집단 내 상호 작용과 조정으로
나타난다고 보므로, 주민들 간 논의와 역할 분담은 정치 행위에 해당한
다.
⑤ (마)의 관점에서 지자체와 마을 자치회의 협의 역시 권력관계와 상
호 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행위로 인정된다.

05 (라)와 (마)에 따르면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정부, 국회 등과 같
은 권력 기관이나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활
동으로 보고, 정치의 주체 역시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소수 엘리트로 한정하여 이해한다. 한편 집단 현상
설(사회 현상설)에서는 정치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과 조정으로 보고, 정치의 주체를
현대 사회의 모든 시민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

채점 기준	확인☑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에서 정치의 주 체로 보는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
(라), (마)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

06 ㉠ '이 관점'은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을 말하는 것으로, ㉠
에서는 정치 공동체를 국가나 물론 사회의 다양한 집단 전체로
확장하여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나 가치관
의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본다.

오답풀이

- ①, ②, ③, ④ 국가 현상설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내용에 해당한다.

07 ㉢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뜻으
로 쓰였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다.

08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이나 문화 양상
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다. 사회 분야의 글은 주로 정
치, 경제, 법률 등 사회적 행위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서술하
고, 문화 분야의 글은 의식주, 풍습, 종교 등 문화 전반을 소개
하고 설명한다. 반면, 개인의 심리나 정서를 중심으로 삶을 사
색하며 전개하는 글은 사회·문화 분야의 글에서 요구하는 분석
적이고 체계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으며, 객관적 정보 전달이나
논리적 설명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감정 표현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분야의 글로 보기 어렵다.

09 대학 입학시험의 전형은 많은 수험생과 교육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사안이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은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이는 글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
당한다.

○답풀이

- ② 외식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 내의 사적 의사 결정이며, 공공의 문제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 ③ 역할 분담은 협력적 활동이지만, 정치에서 말하는 공적 자원의 분배나 권력 조정과는 관련이 적다. 또한 적용 범위가 협소한 개인 간 협력에 머문다.
- ④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의견 나눔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공적인 결정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독서실 방문 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적인 일정 조율일 뿐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인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 10 필자는 4문단에서 정치의 개념을 제시한 뒤, 정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설명한다. 필자의 설명에 따르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혹은 정부의 행위에 주목하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 간에 권력과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다룬다.

채점 기준	확인
4문단을 바탕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였다.	☐
좁은 의미와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각각 서술하였다.	☐

- 11 2문단에 따르면, 친구들과의 점심 메뉴를 정하는 일은 개인 간의 사적 결정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즉, 공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라 사적인 선택에 해당하므로 정치로 보기 어렵다.

○답풀이

- ① 4문단, 5문단에서는 정치란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친구들의 메뉴 결정은 이러한 공적 영향력이나 구속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는 의견 조정이 있어도 그것이 사적 영역의 일이라면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단순한 의견 조정만으로는 정치적 행위가 되지 않으며, 결정이 공적 구속력을 지녀야 정치다. 따라서 의견 조정 자체는 정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③ 1문단에서 '폴리스'는 현실에서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친구 관계는 사적 공동체에 가깝고, 정치적 공동체인 폴리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친구 관계를 폴리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글에서는 정치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일어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단위 공동체(학급 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규모의 크기를 정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이 글은 동서양의 문화를 건축과 문자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각 문화가 가진 특징의 차이점에 주목해 설명하고 있다. 서양은 알파벳처럼 일방향적이고 좌우 대칭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

며, 동양은 한자처럼 조합이 자유롭고 비대칭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건축 양식을 가진다고 하였다.

- 13 (나)에서 한자는 글자의 '상대적 위치와 길이에 조합에 따라서', 알파벳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축 한 방향으로 글자의 순서만 바꾸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답풀이

- ① 이 글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문화와 그 특징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글자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라)에 따르면, 평면으로 구성되는 건축물은 주로 동양의 건축이고 서양의 건축은 좌우 대칭성을 가진다고만 언급하였다.
- ② (나)에서 알파벳은 26개의 글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한자와 알파벳 모두 글자의 개수나 획이 제한된 글자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③ (나)에서 사방으로 확장되는 글자는 한자, 가로축 한 방향으로만 확장되는 글자는 알파벳이라고 하였다.
- ④ (다)에서 최소 단위를 추구하는 서양의 문화가 반영된 글자는 알파벳이라고 하였다.

- 14 (라)에서 서양의 건축물은 좌우 대칭성을 가지고(ㄱ), 동양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된다고(ㄷ) 하였다.

○답풀이

- ㄴ. (라)에서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것은 동양의 건축물이라고 하였다.
- ㄷ. (라)에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은 서양의 건축물이라고 하였다.

- 15 (라)에서 동아시아 문화는 충(忠), 효(孝)와 같은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가 지배적이었고, 이에 따라 동양의 건축이 관계성을 중시하게 되었다며 동양의 유교와 건축 문화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 16 (나)에 따르면 개미집은 그 외부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내부에 구성된 연결망이 가장 중요하며, 벌집은 육각형 모양의 방이 반복되면서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공간 손실이 적은 전체 벌집이 만들어진다.

○답풀이

- ① (나)에서 개미집은 지역에 따라 땅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땅 위로 솟아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 벌집은 지표면이 아닌 공중에 지어진다.
- ②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원칙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개미집이 아닌 서양의 건축 문화이다. 또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는 것은 벌집이 아니라 동양의 건축 문화이다.
- ④ 이 글에서는 개미집과 벌집이 지어진 구조와, 개미와 벌이 외부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식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에서 개미와 벌 모두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강한 사회성을 띠고 있는 곤충이라고 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설명이다.

- 17 (다)에서 필자는 개미와 벌이 모두 여왕 개체를 중심으로 사는 사회적 모습은 비슷하지만 건축은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설명한다. 또 그 이유가 개미는 날개가 없어 땅과 연결해서 집을 짓

고, 별은 하늘을 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집을 짓기 때
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채점 기준	확인☑
(다)에 제시된 개미와 벌의 차이점을 개미집과 벌집의 특 성과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18 (가)에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기와 조각과 퐁 덩어리가 중국
인의 활용을 통해 아름다운 무늬와 질서 있는 풍경을 만들어 내
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중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즉, 필자는 단순한 인상 비평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시
와 묘사를 바탕으로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중국의 훌륭한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19 (가)의 필자는 중국 사람들이 깨진 기와 조각, 퐁 덩어리 등 하
찮게 여겨지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재활용한 모습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여 깨진 기와 조각, 퐁 덩어리를 ‘중국의 장관’
이라고 표현하였다.

- 20 (나)의 필자는 집, 조경, 골목길, 대운하 등 눈에 보이는 베네치
아의 모습을 관찰한 다음 베네치아의 역사와 관련한 배경지식
을 떠올리며 지리적 난점을 극복하고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성격의 도시’가 된 베네치아와 ‘새로운 유형의
인간’인 베네치아 사람들을 예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 베네치아의 대운하, 광장 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고 평가하였으나 베네치아가 유명한 관광지
라고 언급하지는 않았고 베네치아가 관광지로 이름남에 따라 베네치
아 사람들이 부유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③ (나)에서 ‘그들에게는 물이 거리와 광장과 산책로를 대신’했다고 말
하여 베네치아에 물이 풍부함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베네치아
사람들이 물과 관련한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④ (나)에서 베네치아를 ‘가장 불리한 지역’이라고 말하며 베네치아의
지리적 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때문에 다른 도
시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극복하고 베네치아를 독보적인 성격
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베네치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으나 베네치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 21 (가), (나)는 모두 논증하는 글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
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가)는 찬성하는 입장, (나)는 반대
하는 입장에서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논
증하는 글에서는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만을 선별
하여 제시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모두 나열하면 필자가 말
하고자 하는 글의 논지가 약해질 수 있다.

- 22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현금 없는 사회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로, 특정 계층의 불편함에 대한 반론에 대해 제시한 반박이 아
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현금 없는 사회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② (나)에서는 ‘금융 취약 계층도 전자 결제 수단을 교육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론으로 제시한 뒤, 그 실효성이 낮다는 점으로
반박하고 있다.

④ 금융 취약 계층의 범위가 넓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내용
은 (나)의 반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으로 제시된 것이다.

⑤ 스웨덴과 영국의 정책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실제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례로, 이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꼭 바람직한 방향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반박으로 적절하다.

- 23 (가)의 필자는 ‘지갑을 가득 채워 외출해야 했던 과거의 생활이
기억나는가?’, ‘그러나 정말 그럴까?’ 등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
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ㄱ), 한국은행이 발표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ㄴ).

- 24 [A]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이성적 설득 전략
이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다.

채점 기준	확인☑
‘이성적 설득 전략’, ‘타당한 근거’, ‘논리적’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 25 (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므로, (나)와 같은 입장을 드러내는 자료인 ⑥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는 모바일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큰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
환하였을 때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은 현금 사용을 줄여야 지하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 시
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
하는 내용이므로 (나)가 아니라 (가)의 필자가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④, ⑤ 현금 없는 사회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필자의 주
장을 강화하기보다는 타협적인 접근으로 논지가 흐를 수 있어 두 방안
모두 적절한 활용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 26 ㉠은 연평균별 현금 결제 이용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로, 20대
는 현금 결제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9.8%) 70대 이상은
현금 결제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40%)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20대보다 70대 이상
이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이들이 주
로 금융 취약 계층에 해당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6 통합적으로 읽고 쓰다

01 다양한 매체 자료 읽고 쓰기

* 확인하기

본책 309쪽

1 ○ 2 ○ 3 × 4 ○ 5 ×

* 활동 1 확인 문제

본책 311쪽

1 인쇄 매체 2 (1) ○ (2) ×

1 책이나 신문,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는 방송 매체와 더불어 여러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로 볼 수 있다. 특히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는, 정보를 제공하는 속도는 비교적 떨어지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1) (가)는 본문에서 복숭아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하여 복숭아가 전체 과일 매출 중 1위를 차지했다며 △△ 상점의 과일 판매량 집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 과일 매출 변화와 관련하여 △△ 상점 과일 판매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과일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뒷받침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2) (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심층 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활동 2 확인 문제

본책 313쪽

1 공익 광고 2 (1) ○ (2) ○

1 제시된 광고는 기업이나 단체가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제작하는 공익 광고이며, 텔레비전 광고 즉, 영상 광고이다. 텔레비전 광고는 광고에 사용된 영상, 음향, 자막, 음성 언어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파악하여 광고의 제작 의도와 표현 의도를 판단하며 수용해야 한다.

2 (1) 이 활동에 제시된 광고는 회사, 동네,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장면을 연출하여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존중하자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활동에 제시된 광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광고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활동 3 확인 문제

본책 315쪽

1 뉴 미디어 2 (1) ○ (2) ○

1 뉴 미디어는 인터넷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누구나 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용할 수 있고,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1) 이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인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이라는 환경 보호 관련 챌린지에 대해 알리고, 이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 이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에서는 자료의 수용자들이 환경부의 누리집에 쉽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부 누리집의 주소(<https://me.go.kr/>)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고 있다.

* 활동 4 확인 문제

본책 318쪽

1 ④ 2 (1) ○ (2) ○

1 매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려는 자료의 주제와 소통 목적, 이 자료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수준, 효과적인 매체 자료의 유형, 표현 방법 등을 계획한다. 따라서 생산자가 아니라 수용자의 나이, 관심사, 배경지식 등을 분석해야 한다.

2 (1) 매체 자료를 생산한 후에는 선정한 매체가 주제와 의도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였는지, 활용한 매체 언어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지,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제시한 정보가 보편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등을 평가한다.
(2)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는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의 특성에 맞는 표현 방법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소단원 평가

본책 320~323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③
06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07 ①
08 ③ 09 ③ 10 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챌린지에 참여하자. 11 ⑤ 12 ②
13 ④ 14 ③

01 (가), (나)는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로,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속도가 느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일반인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각 자료와 함께 문자 언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④는 인

새 매체보다 뉴 미디어에 어울리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뉴 미디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이나 깊이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뉴 미디어에서는 내용을 공유하기가 쉬워 시의성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다른 수용자와 나눌 수 있다.

- 02** (가)에서는 △△ 상점의 과일 판매량 집계에서 복숭아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22.9% 증가하였다는 구체적인 수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가 과일 소비 행태에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 상점의 과일 판매자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과일 판매 매출 순위가 변화한 현상을 1인 가구 증가와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비 경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가)는 △△ 상점의 과일 매출 순위 변화를 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과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삶의 부정적 측면은 (나)의 통계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 ③ (가)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소비력 저하가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과일 소비 경향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④ (나)는 1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년 1인 가구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1인 가구의 증가를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나)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1인 가구를 가구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03** (나)는 서울특별시의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에서 1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2017년 대비 상승하였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1인 가구가 느끼는 1인 가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 인용한 심층 조사 자료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에 관한 것으로 이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 ① (가)의 부제와 본문에서 △△ 상점의 과일 판매량 집계를 제시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과일의 판매량이 변화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 상점의 과일 판매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과일 판매 순위가 변화한 이유를 전달함으로써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비 행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관점을 뒷받침하였다.
- ③ (나)에서는 1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실태 조사에서 1인 가구가 느끼는 장점과 단점 항목의 구체적 수치를 밝혀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 ⑤ (나)에서는 2017년, 2021년에 조사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 수치를 그래프라는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4** ㉠은 표제, ㉡은 부제, ㉢은 전문, ㉣은 본문이다. ㉤은 핵심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기사의 핵심을 파악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은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전문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한다.

오답풀이

- ㉦. ㉠은 기사의 제목으로 핵심 정보를 압축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은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 ㉡은 표제를 보조하는 부제이다. ㉢에는 과일 판매 순위가 제시되어 있으나 통계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05** 제시된 광고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공익 광고이다.

- 06** 이 광고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함께 향유하며 공감과 배려를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다양해서 더 가치 있는 문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라는 자막과 내레이션 내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즉 이 광고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전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자막, 내레이션의 내용에서 ‘다문화, 가치’라는 단어를 찾아 포함하였다.	☐
공익 광고의 특징과 관련지어 이 광고를 제작한 의도를 바르게 제시하였다.	☐

- 07** 이 광고에서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회사, 동네, 학교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등장시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② 회사, 동네, 학교 등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만나 격을 수 있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편타당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이 광고에서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상황을 드러내고, 내레이션으로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내레이션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막을 삽입하여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강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광고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표현 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광고는 텔레비전 광고로, 이와 같은 방송 매체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선택한 것이므로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⑤ 공익 광고의 주제인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생활하는 장면으로 표현함으로써, 광고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 08** 회사, 동네,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를 지닌 각기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생활하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다. ④는 배려나 공감이 없는 디자인으로 ‘가끔’과 ‘돌봄’의 의미와 대조되는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2 (마)에서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간은 형식적인 계획으로 돌보지도 가꾸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은 조금 더 보살펴서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간을 돌보고 가꾸면 풍요로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간과 관계없다.

3 이 글의 필자는 도시 건축 디자인에 대해 사용자를 배려하여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마)에서 아무리 좋은 공간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쓸모없어진다고 하였으므로, ①은 필자의 생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제재 다 고령자를 위한 읽기

제재 확인 문제

본책 331~332쪽

1 고정된 것, 익숙함 2 ⑤ 3 ③

1 (나)에서 필자는 고령자의 인지 방식 변화를 설명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어린이와 달리 고령자는 고정된 것과 익숙함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2 (라)에서 글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행갈이가 자주 일어나 인지와 기억에 방해가 되며 내용 파악에 지장을 준다고 하였다.

3 ‘결론’ 부분인 (바)에서 필자는 지면이 부족할 경우 중요한 정보는 짧게 요약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나머지 정보에는 상대적으로 시선이 덜 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배려하여 의약품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하고자 하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333쪽

1 ○ 2 ○ 3 ○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334쪽

1 ○ 2 × 3 ○

핵심 구절 확인하기

본책 335쪽

1 ○ 2 × 3 ○

소단원 평가

본책 347~352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② 08 ② 09 일반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정류장 이용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10 ⑤
11 ② 12 ① 13 ④ 14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을 위한 배려가 없고, 일반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기 어렵다. 15 ②
16 ⑤ 17 (화석 연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 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인류가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이 지구와의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 18 ⑤
19 ④ 20 ④

01 이 글의 필자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 에너지인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체 화석 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사용량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의 친환경성과 고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라)에서 실리콘보다 더 전류를 많이 만들 수 있거나 친환경적 물질, 구부러지고 늘릴 수 있는 물질로 태양 전지를 만드는 일을 연구 중이라며 태양 전지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② (나), (다)에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의 종류를 설명하고, 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인 태양 복사 에너지의 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③ (가)에서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추이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1900년대 이후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증가한 에너지 중 화석 에너지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는 화석 에너지는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키고, 이 이산화 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02 (가)에 제시된 내용과 그래프에 따르면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비해 매우 낮다.

03 (가)에서는 화석 에너지 사용이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키고, 이산화 탄소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가져와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며, 화석 에너지 사용이 유발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 필자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인류가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석탄과 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전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 100년 전에 비해 10배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나, (가)에서 석탄과 석유의 매장량이나 공급량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인류는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화석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연료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4 (다)에서는 ‘광전 효과’의 개념을 제시하여 태양 전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ㄴ), 태양 전지를 설치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들어 태양 전지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ㄷ).

오답풀이

ㄱ. 태양 전지가 태양광 패널 형태로 아파트 베란다나 도로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에서도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태양광 패널의 사용량 변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ㄴ. 태양 전지가 지구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재료인 실리콘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고 한 부분에서 태양 전지의 원료인 실리콘이 풍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의 단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05 (라)에서 필자는 산업과 기술 발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추구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③ 필자는 인류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 ④ 필자는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필자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필자가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강조한 것은 맞으나 에너지의 분배 방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06 이 글은 도시 건축 디자인에서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필자는 사용자를 배려하여 조성된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를 손보아야 할지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도시 공간의 미적 가치와 편의성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①, ④ (라)에서 수원 시청 앞 버스 승강장의 자동 접이식 의자를 예로 들고, 관련 사진을 제시하여 가꿈과 돌봄을 실천한 도시 건축 디자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나)에서 ‘가꿈’과 ‘돌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자를 배려한 건축 디자인이라는 주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에서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은 돌봄과 가꿈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07 필자는 도시 공간을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가꾸고 돌봄으로써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최소한의 법규만을 지켜 형식적으로 계획한 공간은 사용자에게 위험한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필자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단어는 ‘관심(ㄱ), 가꿈(ㄴ), 안전한(ㄹ)’이다.

08 필자는 주변 공간을 보살피는 행위가 공동체와의 소통의 길을 열어 주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더 좋은 도시 공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법규만을 지켜 계획한 공간은 필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 공간을 보살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9 자동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면 공간을 확보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넓은 공간에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의자가 자동으로 접힘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정류장에서 대기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도 편리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자동 접이식 의자가 모두를 배려하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본 것이다.

채점 기준	확인 ☑
(라)를 참고하여 배려의 두 대상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일반 시민을 모두 제시하였다.	☐
자동 접이식 의자가 어떤 의미에서 가꿈의 실천인지를 서술하였다.	☐

10 ㉠은 ‘가꿈’이나 ‘돌봄’과 대조되는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나)에서 ‘관리’에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나 공감에 부재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효율과 평등을 추구한 디자인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② ㉠은 ‘가꿈’과 ‘돌봄’이 지닌 공통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도시 건축 디자인에서 ‘가꿈’과 ‘돌봄’을 통해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④ ㉠은 필자가 설명한 ‘관리’의 개념이다. (나)와 (다)에서 필자는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겉모습을 꾸미기만 하는 ‘관리’에만 열중한 나머지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11 이 글에서 필자는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뿐,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12 (다)에서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오히려 인지와 기억에 방해 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② (나)에서 고령자들의 인지 방식을 설명하며, 이들이 어린이들과 달리 고정된 것과 익숙함에 반응하며 지금까지 쌓아 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 ③ (라)에서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는 젊은 사람들이 독서를 할 때도 눈에 편안함을 준다고 하였다.
- ④ (다)의 그림과 고령자들의 안구 도약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젊은 독자는 시선의 도약 거리가 짧으며, 운동량이 많고 역행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다)에서 시각 인식 전문가의 시선 추적 연구를 제시하며 인간의 눈은 텍스트를 읽을 때 한 글자씩이 아닌 덩어리 단위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13 이 글은 고령자를 위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14 (가)에서 의약품 설명서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젊은 시력으로도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복용 방법이나 주의 사항 같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확인☑
(가)의 의약품 설명서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썼다.	☐
의약품 타이포그래피의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제시하였다.	☐

- 15 (다)에서 고령자는 한 번에 시선이 오래 고정되어 머무르고 파악하는 분량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 16 (가)~(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강조하고, (다)~(라)는 공간을 가꾸고 돌보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는 고령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 글 모두 '공존'의 실천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답풀이

- ① (다)~(라)에만 제시되어 있다.
 ② (다)~(라)와 (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나)에서 태양 전지를 활용한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제도 수립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나머지 글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가)~(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으나 (다)~(라)와 (마)는 사회적 약자와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어 세 글의 공통된 문제의 식으로 보기 어렵다.

- 17 (가)에서 화석 연료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이산화 탄소가 지구 평균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과 인류의 공존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자가 제시한 문제점을 썼다.	☐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

- 18 (마)는 국내 의약품 설명서를 예로 들어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는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장한 글이다. 이러한 글을 바탕으로 학습을 위한 글을 쓰는 것이므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화이트 스페이스의 크기와 타이포그래프를 조사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 ① (마)는 의약품 설명서의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설명서 내용에 대한 분석은 (마)의 내용 학습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마)의 제재는 타이포그래피이므로 고령자의 학습 방법에 대한 글 쓰기는 적절하지 않다.
 ③ (마)에서 잡지나 신문의 경우 심미성과 텍스트의 짜임새를 고려하여 화이트 스페이스를 적게 준다고 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가독성을 배려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마)의 내용 학습을 위한 글 쓰기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마)에는 고령자를 배려하여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타이포그래피는 글의 소재로 적절하지 않다.

- 19 ㉠은 필자가 지양하는 디자인으로, 공간에 대한 소홀함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공간을 세심히 관리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0 ㉠은 '주다'의 뜻풀이 중 '남에게 어떤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하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의 '전달(傳達)해야'가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 ① '선사(膳賜)'는 존경, 친근,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남에게 선물을 준다는 뜻이다.
 ② '제공(提供)'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친다는 뜻이다.
 ③ '배포(配布)'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⑤ '수여(授與)'는 증서, 상장, 훈장 따위를 준다는 뜻이다.

대단원 평가

본책 356~363쪽

-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 상점의 과일 판매량 집계 결과와 △△ 상점 과일 판매자의 인터뷰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06 ⑤
 07 ④ 08 ② 09 ⑤ 10 ③ 11 텀블러를 사용하여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챌린지에 동참하자.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②
 17 ③ 18 ② 19 ④ 20 ④ 21 자동 접이식 의자는 사용자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일반 시민 모두를 배려하여 공간을 돌보고 가꾼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⑤ 23 ⑤ 24 ⑤
 25 ⑤ 26 ④

- 01 (가)와 (나)는 신문 기사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인쇄 매체는 방송 매체와 더불어 여러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에 해당한다(㉠). 인쇄 매체는 신뢰성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리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자본과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 02 (나)는 1인 가구의 삶의 장단점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에서 1인 가구가 실제 응답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과일 판매량 집계 결과와 1인 가구 실태 조사 자료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문자 언어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가)는 독자들에게 친근한 소재인 과일을 활용하여 과일 판매량 변화를 1인 가구의 증가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한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에서, 1인 가구의 삶에 만족하는 이유와 불만족하는 이유의 각 항목별 응답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03 (가)에서는 과일 매출 순위 변화를 1인 가구 증가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비 경향에 변화를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불편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1인 가구가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모두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4 (가)는 △△ 상점의 과일 판매량 집계 결과와 과일 판매자 김○○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혔고, (나) 또한 2022년 서울특별시 1인 가구 실태 조사라는 조사 출처와 연도를 제시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 상점만의 판매량을 집제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1인 가구의 증가가 과일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상점이 아닌 여러 상점의 과일 매출 변화를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면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가)에서는 수박의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수박보다 크기가 작은 애플수박의 판매량은 증가하였다는 추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과일 판매량의 변화가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독자들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나)에서는 1인 가구의 실태 조사를 통해 1인 가구로 사는 것의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의 항목별 응답률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1인 가구가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구체적 상황이 제시된다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④ (가)는 1인 가구의 소비 성향, (나)는 1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장단점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생활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05 (가)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과일 매출의 변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 상점의 과일 매출 집계 결과와 △△ 상점 과일 판매자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였다.

채점 기준	확인 ☑
(가)에서 사용한 두 가지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다.	☐
자료 인용을 통해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

- 06 ㉠은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 중 전문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는 본문에 해당한다. ㉠에서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1인 가구의 삶의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나)의 기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 07 뉴 미디어는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양식성의 성격을 띠므로 뉴 미디어 자료를 읽을 때는 자료에 쓰인 다양한 양식의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 뉴 미디어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보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뉴 미디어 자료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각 양식의 전문적 기술 영역을 확인하는 것은 자료를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보기 어렵다.

- 08 (가)는 텔레비전 광고이고, (다)는 신문 기사이다. (가)와 같은 방송 매체는 영상, 음향, 자막, 음성 언어 등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사용되므로 각 표현 요소의 의미와 연출 의도를 파악하며 수용해야 한다. 한편 (다)와 같은 기사에서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함축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광고인 (가)에 해당하고, 문어체의 긴 서술 위주인 것은 (다)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영상과 음향을 활용한 것은 맞으나 주관적 감정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 또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다)는 '챌린지' 문화 확산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다문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으나 이를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다)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문자 언어만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9 (가)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어울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다양해서 더 가치 있는 문화', '요즘 문화는 다문화 화입니다'라는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나)는 시각 자료인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텀블러를 활용하는 환경 보호 챌린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나)에서 청각 자료는 쓰이지 않았으며, 시각 자료가 반복적으로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4 텀블러 사용하기'라는 문구와 함께 텀블러 이미지를 제시하여 주제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행복한 작문왕 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와 같은 공감 표시 기능으로 생산자와 수용자 간 의사소통이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④ '#환경부 #지구를지키는여행법 #친환경여행 #텀블러사용'이라는

해시태그를 제시하고 있다.

⑤ 환경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시하고 있다.

- 11** (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하여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챌린지에 참여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챌린지 참여는 지구(환경)를 보호하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나)에 제시된 챌린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생산한 목적과 (나)에 담긴 주제를 모두 제시하였다.	☐

- 12** <보기>에 제시된,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차별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나)와 같은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로 표현할 때 보고서를 줄글로 요약해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리 소통망 게시물은 짧고 간결한 문장과 이미지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답풀이

- ① 누리 소통망 게시물에는 <보기>에 제시된 크레파스 이미지와 같이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② 누리 소통망 게시물은 핵심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수용자의 이해를 돕거나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④ 누리 소통망에서는 댓글을 작성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수용자와 생산자가 쌍방향,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과 같은 뉴 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수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13** (다)에서는 챌린지 열풍이 섰던 영향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챌린지의 본래 성격을 잃지 않으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챌린지에 참여할 때는 이것이 보여 주기식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등 챌린지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14** (가)~(다)는 과학 분야의 글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라)~(마)는 인문 분야의 글로,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바)~(사)는 예술 분야의 글로, 고령자를 위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세 글은 모두 ‘공존’이라는 화제를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 15** (바)에서는 인간의 눈이 텍스트를 읽을 때 글자가 아닌 덩어리 단위로 도착한다고 하였을 뿐 한 글자씩 읽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② (나)에서 재생 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에 포함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하였다.
 ③ (마)에서 공간을 관심 있게, 사랑을 담아 가꾸면 어느 순간 풍요로운 생활 환경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④ (나)에서 태양 복사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변환

장치 중 하나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사용자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계획한 공간은 돌보지도 가꾸지도 않은 채 버려져 위험한 공간이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 16** (가)~(다)의 필자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100년 전에 비해 약 10배 증가했고, 이렇게 증가한 소비량의 대부분을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인 화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석 에너지 사용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17** (나)에서는 재생 에너지와 태양 전지의 개념을, (바)에서는 안구 도약 운동의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8** (라)~(마)의 필자는 도시 건축 디자인에서 ‘가꿈’과 ‘돌봄’을 통해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에서 ‘가꿈’과 ‘돌봄’의 의미를 ‘관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마)에서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공간이 유발하는 여러 문제를 제시하며 공간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꾸는 행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19** (바)~(사)의 필자는 국내 의약품 타이포그래피에서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지면의 공간 제약이 있을 경우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거나 위계를 차별화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바)~(사)는 타이포그래피의 역할 중에서 심미성이나 예술성보다 가독성과 정보 전달의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② 젊은 사람의 시력이 잘 적응하는 글자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은 고령층을 배려하는 타이포그래피가 필요하다는 (바)~(사)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바)~(사)에서는 글자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것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글자의 색이 아니라 지면에 맞는 적절한 글자 크기로 내용의 위계를 정하여 구성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바)~(사)에서는 인쇄된 내용을 전자 문서로 전환하지는 주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 20** ㉠의 그래프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이 100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어났다는 것과, 늘어난 에너지 소비량에서 수력, 원자력, 태양광, 기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석탄, 석유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필자는 화석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21** <보기>에는 수원시의 버스 승강장에 자동 접이식 의자가 설치된 사례가 나타나 있다. (마)에는 공간을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이유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라는 내

용이 담겨 있다. <보기>의 자동 접이식 의자는 통행에 불편을 느꼈던 일반 시민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모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마)에서 필자가 강조한 ‘가꿈’, ‘돌봄’을 실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마)에 제시된 ‘가꿈’과 ‘돌봄’의 의미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평가하였다.	☐
<보기>의 사례에 제시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였다.	☐

22 <보기>는 시각 자료를 통해 젊은 독자와 70세 이상 고령자의 안구 도약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기>와 (바)에 제시된 고령자의 안구 도약 운동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젊은 독자는 비교적 시선의 도약 거리가 짧고 운동량이 많으며 역행이 자주 일어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23 ㉠ ‘차별화(差別化)’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된 상태가 되게 함.’이라는 뜻이다. ㉡에는 ‘금지(禁止)’와 같이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

○답풀이

- ① ㉠ ‘대체(代替)하다’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라는 의미로, 적절한 활용 사례이다.
- ② ㉡ ‘지속(持續)하다’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다.’라는 의미로, 적절한 활용 사례이다.
- ③ ㉢ ‘배제(排除)하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라는 의미로, 적절한 활용 사례이다.
- ④ ㉣ ‘지장(支障)’은 ‘일하는 데 거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라는 의미로, 적절한 활용 사례이다.

24 ㉡는 <보기 1>에서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한 이론적 지식이 <보기 2>에서 스텐버그가 사랑의 구성 요소로 제시한 친밀감·열정·헌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설명했으므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실천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

25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주제나 화제에 대해 글의 형식과 관점이 다양한 여러 가지 글을 함께 읽으며,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읽기 방법이다. 주제 통합적 읽기에 서 글의 형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6 학습을 위한 글 쓰기는 학습의 목적이나 교과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학습의 목적을 고려하여 읽은 내용 요약하기, 교과의 개념 및 원리를 설명하는 글 쓰기,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글 쓰기, 실험이나 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 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물의 언어 양상 탐구’라는 주제로 학습을 위한 글을 쓰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로, 학습의 목적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수능 맛보기

1. 독서와 작문, 사이를 잇다

본책 378~383쪽

- | | | | | |
|------|------|------|------|------|
| 01 ③ | 02 ④ | 03 ② | 04 ① | 05 ⑤ |
| 06 ⑤ | 07 ⑤ | 08 ④ | 09 ⑤ | 10 ③ |
| 11 ① | 12 ① | 13 ② | 14 ③ | 15 ④ |
| 16 ① | | | | |

01 이 글에서는 줄 긋기 습관이나 독서 방식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필자의 줄 긋는 도구가 색연필에서 연필로 바뀐 점만 짧게 언급될 뿐, 전체 내용은 독서 경험과 감각,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답풀이

- ① 이 글에서 필자는 연필꽂이 속 여러 나무 연필들을 ‘작은 숲’에 비유하고, 책 위 연필 자국을 빙상장 얼음판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에 비유하는 등 독서에 대한 필자의 태도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필자는 책을 읽으며 줄을 긋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줄 긋는 감촉, 종이와 연필이 만나 만들어 내는 느낌, 그리고 그 행위가 독서와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는지를 통해 독서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몸과 감각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글은 전반적으로 필자가 마치 혼잣말하듯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독서에 대한 느낌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친근하고 진솔한 독서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은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끝나면서 ‘연필이 길고 둥근 이유를 상상하는’ 모습을 통해 독서가 단순한 읽기 행위가 아니라 삶과 이야기의 연결임을 생각해 보게 하는 여운을 주고 있다.

02 이 글의 3문단에서 필자는 어떤 문장 앞에 멈추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하며, 특히 작가가 낮익은 서사의 꺾점을 뽐낸 뒤 무언가 보여 주지만 완전히 다 보여 주지는 않는 문장 앞에서 멈춘다고 하였다. 이는 필자가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읽기를 잠시 멈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 ① 이 글에서 필자는 ‘내가 줄 그은 책과 잘 헤어지지 못한다’고 말하며 줄 긋기를 통한 책과의 감정적 연결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내용을 이해한 후 책을 정리한다’는 것은 책과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글의 정서와 어긋나며, 필자가 책을 쉽게 정리하거나 버린다는 뜻도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글의 2문단에서 필자는 줄 긋기를 독서 행위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행위가 독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리듬을 만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독서 속도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는 빠른 읽기보다는 깊이 있는 독서 경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
- ③ 이 글의 두 번째 문단에서 필자는 과거에 줄을 그을 때 색연필과

형광펜을 썼으나 지금은 거의 연필만 쓴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필이 아닌 다른 도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글에서 필자는 두보의 시를 인용하여 문학이 우리에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봄’을 만들어 주어 세계를 풍요롭게 감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세계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이 글에서 필자는 밑줄 구기를 정보 전달이나 정답 찾기의 도구가 아닌, 감정이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관적 행위로 설명하며 독서의 주제적 의미 구성을 강조한다. 또한 밑줄 구기를 통해 책과 감각적으로 교감하고, 그것이 ‘정신적 운동’처럼 능동적 독서의 일환임을 표현한다. 따라서 필자가 밑줄 구기에 대해 생각한 점(㉠), 주관적 기준으로 굿는다는 점(㉡),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는 능동적 태도(㉢)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 이 글의 필자는 ‘왜 줄을 쳤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흔적까지도 독서를 이어가게 하는 힘과 리듬을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 글의 필자가 말한 ‘이야기의 이어달리기’는 책을 읽고 생긴 내면의 감동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상징적 표현이다. 즉, 공동 활동이나 독서 나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보편적 공감과 연결, 이야기의 연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4 ‘어떤 문장 아래 선’을 긋는 것이 ‘그 문장과 스킨십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표현은, 필자가 독서 과정에서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장과 정신적으로 깊이 교감하며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독서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닌 자기 내면과 소통하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오답풀이

② ‘저자와 악수한 뒤 남은 손자국’이라는 표현은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자와 소통하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필자가 저자와 실제로 직접 만난 경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세계의 접촉면이 늘어난다’는 표현은 독서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의미이다. ‘독서를 할수록 현실 세계와 거리를 두게 된다’는 반응은 글에 나타난 긍정적인 세계 확장의 의미와 반대되어 적절하지 않다.

④ ‘그 흠’이 ‘현재와 과거를 잇는 먹 고랑’이라는 비유는 책을 통한 시간과 지식의 연결, 즉 필자의 내면과 축적된 지식들이 만나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단절이나 혼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글의 맥락과 맞지 않다.

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과 만날 수 있다’는 표현은 독자의 삶과 타인의 삶이 책을 매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독자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글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이어달리기’라는 상호 연결성과 맞지 않다.

05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독서란 저자와 독자가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다양한 삶을 경험하며 인식과 이해를 확장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또한 독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자아 성찰의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어, ⑤가 가장 적절하

다.

오답풀이

① 이 글과 〈보기〉에서는 독서를 저자와 독자가 상호 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독자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삶을 접하고 자신의 인식을 확장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용이라는 해석은 글의 핵심과 맞지 않다.

② 이 글과 〈보기〉에서는 감각적 체험이 독서의 일부임을 설명하면서도, 독서가 자아 성찰과 세계 이해 등 보다 폭넓은 정신적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어 감각적 경험만으로 독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과 〈보기〉에서는 독서가 감성뿐 아니라 사상이나 지식, 사회적 맥락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복합적 행위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를 감성적 교감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독서 경험의 다층적 의미를 축소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과 〈보기〉에서는 독서에 대해 독자가 자기 삶과 생각을 내면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임을 드러내므로, 타인의 시선을 우선하는 수동적 수용 행위로 보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글의 필자는 독서 행위 자체를 긍정적 교감과 성찰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어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는 필자와 같은 의미의 독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필자는 책을 읽다 멈추는 이유는 다양하며, 어떤 문장에 줄을 그을 때 그 문장과 ‘스킨십하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다. 따라서 특정 문장에 반응하고 그 느낌을 오래 간직하는 것은 필자가 경험하는 독서 태도와 부합한다.

② 이 글에서 필자는 줄을 긋거나 멈춰 서서 읽는 행위가 독서의 깊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천천히 독서하는 태도 역시 필자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

③ 이 글의 필자는 줄 긋는 행위를 ‘책과 스킨십하는 기분’이라 표현하며, 이런 행위가 독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리듬을 만든다고 했다. 따라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행위는 필자의 독서 방식과 일치한다.

④ 이 글의 필자는 독서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책 속의 다양한 삶과 지식을 만나면서 내면이 변화하는 경험은 필자가 제시한 독서의 의미와 일치한다.

07 이 글에 독자들의 비판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정재승이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반성하거나 수정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재승의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주로 ‘소통의 기쁨’, ‘융합’, ‘이야기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 정재승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② 이 글에서 정재승은 자연 과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 예술 등 여러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여 글쓰기를 한다고 하였다.

③ 이 글에서 정재승은 ‘이야기’를 중시하며,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④ 이 글에서 정재승은 인용과 비유, 예제를 활용해 과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08 이 글에서는 글쓰기 방식과 관련한 정재승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야기 속에 과학 지식을 녹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글쓰기'를 추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재승이 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며 과학적 사실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글쓰기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답풀이

- ① 이 글은 정재승의 글쓰기 방식과 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자들의 반응이나 의견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은 정재승의 과학적 연구 결과나 업적에 관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글쓰기 방법과 그 의미, 사회와의 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 글에 정재승과 다른 과학자의 글쓰기를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정재승의 글쓰기 방식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⑤ 이 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글쓰기 변화보다는 정재승의 전반적인 글쓰기 태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09 이 글에서 정재승은 과학을 전문가에게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과 소통하려는 글쓰기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야기 형식을 활용하고, 인용, 비유, 예제 등을 통해 과학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답풀이

- ①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정재승은 글쓰기가 자신의 생각과 삶 사이에 놓인 매개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 정재승은 선택의 순간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정재승은 학창 시절부터 문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글을 써 왔으며, 대학원 시절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연재한 것이 『과학 콘서트』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과학 콘서트』에는 그가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소재로 과학을 풀어내려 했던 글쓰기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 정재승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면 자연 과학뿐 아니라 사회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이 조화롭게 섞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10 이 글에 나타난 정재승의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원리를 이야기와 융합해 독자와 소통하며 지적 자극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 용어나 통계 수치만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은 정보 전달에 머무를 뿐, 그의 글쓰기에서 강조하는 '이야기 속 과학 지식의 서사화'와 '독자와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답풀이

- ① 이 글에서 정재승은 어려운 과학 지식을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나 비유를 통해 쉽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방법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과학을 덜 어렵게 느끼도록 돕고, 더 흥미를 가지게 만들 것이다.
- ② 이 글에서 정재승은 자연 과학뿐 아니라 사회 과학, 인문, 예술까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콘서트처럼' 조화롭게 엮는 글쓰기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융합적 접근은 글에 깊이와 풍부함을 더할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정재승은 글쓰기를 '소통의 기쁨'이라 부르며, 자신의 글이 독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⑤ 이 글에서 정재승의 글쓰기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 과학 지식을 엮어' 사회를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11 이 글과 〈보기〉에서는 글쓰기가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폭넓게 고려하는 의사소통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의 정재승 역시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했으므로, 글쓰기를 개인적 경험에 한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② 이 글에서 정재승은 글쓰기를 독자와 '소통'하는 과정으로 보고, 독자가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도 글쓰기를 독자의 독서 과정을 의식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설명하며, 의미가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정재승은 글쓰기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도구라 말하고 있고, 〈보기〉에서도 글쓰기를 자기 표현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이 글과 〈보기〉에서는 모두 글쓰기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공동체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이 글에서 정재승은 대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예와 비유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도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사를 예측하여 글감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글쓰기가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여 준다.

12 ㉠ '동기화'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도록 시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반딧불이 동시에 불을 깜박이거나 추시계의 진동이 같아지는 사례를 통해,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는 것을 '동기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동기화'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조율되는 현상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3 '자료 2'는 브라우니 레시피를 소개한 자료가 아니라, 김보통의 책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에 실린 삶의 일화를 담은 그림이다. 이 자료는 학생의 글에서 브라우니에 담긴 '실패에서의 탄생'이라는 상징적인 일화를 드러내는 이미지로 활용되어 글의 주제(실패를 딛고 꿈을 이루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답풀이

- ① '자료 1'은 김보통이 누리 소통망(SNS) 프로필 사진을 그리며 다시 그림을 시작한 계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 자료는 (나)에서 "누군가 내 그림을 보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는 말과 함께 김보통이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로 활용되었다.

- ③ '자료 2'의 브라우니 일화는 실패로 보였던 일이 뜻밖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김보통의 인생 여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자료 3'은 케이티비(KTV) 방송 영상으로, 김보통의 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작가로서 김보통의 성공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자료 1'은 김보통이 그림 활동을 다시 시작한 계기와 과정, '자료 3'은 김보통의 현재 위치(글로벌 성공)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자료들은 (나)에서 삶의 전환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 14** <보기>에서 (나)를 작성한 후 이를 전달할 매체로 누리 소통망(SNS)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은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핵심적인 표현, 직접적인 소통, 친숙한 말투, 그리고 짧은 문단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상세하게 구성함으로써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쉽게 했다'는 것은 누리 소통망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 글의 작문 맥락과 어긋난다.

오답풀이

- ① <보기>에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마지막 문장은 "친구들도 나도 브라우니를 굶듯..."처럼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예상 독자인 친구들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보기>에는 김보통이 가진 태도를 글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를 (나)에서는 김보통이 누리 소통망(SNS)에 그림을 올리며 느낀 "누군가 내 그림을 보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보여 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태도가 삶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보기>에서 김보통이 삶에서 보여 준 태도를 주제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를 (나)에서는 '곰팡이가 핀 식빵을 먹으며 지금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고 결심한 순간'을 삶의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계기가 곧 스스로의 태도를 바꾼 결과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에서 밝힌 작문 목적은 '내가 이 책에서 받은 용기를 전해 주는 것'이다. 이를 (나)에서는 '브라우니의 실패 일화'를 활용하여 실패를 딛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 상징적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좌절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희망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15** (나)에서 김보통은 오랜만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누리 소통망(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려 올리며 "누군가 내 그림을 보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히 그림 활동 자체의 즐거움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을 통한 감정적 회복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나)에서 김보통은 그림을 다시 시작하며 누리 소통망에 처음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봐주는 것 자체에 기뻐했다고 하였다.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 ② (나)에서 김보통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예술고 진학을 포기했고, 이후 그림 활동도 중단했다고 하였다. 웹툰

작가를 목표로 계속 활동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③ (나)에서는 김보통이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곧 퇴사했고, 이후 도서관 창업에 실패하였다고 했다. 이는 김보통이 퇴사 이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 준다.

⑤ (나)에 김보통이 어느 날 "곰팡이가 핀 식빵을 뜯어 먹다" 문득 지금 가진 것으로 해 보자고 결심하며 연필을 꺼내 브라우니를 그리기 시작한 순간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은 창작 활동을 재개하게 된 계기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창작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계기는 그림 그리기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과 연결된다.

- 16** <보기>에 제시된 독서 방법은 학생이 자신의 궁금증과 목적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책의 내용과 난이도,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펴며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 읽는 '자기 선택적 독서' 방법이다. ①은 <보기>와 같이 자기 주도적으로 목적에 맞는 책을 골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성을 따지는 독서 방법으로, <보기>와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② 타인의 선택이나 대중성에 의존한 독서로, 자신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보기>의 독서와는 차이가 있다.
- ③ 타인의 권장이나 집단의 권유에 따른 독서로, 스스로의 독서 목적과 궁금증에 따라 선택한 <보기>의 독서와는 차이가 있다.
- ④ 지정된 도서 위주로 읽는 학습 중심의 독서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 책을 고르는 <보기>의 독서와는 차이가 있다.
- ⑤ 많은 양의 자료를 읽는 데 초점을 맞춘 독서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는 <보기>의 독서와는 차이가 있다.

2. 읽고 쓰는 힘을 기른다

본책 384~38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①	13 ③	14 ①	

- 01** 5문단에서 필자는 '기술의 발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본의 아니게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것 처럼 보인다.'라고 하였으므로, 기술 발달이 의도적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에서 '당신의 시선을 견뎌 내고 표정을 읽어 내야 하는 노역을 얼마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 것을 통해 전화는 대면 소통에서 느끼는 시선과 표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타자인 당신이 원래 하나의 '얼굴'이었다고 제시하며 당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당신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상대와 대면하며 만나는 상황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문자 메시지는 이후의 통화와 그 이후의 대면을 위한 준비 작업일 때도 있'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5문단에서 '얼굴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글자로, 당신은 축소 조정 돼 왔다.'라고 하였고, 기계의 발달은 타자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한 것을 통해 기술 발전이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02 필자는 소통 방식의 변화로 인해 축소되는 타자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막거나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의 '나와 당신이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 일은 만만찮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다. 이때 당신은 내가 잘 알지 못하므로 그만큼 부담스러운 타인이다.'에서 현대인이 대면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심리적 원인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당신의 시선을 견뎌 내고 표정을 읽어 내야 하는 노역을 얼마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에서 전화가 직접 만남보다 덜 부담스러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③ 4문단의 '모든 일이 이 문자의 층위에서 다 해결되면 좋겠다는 소망의 매체'라고 하는 데서 문자 메시지로만 소통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 담겨 있는 욕망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소통 방식의 변화가 다른 사람이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타자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얼굴-음성-문자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였으므로, '타자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이러한 전환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는 비대면 문화를 긍정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감정 소모를 줄여 주는 비대면 문화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 글의 필자는 마지막 문단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회피하려는 변화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글자보다 타자성이 더 축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독자의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보기>는 비대면 문화가 불편한 소통과 관계를 줄여 준다고 하였다. 이 글의 필자는 상대와 자신의 타자성을 축소하고 회피하여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룬다기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는 비대면 문화의 장점으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 글에서는 '글자-타자'의 장점으로 타인의 표정과 어조를 읽지 않아도 된다는 소통의 편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우려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④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문자로 결별이나 해고를 당한 것을 '불행'이라고 하였으므로 필자가 타자성이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비대면 문화의 장점으로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다.
- ⑤ 비대면 문화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문화로 '글자-타자', '음성-타자'와 타자성의 축소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올바른 진화'라고 보기 어렵다.

04 (가)는 대면이나 전화보다 문자 소통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조사이다. (나)는 젊은 층일수록 문자 메시지를 통한 비

대면 소통에 더 익숙하고 선호도도 높다는 내용의 조사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 소비자 또는 젊은 층이 '얼굴-타자'나 '음성-타자'보다 '글자-타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얼굴-타자' 및 '음성-타자'와 '글자-타자'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가)는 '글자-타자'와의 소통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응답자 중 70% 이상이라고 하였다.
- ③ (나)에서는 대면이나 전화 통화가 즉각적으로 상대의 시간과 감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로 부담이 크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 ④ (나)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비대면 소통, 그중에서도 '글자-타자'에 익숙하고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 ⑤ (가)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나)에는 세대 중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글자-타자'를 선호하는 구체적 이유가 드러나 있다.

05 필자는 ㉠의 변화를 개인의 의지나 선택보다는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② 5문단에서 기술의 발달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본의 아니게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데에서 ㉠이 타자의 타자성을 점점 잃어 가는 과정이고, 기술 발달로 인한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얼굴을 통한 대면 소통이 만만찮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 노동이라고 했고, 3문단에서 음성을 통한 소통, 즉 전화 사용으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생겼으며, 4문단에서 글자를 통한 소통만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기 위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⑤ 이 글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얼굴-음성-글자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편안하게 했다는 점에서 ㉠은 의사소통의 심리적 편리함을 추구해 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06 이 글에서 필자는 뉴욕 퍼블릭 시어터의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에서 발생한 대리 줄 서기라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논거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며 마지막 부분에서 대리 줄 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특정 사건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쟁점에 대한 여러 입장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필자는 각 입장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 대한 여러 입장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글에 통계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해결 방안이 아닌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④ 필자는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연극을 관람하게 하겠다는 행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대리 줄 서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07 이 글에서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지닌 자유 지상주의자, 공

리주의자들은 암표 거래를 옹호하며 줄 서기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차별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이 글의 필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시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능력으로 재화를 배분하듯이 줄 서기는 자발적으로 기다리려는 마음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분배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보다 더 나은 평가 기준이라고 추정할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6문단의 ‘어떤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효용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재화의 분배 방식은 재화가 지닌 본질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문장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③처럼 재화의 가치는 시장의 가격(돈)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아닌 줄 서기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필자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 08 마지막 문단에서 퍼블릭 시어터 측은 무료 공연의 가치를 누구나 평등하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재화 분배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관점은 자유 시장주의자의 관점이다.

(오답풀이)

- ①, ② 2문단 따르면 공리주의자는 시장 거래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한다고 본다. 또 이렇게 이익을 얻음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과 사회적 효용이 향상된다고 여긴다.
③ 4문단에서 시장이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재화를 분배하듯이, 줄 서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도 시장 가격처럼 재화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재화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09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놀이공원의 본래 취지라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 탑승권은 오히려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줄 서기를 옹호하는 측은 시장 경제 외에도 자발적으로 줄을 서려는 마음도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여길 것이므로 우선 탑승권처럼 재화에 대한 지불 능력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오답풀이)

- ①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탑승권 판매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② 공리주의자들은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탑승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볼 것이다.
③ 퍼블릭 시어터 측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관람 기회 박탈을 우려했으므로, 재화를 지불 능력으로 분배하는 우선 탑승권에 비판적 관점을 지닐 것이다.
⑤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시장 거래를 통해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해당 재화를 분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우선 탑승권 거래 또한 놀이 기구 탑승에 대해 높은 가치를 매긴 사람에게 재화를 분배한다고 볼 것이다.

- 10 초고에서 필자는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여 ‘결심의 산물이 아닌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11 ‘펜을 움직여야 생각이 솟아난다.’는 앞 문장인 ‘물속에서 팔다리를 부단히 움직여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과 대응되며, 글의 핵심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제 주저하지 말고 펜을 들어 보자.’는 글의 주제인 ‘글쓰기 실천 권유’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지금 당장 수영장에 달려가자.’는 글쓰기 실천 권유가 아닌 수영에 대한 권유이므로 주제에서 벗어난다.
②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자.’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나만의 펜을 골라 보자.’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워니 부담을 느끼지는 말자.’는 글쓰기에 대한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2 필자는 초고의 1문단에서 ‘힘 빼고 자기 생각을 펜에 맡기면 글을 쓸 수 있다.’는 수영-글쓰기 비유의 이면에 숨겨진 전제에 대해 ‘물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굳는다. 두려움은 의지로 퇴치되지 않는다.’라며 의지나 마음가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제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풀이)

- ② 필자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가 아니라 의지와 현실의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③ 글쓰기에서 감정의 중요성은 필자의 논점과 관련이 없다.
④ 반복 연습의 효과는 오히려 필자가 긍정하는 내용으로, 필자가 부정하는 전제에 적절하지 않다.
⑤ 수영과 글쓰기의 학습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낙관적 전제를 문제 삼고 있다.

- 13 (가)의 ㉠ ‘채식으로의 식단 전환이 자원 절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이미 [A]에 채식의 이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채식으로의 식단 전환을 권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A]의 다음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 ① (가)의 ㉠ ‘전 세계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수치로써 [A]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라는 설명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가)의 ㉡ ‘소고기 생산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채소보다 20배 이상의 물과 땅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비교 수치를 제시하면 [A]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④ (나)의 ㉠ ‘균형 잡힌 채식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활용하여 [A]에 제시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 외에 다른 만성 질환 예방 효과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나)의 ㉡ ‘섬유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활용하여 [A]에 제시된 소화 개선 효과 외에 면역력 강화 효과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14 이 글은 마지막 문단에서 ‘일주일의 한 번 채식을 시작해 보세요.’라고 부드럽게 채식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3. 삶을 성찰하다

본책 390~39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④	07 ④	08 ②	09 ⑤	10 ⑤
11 ⑤	12 ①	13 ④	14 ④	15 ①
16 ①				

01 이 글은 철학자 에리히 프롬이 생각한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 세 가지를 나열하고, 사랑에 대한 그의 철학을 제시하여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2 2문단을 통해 현대인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사랑하는 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차라리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이라는 현대인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① 5문단의 ‘현대인인 멋진 상대를 만나 그에게 빠지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 경험하는 격정적인 상태와 사랑이 지속되는 상태를 혼동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2문단의 ‘사랑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보지 않고, 멋진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사람들이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자가 되거나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 것, 유머를 구사하고 흥미 있게 대화를 끌어가는 것, 모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 등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프롬은 현대인의 이러한 태도가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결혼 제도의 큰 변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 ‘낭만적인 사랑’은 프롬이 제시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현대인의 사랑에 관한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져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집중하지만, ㉡ ‘성숙한 사랑’은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 의도적 노력을 통해 익혀 실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은 19세기에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겨진 것은 맞으나, ㉡은 결혼 후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랑을 연마하고 익힌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② ㉠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주체적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은 스스로 사랑의 기술을 익혀 배우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은 현대인의 관점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현재도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은 사실에 기반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을 노력하여 연마하여 얻는 능동적 행동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연인 간의 사랑에서 확대하여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4 <보기>에는 아이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성숙한 사랑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의 사랑이 타인의 삶과 행복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05 <보기>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균형 있게 갖춘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다.’를 통해 스텐버그가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고, 이 글의 6문단에서 프롬이 사랑을 연마해야 하는 기술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프롬은 현대인이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어떻게 사랑할지를 이해하고 연마해야 함을 이야기하므로 사랑할 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보기>에 제시된 스텐버그의 이론도 사랑할 대상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프롬은 성숙한 사랑을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스텐버그는 성숙한 사랑의 조건으로 책임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헌신을 들고 있으며 수동적인 감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열정을 사랑의 요소로 제시한 것은 스텐버그이며 프롬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격정적인 상태를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사랑과 이를 혼동한다고 하였다.
- ④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 프롬은 사랑을 배워 연마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스텐버그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06 ㉠ ‘결부(結付)되어’는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연관되어’라는 의미이다.

07 5문단에서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적인 짧은 순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6문단에서 결정적 순간은 기하학적으로 완성된 사진의 프레임을 준비해 놓고 피사체에 집중하다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포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의 ‘이후 ‘결정적 순간’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진가를 사로잡은 위대한 담론이 되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6~7문단에서 브레송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며 ‘결정적 순간’은 준비하고 기다리면 언제든 찾아온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⑤ 1문단의 ‘이 담론은 화면 속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결정적 순간에 셔터를 눌러 그 순간의 정수를 포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브레송은 시간의 흐름보다 사진의 프레임을 준비해 놓고 대상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 모네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빛이 피사체를 무한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그림에 표현하였다.

오답풀이

① 브레송은 사진기라는 장치로 사진을, 모네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

③ 브레송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적 장면을 사진에 담았고, 모네는 무한한 시간만큼 풍경도 무한히 변화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작품에 담아내었다.

④ 브레송은 피사체의 결정적 순간 하나를 한 장의 사진에 담았고, 모네는 하나의 피사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 장의 그림으로 담았다.

⑤ 브레송은 화면 속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결정적 순간의 정수를, 모네는 빛의 변화로 인한 피사체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09 ㉠에서 물웅덩이에 반사된 화면에는 웅덩이를 뛰어넘는 사내의 모습과 도시 풍경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풍경은 흑백으로 처리되면서 단순화되었고 물웅덩이에 반사된 화면의 형태는 선, 원, 도형이 기하학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띠고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브레송의 초창기 대표작인 이 사진은 물웅덩이 사진이라고도 불립니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2문단의 ‘웅덩이를 뛰어넘는 남성의 발이 물에 닿기 직전의 순간이 보여 주는’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2문단의 ‘지저분한 공사장과 회색 도시의 모습은 흑백 사진으로 단순화되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남성의 모습은 화면 뒤쪽에 보이는 서커스단의 포스터 속 댄서와 재미있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10 5문단을 참고할 때 필자가 이해한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은 피사체와 호흡하는 것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이러한 세상의 리듬을 이해한 사람이 포착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

11 ‘중요한 이야기’는 결정적 순간을 놓치더라도 다시 셔터를 눌러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반영하여 아들에게 인생에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은 앞으로 많이 찾아올 것이고, 다시 올 타이밍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하라는 내용을 조언할 것이다.

12 필자는 어느 날은 맹렬히 연습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연습을 후딱 하고 말기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연습에 탄력을 받는 날이면 옷을 관객으로 여기고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③ 8문단에서 지인의 공연을 본 필자가 지인의 연습을 생각하며 그 시간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5문단의 ‘어떤 날은 엔진 오일을 새로 간 듯 연습에 탄력이 붙는다. 아주 재미있고 귀한 날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의 ‘화가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어지러워 세상이 너무 무거울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앞에서 무력할 때 나는 연습으로 도망을 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4문단에서 어떤 날은 연습 중 ‘헛헛하고 바쁜 마음’이 들거나 ‘이유 없이 산란한 마음’을 느끼지만 또 어떤 날은 ‘재미있고’, ‘신이 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연습이 필자의 감정 기록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연습을 반복하면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게 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② 6문단에서 필자는 연습을 이용하여 삶이 힘들 때 연습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추스른다고 하였다.

③ 1문단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신체 컨디션, 특정한 부분에 재미를 느끼는 나의 흥미,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 나의 욕망 등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주로 연습 시간 안에 왕왕 발생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7문단에서 필자는 연습이 무대에서 자신을 기죽지 않게, 진땀 흘리지 않게 해 준다고 연습을 통해 무대에서 공연을 잘 해내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14 ‘내 판소리의 주춧돌’은 필자가 연습을 하며 얻은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태도나 철학, 창작과 실험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8문단에서 필자가 지인의 공연을 관람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이는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연습을 했을 지인에게 공감하거나 그런 지인을 대단하게 여길 뿐 다른 사람의 판소리 기술을 관찰하며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보기>는 필자가 본 지인의 공연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으로,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연을 이어 나가는 지인의 모습과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조용한 공연장에 휴대 전화가 떨어져 소리가 난 상황을 ‘갑작스럽게 돌 하나가 떨어진 듯한 지금 이 상황’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7문단에서 필자가 말한 진땀이 나는 상황에 해당한다.

16 ㉠ ‘넘을’의 ‘넘다’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①의 ‘넘다’ 또한 ‘자정’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나타내므로 ㉠과 문맥상의 의미가 유사하다.

4. 정보를 활용하다

본책 396~401쪽

- | | | | | |
|------|------|------|------|------|
| 01 ⑤ | 02 ④ | 03 ③ | 04 ⑤ | 05 ① |
| 06 ③ | 07 ① | 08 ⑤ | 09 ② | 10 ① |
| 11 ⑤ | 12 ③ | 13 ⑤ | | |

01 2~3문단에서 탐사선이 플라이바이를 하며 행성의 중력 웅덩이와 행성의 공전을 활용하여 속도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행성이 한곳에 멈춰 있다면 탐사선이 행성의 중력 웅덩이를 벗어날 때 원래 속도로 되돌아 오지만 행성은 궤도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력 웅덩이도 행성과 함께 움직인다. 이로 인해 탐사선이 행성을 떠날 때 행성이 움직이는 만큼 속도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① 4문단의 '2014년 11월 인류 최초로 행성이 아닌 혜성 표면 위에 탐선을 착륙시켰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6문단에서 우주인들이 탐사를 가기 전에 로봇 탐사선을 먼저 보내어 그곳을 탐사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의 '천체 결을 지나가면서 그 중력을 빌려 탐사선의 방향을 꺾고 속도를 얻는 방법'이라고 플라이바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5문단의 '탐사선은 행성뿐 아니라 작은 소행성도 플라이바이 환승역으로 이용했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02 플라이바이로 다른 행성을 경유지로 자주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료 소비가 적은 것은 아니다. 플라이바이를 하는 행성의 중력 크기와 궤도의 조건 등에 따라 연료 소모량은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화성 플라이바이 이후 두 경로 모두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화성 플라이바이는 방향 전환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모든 탐사선은 지구에서 출발하므로 여정 초반에 지구와 플라이바이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경로 모두 지구에서 출발하므로 지구 플라이바이를 한 번 이상 포함한다.
- ③ 두 경로 모두 플라이바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인 목성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5문단의 '지구와 화성이 일반 환승역이라면, 소행성은 작은 간이역'이라고 할 수 있다.'를 통해서 소행성 플라이바이의 중력 도움이 행성 플라이바이보다 중력 도움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03 3문단에서 행성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행성의 중력 웅덩이도 함께 움직이기에 탐사선은 행성에 플라이바이를 하여 행성이 움직이는 만큼의 속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04 2문단에서 탐사선이 행성에 접근할 때 행성이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탐사선은 '중력 웅덩이' 안으로 굴러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플라이바이를 할 행성이 지닌 '중력 웅덩이'가 깊을수록 탐사선은 속도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05 ㉠ '내던지는'은 문맥상 탐사선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다는 의미이므로, '활·총포·로켓이나 광선·음파 따위를 쏘는'의

뜻을 지닌 '발사(發射)하는'이 바뀐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② '투척하는'의 기본형 '투척(投擲)하다'는 '물건 따위를 던지다.'라는 뜻을 지닌다.
- ③ '방출하는'의 기본형 '방출(放黜)하다'는 '물리쳐 내쫓다.'라는 뜻을 지닌다.
- ④ '출범하는'의 기본형 '출범(出帆)하다'는 '배가 항구를 떠나다.', '(비유적으로) 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 ⑤ '추구하는'의 기본형 '추구(追求)하다'는 '목적을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06 6문단에서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각도가 클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표현한 값을 코사인 유사도로 정하고,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뺀 값이 코사인 거리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는 두 점 사이의 각도가 클수록, 즉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값이 작다. 그러므로, 코사인 유사도 값이 작을수록 의미상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에서 벡터 공간에 위치로 표현한 단어는 가까운 단어끼리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면 두 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 ④ 5문단에서 각도는 어떤 벡터 공간에서도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각도를 이용해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6문단에서 코사인 법칙에 따라 표현한 값을 코사인 유사도로 정하고 코사인 거리는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뺀 값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코사인 거리는 두 점(벡터)이 이루는 각도를 사용하므로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 ⑤ 1문단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며, 줄자로 거리를 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07 ㉠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할 경우에 벡터 공간의 크기가 변하면 벡터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값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 '코사인 거리'는 벡터 사이의 각도를 바탕으로 한 값으로 벡터 공간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 대신 사용할 수 있다.

08 ㉡은 입력한 문장 전체를 벡터로 표현하여 에프에이큐(EAQ)에 이미 만들어 둔 문장과 유사성을 비교한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장을 유사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이므로 ㉡가 가장 적절하다.

09 <보기>는 벡터 값으로 단어 사이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단어의 벡터값 위치가 '남자'와 '여자'의 거리와 '왕'과 '여왕'의 관계가 일치하도록 벡터로 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거리와 '왕'과 '여왕'의 거리가 유사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0 5문단에서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각도가 클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고 하였다. $\gamma - \alpha$ 의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크므로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뺀 코사인 거리는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사인 거리가 작을수록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gamma-\epsilon$ 은 $\gamma-\epsilon$ 보다 거리가 가깝다.

○답풀이

- ② $\gamma-\epsilon$ 의 유클리드 거리는 0.4100이고 $\gamma-\epsilon$ 의 유클리드 거리는 0.0920이다. 벡터 공간의 크기가 같다고 전제하였으므로 γ 은 ϵ 과 유클리드 거리가 더 가깝다.
- ③, ④ $\epsilon-\gamma$ 의 코사인 유사도는 0.8550이므로 코사인 거리는 0.1450이다. $\epsilon-\gamma(\gamma-\epsilon)$ 의 코사인 유사도는 0.9920이므로 코사인 거리는 0.0080이다. 그러므로 $\epsilon-\gamma(\gamma-\epsilon)$ 이 $\epsilon-\epsilon$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ϵ 은 가까운 위치에 있는 γ 과 의미가 ϵ 보다 더 유사하다.
- ⑤ 이 글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두 벡터 사이의 직선거리인 유클리드 거리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 11 [자료 5]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독도 생태계 변화'라는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독도의 생태계 변화를 다루는 (나)에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① [자료 1]에서는 독도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개요의 '가운데-1-가'에서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중 육상 생태계의 조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료 2]에서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발생한 갯녹음 현상을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요의 '가운데-2-나'에서 수온 상승으로 변화하고 있는 독도 생태계의 모습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③ [자료 3]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동해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국립 공원 공단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개요의 '가운데-2-나'에서 수온 상승으로 변화하고 있는 독도 생태계의 모습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④ [자료 4]에서는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의 조사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제시하여 동해의 봄철 평균 해면 수온이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개요의 '가운데-2-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12 독도의 해양 생태계 부분에서는 해조류, 해양 무척추동물, 어류 등 해양 생물의 종류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문제-해결 구조'보다는 '나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풀이

- ① (가)에서 글의 목적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알리기'이고, 글의 주제는 '독도의 생태계 변화'임을 고려할 때, (나)의 '독도의 아름다운 생태계에 찾아온 변화'라는 제목은 글의 목적과 글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의 개요 중 '가운데-1'에서 독도의 육상 생태계 부분이 식물, 곤충, 조류로 분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각에 포함되는 생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나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나)의 개요 중 '가운데-2 독도 생태계의 변화' 부분과 (다)의 2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온 상승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독도 생태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개요 중 '가운데-2 독도의 생태계 변화' 부분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을 다루고 있고, (다)의 1문단에서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했고 그 수온 상승으로 독도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 독도 생태계가 변화했음을 밝히기 위해 원인-결과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13 ⑤는 '독도의 해양 생태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갯녹음 현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에서 독도 생태계 변화의 핵심 원인을 간략히 요약하고 있고,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한 캠페인, 지역 어민과의 협력 활동 등'으로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답풀이

- ① 독도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 요약이 없다. '전 세계적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이라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독도 생태계 변화에 대한 내용 대신 독도의 해양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방안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었다.
- ③ 독도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였으나 앞서 제시된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지 않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방안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었다.
- ④ 독도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탐사 프로젝트'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보호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

5. 사회를 바라보다

본책 402~407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②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④	14 ④	15 ⑤

- 01 이 글은 정치의 범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구들과끼리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 영역에서도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일어나고 이를 조율하는 일이 나타난다.

- 02 ㉠은 정치는 국가적인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보는 입장인 국가 현상설, ㉡은 정치는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과 조정이라고 보는 입장인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이다. ㉡에서 일어나는 정치 행위는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사회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국가의 정치 행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답풀이

①, ② ㉠은 정치 공동체의 범위를 국가로 설정하여 정치의 범위와 경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정치 현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다양한 현상을 정치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③, ④ ㉡은 국가를 포함하여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정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회사, 동창회 등과 같은 집단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을 정치라고 본다.

03 정치 행위로 인해 결정된 사항은 사회의 법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구성원의 개인적인 취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답풀이

① 7문단에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동체가 마주하는 문제를 공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③ 8문단에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조율 과정은 정치에 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④ 4문단에서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에서는 국가 외에 공동체에서도 정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⑤ 7문단에서 현대의 폴리스는 국가, 회사, 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04 <보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실존적 힘을 기르는 장소로 보고 있으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8~9문단에서 정치 활동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보기>에서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실존적 힘을 보충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③ <보기>에서 사적 영역의 박탈성 즉 완전히 사적인 생활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완전히 사적인 생활만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④ 8문단에서 사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정치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사적 영역은 삶의 필연성이나 개인의 보전을 보장하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⑤ <보기>에서 사적 영역의 박탈성은 타인과의 객관적 관계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폴리스 안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삶으로 볼 수 있다.

05 ㉠은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③의 '부르다'도 (불운한 천재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

○답풀이

① '남이 자신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게 또박또박 읽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구호나 만세 따위를 소리 내어 외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④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⑤ '어떠한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06 9문단에 의하면 유럽은 이데아의 세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원칙을 중요시하였다. 4문단에 의하면 동양의 건축물은 대부분 주변 환경에 맞추어 구성된다고 하였다.

○답풀이

① 2문단에서 한자는 사방으로 글자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이 더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서양의 건축물은 좌우 대칭성을 갖고 있고, 9문단에서 기하학적인 건축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동양의 건축물은 주변 환경에 맞춘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되는 점은 한자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⑤ 9문단에서 동양의 건축은 땅과 연결된 개미집처럼 관계성을 중요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충(忠)이나 효(孝)와 같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양의 문화에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은 한자와 알파벳, 개미집과 벌집에서 드러나는 동서양의 문화가 동서양의 건축 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08 ㉠은 집단으로 서식하며 강한 사회성을 띠고 있는 개미와 벌 사회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회의 서식지가 지닌 특징으로 드러나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9 ㉡은 서양 건축에 영향을 미친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서양 건축 양식이 창조된 문화적 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 6문단과 9문단에 따르면 동양의 건축이 연결망을 중요하게 생각한 개미집처럼 관계성을 중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겹겹이 쌓인 담장으로 구획된 영역이 수많은 대문으로 서로 연결되어 감응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답풀이

① 4문단에서 동양의 건축은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으로 증식하듯 구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우리 전통 가옥의 구획된 영역은 수많은 대문으로 연결되어 감응의 폭을 확장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서양인들은 기본적인 최소 단위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서양의 철학적 사유는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거나 사물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므로 서양 사람들이 기본적인 최소 단위를 추구했던 것은 '눈의 관점'을 중시한 것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좌우 대칭성, 기하학적 건축 양식을 서양 건축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한 서양 건축이 시각 예술의 한 영역으로, 비례와 균형을 중시했다는 점과 연결된다.

④ 9문단에서 동양 건축은 관계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다양한 영역이 대문으로 이어지는 예를 통해 동양 건축의 특징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외부 세계를 온몸의 감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대상으로 보는 '몸의 관점'의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1 문맥을 고려할 때 ㉔의 '추구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를 의미한다. ㉔의 '지향하다'는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를 의미한다.

○답풀이

- ① '추가하다'는 '나중에 더 보태다'라는 뜻이다.
 ② '강구하다'는 '구하기 힘든 것을 억지로 구하다.'라는 뜻이다.
 ③ '주시하다'는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보다.'라는 뜻이다.
 ⑤ '종결하다'는 '결정을 내리다.'라는 뜻이다.

- 12 (가)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주장, (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주장을 나타낸 글이다. (가)에서는 현금 사용의 불편함과 현금 분실의 우려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 13 ㄴ은 현금 사용을 줄임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경제 시스템 효율성 개선에 투자하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가)에 우리나라의 현금 결제 비중이 낮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ㄴ에 객관적 수치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㉔는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 ① ㄴ은 한국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② ㄴ은 현금이 없어졌을 때 불편을 겪은 노년층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ㄴ은 전문가 의견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⑤ ㄴ은 모바일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람들을 취재한 기사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 14 (가), (나) 모두 신뢰성이 확보된 통계 자료를 활용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다. 또한 (나)는 누구나 일상에서 겪었을 만한 사례로 독자의 공감을 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15 ㄴ-2는 현금 비중이 줄어들면 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신문 기사이다. 이는 (가)에 제시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답풀이

- ① ㄴ은 60대 이상도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의 3문단에서 현금이 없어질 경우 노년층과 같은 특정 계층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② ㄴ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제시한 현금 없는 사회가 가진 문제점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③ ㄴ-1은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다룬 현금 사용이 사라질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ㄴ-1은 스웨덴의 온라인 금융 사기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나)의 3문단에서 제시한 스웨덴에서 현금 사용 감소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6. 통합적으로 읽고 쓰다

본책 408~41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④
11 ④	12 ②	13 ①	14 ④	15 ⑤

- 01 (라)는 텀블러를 사용하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로, 뉴 미디어에 해당한다. (라)에서는 이미지와 문자가 쓰였으나, 음향은 삽입되지 않았다.

○답풀이

- ①, ②, ③ (가), (나)는 신문 기사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인쇄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글로 표현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내용의 정확성을 판단해야 한다.
 ④ (다)는 공익 광고로 방송 매체에 해당한다. 방송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화면 연출이나 음향 효과 등 자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현 요소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 02 (가)는 △△ 상점의 과일 판매량 집계 결과에서 복숭아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박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 상점의 전체 과일 판매량의 증감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답풀이

- ②, ③ (가)는 △△ 상점의 판매량 집계 결과에서 복숭아의 매출이 증가하고 수박의 매출이 감소하였음을 제시하고, △△ 상점 과일 판매자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1인 가구의 증가 현상과 과일 매출 순위의 변화를 관련짓고 있다.
 ④ (나)는 서울시 1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13퍼센트포인트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는 서울시가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 03 (다)는 텔레비전 광고로, 각각의 장면이 자막과 내레이션을 삽입하였다. (라)는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로 텀블러의 이미지와 글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와 (라)는 모두 다양한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복합양식성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 04 ㉔은 기사의 '부제'에 해당하며, 기사에 담긴 내용을 표제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사에서 정보를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은 '본문'에 해당한다.

- 05 <보기>는 '챌린지' 문화가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환기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보여 주기식 요식 행위로 비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라)와 같이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에서 접하는 '챌린지' 또한 그 목적을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답풀이

- ①, ② (라)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이다. 즉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이를 경제적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라)의 '챌린지'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적절성을 살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보기>에서 '챌린지'가 본래 성격을 잃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강조한 것은 맞으나, (라)는 '지구 지키기' 즉 환경 보호라는 '챌린지'의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06 (다)의 광고에 노인과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가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⑤ (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일상의 여러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하여 여러 문화의 공존을 긍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다)는 각 장면에서 내레이션과 자막을 함께 삽입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다)는 '다양해서 더 가치 있는 문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와 같이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7 (라)는 텀블러 사용을 추천하는 이미지와 공감을 표시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라)는 친근한 문체를 사용하여 수용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영상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② (라)에는 텀블러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특정 브랜드의 상표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③ (라)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내용으로 친환경 소비의 필요성을 알린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라)는 환경 보호를 위해 '챌린지'에 동참할 것을 독려할 뿐, 텀블러 사용의 강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08 (가)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막대한 이산화 탄소가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협하는 화석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는 고정된 것과 익숙함에 반응하는 고정자의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09 (다)의 2문단에서 타이포그래피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클 경우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1문단에서 필자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변화를 설명하며, 이로 인해 인류와 지구의 공존이 위협받았다고 하였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생명 활동에 적합한 기온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 ③ (나)의 1문단에서 '관리'는 '돌봄'과 '가꿈'이 줄 수 있는 안전함과 배려가 없다고 한 부분을 통해, 도시 건축 디자인에서 '가꿈'과 '돌봄'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다)의 2문단에서 지면이나 화면에 제약이 있어서 글자 크기,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양, 공간의 면적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를 통해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글자 크기의 적절한 선이 정해짐을 알 수 있다.

10 (가)의 2문단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2009년 기준으로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사용량의 8,200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1 (다)의 2문단에서 필자는 고정자를 배려한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크기는 시력 저하가 오기 전의 젊은 눈이 잘 적응하는 긴 글의 평균 글자 크기보다 다소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다)의 3문단에서 행간이 자주 일어나면 고정자가 내용 인지와 기억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글자 크기를 줄이고 하지는 않았다.
- ② (다)의 2문단에 고정자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성격이 완고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각진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③ (다)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정자를 배려하기 위해 타이포그래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⑤ (다)에서는 고정자의 인지 특성을 반영하여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맞으나, 고정자는 어린이와 달리 고정된 것과 익숙함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12 (나)에서 필자는 어떠한 배려나 공감 없이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어 계획하는 행위가 '관리'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리'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버리지도 가꾸지도 않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13 (나)에 따르면 수원 시청 앞 버스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의자는 고정되어 있어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고, 휠체어 사용자가 정류장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수원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자동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여 버스 승강장의 환경을 개선하였다.

14 <보기>의 그림과 (다)의 3문단 내용을 통해 고정자의 안구 도약 운동과 젊은 독자의 안구 도약 운동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정자에게 필요한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다.

15 ⑤의 '기울이다'는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곳으로 모으다.'라는 의미로,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의 '기울이다'는 모두 '비스듬하게 한쪽을 낮추거나 비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문맥상 ㉠와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